

(주)공감만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이 뽑은
대덕구의 주요 의제

연구

(주)공감만세

연구책임

권선필 목원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고두환 (주)공감만세 대표이사

연구원

김기영 노진호 박현민 윤혜린 이연경 이정훈 황근하

제출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이 뽑은 대덕구의 주요
의제”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2.

주식회사 공감만세
대표이사 고두환

국문초록

인간이 사는 세상에 있어 '세대'는 한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매개자로서 기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세대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사회의 미래를 보다 희망찬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수단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중앙의 정치인들과 지방의 행정 담당자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세대 문제의 핵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수불가결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청년세대를, 30대(1982~1991년생, '밀레니얼세대'에 준함)와 20대(1992년 이후생)을 남녀 성별집단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사전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키워드 설문조사를 실시, 먼저 청년들의 기초적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덕구의 일부 청년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이들이 어떠한 캐릭터인지 명확하게 파악했고, 마지막에는 별도의 FGI 피설문자를 진행하여, 이들의 가치관과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 결과, 같은 청년세대이지만 30대와 20대는 선호하는 가치에서 매우 다른 특성을 보였다. 30대는 라이프스타일, 경제·일, 커뮤니티·관계,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정치·사회·참여 등 모든 영역의 의제들에 해당하는 상당수 키워드에서 20대보다 적극적인 채점태도를 보였다. 20대가 30대보다 더욱 많은 점수를 부여한 키워드는 [결과], [경제적 가치], [성공과 부], [스트레스], [스펙], [안정], [취업], [따돌림], [성인지], [신기술], [공정] 등이 대표적이었으며, 이는 20대가 사회에 뛰어들기 전 느낄 수 있는 불안요소를 잘 드러내고 있다. 반면 청년세대를 남녀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에는 여성 집단이 남성보다 적극적인 채점태도를 보였는데, 남성 청년들은 [인정욕구], [고용안정], [재테크], [중고거래], [창업], [권위], [낮은 혼인율], [저출산] 등의 영역에서 여성보다 높은 가점을 부여했다. 해당 의제들에 대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면 그 밖의 모든 의제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한편, 본 조사를 통하여 대덕구의 청년들, 특히 20대들이 인스타그램처럼 비주얼적인 요소가 강하고 개방형 구조를 가진 SNS에 익숙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재 대덕구에서 진행하거나 내부에서 기획중인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각 지역별 조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지역별로 어떠한 인물상의 청년들이 대덕구 관내 행정동에 거주하는지를 점검하여, 본 연구가 정책 전반의 재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청년, 대전, 대덕구, 가치관, 미래의제, 청년세대, 30대, 20대

목차

01 서론	1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2_연구의 대상 및 방법	3
1) 조사 대상	3
2) 조사 방법	3
3) 선행 문헌 연구	8
4) 설문 및 FGI	8
3_선행연구 검토	10
 02 세대: 정의, 분류, 기성세대	 17
1_세대의 구분과 정의	17
2_본 연구의 세대 구분	18
3_대한민국 기성세대의 정의 및 구분	18
1) 기성세대의 정의	18
2) 기성세대의 특징	19
4_소결	21
 03 청년세대: 정의와 특징	 22
1_정의	22
1) 청년	22
2) 청년세대	23
3) 청년 관련 각종 수치	23
2_분류	25
1) 청년세대	25
2) 1982~1991년생	25
3) 1992~2001년생	26

3_특성	27
1) 청년세대	27
2) 30대	30
3) 20대	33
4_소결	34
1) 30대와 20대의 공통점	34
2) 30대와 20대의 차이점	34
04 100개 키워드로 살펴본 대덕구 청년들의 가치관과 주요 의제	35
1_조사 개요	35
1) 선정된 키워드	36
2_조사 결과: 전체, 세대별 응답(30대, 20대)	37
1) 표본집단 전체(100명)	37
2) 상위 1/3의 키워드(32개) : 1위부터 공동 29위까지	39
3) 중위 1/3의 키워드(32개) : 공동 33위부터 공동 65위까지	41
4) 하위 1/3의 키워드(34개) : 공동 67위부터 100위까지	43
5) 100개에서 상위/중위/하위를 차지한 항목의 비율	46
3_조사 결과: 전체, 세대별 응답(30대-20대)	47
1) 30대-20대 전체 값	47
2) 30대-20대간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상위 1/3 키워드)	52
3) 30대-20대간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중위 1/3 키워드)	54
4) 30대-20대간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하위 1/3 키워드)	56
4_조사 결과: 성별 차이	58
1) 남성-여성 전체값	58
2) 남성-여성간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상위 1/3 키워드)	63
3) 남성-여성간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중위 1/3 키워드)	65
4) 남성-여성간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하위 1/3 키워드)	67
5_2차 설문조사 결과: 각 성별/연령대별 응답자 인물상 비교 분석	69
6_소결 : 30대와 20대, 남성과 여성은 각각 다른 청년이다	76
1) 30대와 20대의 차이	76
2) 남성과 여성의 차이	77
3) 2차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결과	78
05 20개의 질문으로 살펴본 대덕구 청년세대 가치관: 공통점과 차이점	81
1_30대 vs. 20대: 희망사항과 만족사항	81
2_30대 vs. 20대: 도시의 노령화	83

3_남성 vs. 여성: 직업관, 생활관, 행복관	84
4_남성 vs. 여성: 성평등, 성인지, 저출산	91
5_30대 vs. 20대: 미래관, 경제관, 공정에 대한 의식	93
6_30대 vs. 20대: 기타 의제 - 익명성, 반려동물	97
7_소결	98
06 결론	100
1) 두 세대는 동질한 집단인가, 다른 집단인가	100
2) 남녀 성별간의 유사점과 상이점	102
3) 각 세대가 중요시하는 가치의 분포 양상	103
4) 각 성별이 중요시하는 가치의 분포 양상	105
5) 결론 및 제언	106
참고문헌	108
부록	110
1_설문지	110
2_면접조사지	117

01. 서론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우리가 세대의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세대’가 한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케 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기인함.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년세대가 보여주는 전례없는 행동과 태도를 ‘(신)세대 현상’이라는 피상적 진단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치 않음(박치완, 2019).
- 청년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곧 세대 문제의 핵심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임. 그렇기 때문에 세대연구는 최근 일종의 ‘시대적 요청’, 또는 ‘필요불가결성’과 맞물려, 모든 사회와 국가 집단에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음(박치완, 2019).
- 30대와 20대 이전의 세대, 그중에서도 성장기 시절에 경제적·정치적·문화적으로 혹독한 경험을 거쳤던 현재의 노년층(산업화 세대)을 제외하면,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는 그들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이 존재하고, 그에 바탕을 두고 공통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
- 물론 X세대는 베이비붐세대 선배들의 모순된 행태에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가 있고 자신들의 후배인 청년세대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음. 그러나 청년세대가 겪은 사회적 경험과 그에 바탕하여 형성된 정체성은 X세대와 그 이전의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 중심적이라는 특성을 가짐(최샛별, 2018).
- 지금부터 본 연구에서 다룰 청년세대는 세대 내의 공통된 정체성만큼이나 세대 내에서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 계층으로 분화된다는 특성을 드러내고 있음. 두 세대는 부모 세대가 베이비붐세대(출생연도 1955~1964)와 X세대(출생연도 1965~1979)로 각각 다르고, 경제 상황, IT 보급(대중화) 정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과정에서 성장했음.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 내에서 이러한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 집단을 ‘30대(출생연도 1982~1991)’와 ‘20대(출생연도 1992~2001)’로 구분함.
 - 30대는 유년기(10세 이전)에 경제호황을 경험했으나, 청소년 성장기에 IMF 외환 위기라는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공동체 기반의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본격화되는 경험을 한 세대임. 카페·온라인 커뮤니티(프리카셀, 싸이월드)와 같은 커뮤니티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용하였고, 자신들의 청년 시대에 IT 서비스 자체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베이비붐세대의 자녀 세대이기도 함.

- 20대는 IMF 구제금융부터 2002년과 2008년에 차례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성장기 내내 경제위기와 저성장의 상황을 겪었음. 개인주의적 문화가 일반화된 시대에서 성장한 세대로, 아날로그에 비교적 익숙하고 친숙한 밀레니얼과 달리 아날로그에 대한 경험이 없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임. 20~30대에 PC통신과 같은 초창기의 IT서비스를 경험했던 X세대의 자녀 세대임.

○ 앞에서 보았듯이, 30대와 20대는 부모세대의 차이, IT·통신기술온라인서비스,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경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을 단일하지 않고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가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덕구에 거주하는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공통의 키워드·의제가 무엇이고, 세대 내에서 차이를 보이는 키워드·의제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어려울 것임.

○ 하지만, 현재 청년세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키워드·의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그 숫자가 부족함. 이에 따라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됨.

- 국내에서 진행된 청년세대 관련 기존 연구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의 사례 분석이나 청년세대 일자리 및 고용 관련 연구조사가 대다수였음.
- 민간에서도 청년세대 특성 파악을 위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조사들은 소비습관이나 문화 향유타렌드 등, 마케팅 관점에서 청년세대의 소비패턴 파악에 국한된 한계가 있음. 최선훈(2018)과 같이 청년세대의 구성 그룹인 30대와 20대를 총체적 관점에서 타 세대와 비교하는 연구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청년세대에 집중한 연구라기보다 서로 다른 세대들이 한국에서 공존하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는 길을 찾기 위한 것이지, 청년세대 그 자체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특화된 연구는 아님.
- 청년계층을 남녀 젠더 집단으로 양분하여 비교하는 연구 등도 전국 단위에서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대전·세종·충남권에서는 류유선(2019, 2020)이 여성의 관점을 위주로 진행한 일부 연구가 그 사례의 전부임.

2) 연구 목적

-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어떤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세대 내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또 청년세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를 통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선제적으로 청년세대가 중시하는 가치와 미래의제를 세밀히 발굴하고, 앞으로 대덕구가 진행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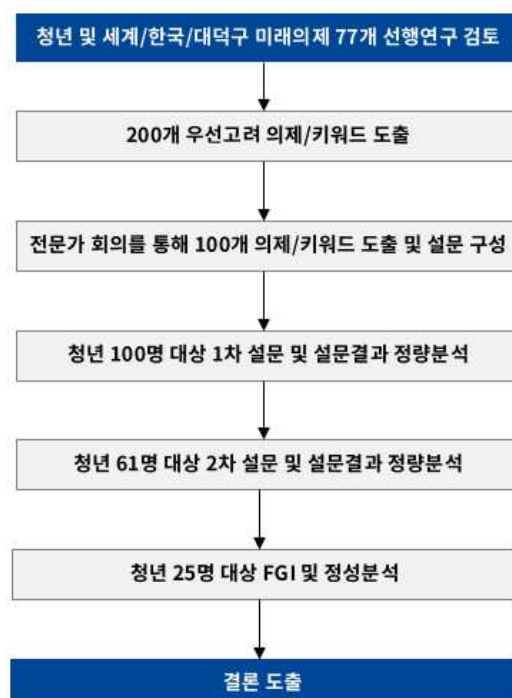
2_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주 청년세대를 30대와 20대로 나누어 연구 진행.
 - 일부 선행연구사례에서 규정한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구분은, 그 구분방법에 있어 각 자료마다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이를 특정한 명명법으로 덮는 측면이 있어 투명성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구분하는 카테고리명에 그들의 연령대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그에 따라 1982년~1991년생을 ‘30대’, 1992년~2001년생을 ‘20대’로 규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임.
-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표본집단으로서 30대 60명, 20대 40명을 선정하여 10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시행하고, 설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FGI를 시행함.

2) 조사 방법

- 조사 프로세스
 - 조사 프로세스는 아래 표와 같음.



- (1단계) 청년과 미래의제 관련 77개 선행연구를 검토, 청년의 가치관이나 미래 의제 관련 100개 키워드와, 대덕구 관내 행정동(12개)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 발표 내용, 대덕구 및 인접지역에 대한 선행연구사례에서 도출된 100개 키워드로 설문 구성함.
- (2단계) 상기에서 도출된 200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전문가 회의 진행, 100개의 문항 내용을 정함.
- (3단계) 상기의 100개 문항에 대해, 청년 100명(30대 60명, 20대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시행 및 설문 결과를 분석함. (정량분석)
- (4단계) 상기 1차 설문조사 참여자 중 자원한 청년 61명을 대상으로 2차 설문시행 및 설문 결과를 분석함. (정량분석)
- (5단계) 정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을 구성해서 청년 25명을 대상으로 심층집단면접(FGI)를 시행함. (정성분석)

○ 선행연구 문헌 선정 및 분석

- 키워드 추출의 기본이 된 문헌은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됨. 첫째, 최근의 청년세대와 관련된 자료(도서, 보고서, 논문, 발간자료 등). 둘째, 대한민국 또는 세계 미래의제와 관련된 자료. 마지막으로, 설문문항 구성 또는 키워드 구성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임.

[표 1-2] 77개 선행연구 문헌 목록

NO	문헌 제목
1	UN지속가능발전목표(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5)
2	SDG Atlas 2020(World Bank Group, 2020)
3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worlds young people in 7 charts(World Economic Forum, 2018)
4	The power of youth in action(Global Shapers Community, 2019)
5	Future Research(World Future Council, 2019)
6	서울청년포털 공식 홈페이지(서울특별시, 2020)
7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박영숙 외, 2020)
8	세계미래보고서 2021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 (박영숙 외, 2021)
9	한국인의 미래 인식, 사회분위기, 미래 적응력 조사 3차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0	국민선호미래 연구(국회미래연구원, 2018)
11	미래결정 정책의제 연구(국회미래연구원, 2018)
12	미래연구시리즈 정책토론회(v.1-2) (서울연구원, 2017)
13	Millennials: Engaging an Enigmatic and Influential Generation (홈페이지) (Sydney Consulting Club, 2018)
14	Getting to Know Gen Z: How the Pivotal Generation is Different from Millennials (Futurecast & Berkley, 2017)
15	The power of Gen Z Influence : How the Pivotal Generation is Affecting Market Spend (Barkley, 2018)
16	'True Gen': Generation Z and its implications for companies (McKinsey, 2018)
17	What makes Asia-Pacific's Generation Z different? (McKinsey, 2020)
18	What if the next big disruptor isn't a what but a who? (Ernst & Young LLP, 2016)
19	Both Gen Z & Millennials Believe This Is The Biggest Problem Their Generations Face Now (YPulse, 2019)
20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58	미래형 공동주택의 청년계층 카셰어링 이용수요 분석 (신도겸 외, 2020)
59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건사회연구원, 2018)
60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0 (대학내일이십대연구소, 2019)
61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1 (대학내일이십대연구소, 2020)
62	트렌드코리아 2019 (김난도 외, 2019)
63	트렌드코리아 2020 (김난도 외, 2020)
64	트렌드코리아 2021 (김난도 외, 2021)
65	청년세대의 미래 자신감에 대한 지역간 격차(이순아 외, 2018)
66	청년 미래 성장 지원 방안의 새로운 관점 : 30대 싱글들의 일, 주거, 관계를 중심으로 (박성원 외, 2019)
67	한국형 Z세대는 누구인가 (동아비즈니스리뷰, 2019)
68	“불확실한 미래 보상보다 현재가 중요” MZ세대는 투명한 소통을 원한다 (동아비즈니스리뷰, 2021)
69	한국 청년노동시장 분석과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성 (이승윤, 2017)
70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기까지 청년정책의 흐름 (페이스북 기고) (이승윤, 2021)
71	세종시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 방안 (최성은 외, 2018)
72	도전과 혁신으로 대덕e 꽃피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1)
73	대덕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외, 2020)
74	대전시 20대 청년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정책 수요 (주혜진, 2020)
75	대전시 청년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임성복, 2020)
76	대전·세종지역 청년인구감소의 지역 내 불균형 (주혜진 외, 2020)
77	대덕구 12개 행정동 주민자치회·주민총회 결과 (오정동 외 11개동, 2020~2021)

○ 200개 키워드 도출

- 위의 77개 문헌 및 각종 기사, 포털의 빅데이터(네이버 빅데이터랩, 구글 트렌드)의 키워드를 참고하여 200개의 키워드 풀을 작성함.

[키워드 POOL(200개)]

존중, 신뢰, 웰빙, 행복, 건강, 공감, 재미·즐거움, 배려,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여가, 가치관, 자유, 가족, 스마트기술, 스마트소비, 일에서의 흥미, 안정, 공정, 문화적 개방성, 투명성, 결과, 스토리, 공존, 사회복지, 경제적 안정, 자기계발, 격려, 일에서의 보람, 영상, 워라밸, 평등, 커뮤니티, 다양한 관계, 공유, 질서·규칙, 미래를 준비, 경제적 가치, 재산·경제력, 개인, 위로·힐링, 가성비, 오프라인 관계, 생존, 차별, 독립, 도전·모험, 미래에 대한 불안, 연결, 순간 집중력, 스트레스, 과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열정, 전염병, 정직, 성평등, 성인지, 성폭력, 성역할, 불평등 완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인정욕구, 사회변화, 파동림, 신기술, 청년주거, 재생에너지, 이미지, 불평등 사회, 기후변화, 성공과 부, 고용 안정, 시민, 인공지능, 나의 감정, 나의 욕구, 인내심·지구력, 동물권, 실리, 현재를 즐기자, 텍스트,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가치소비, 노후 준비, 취업, 스펙, 혁신, 지도자, 빈곤, 경제위기, 치매, 초고령사회, 1인주거, 청년주거, 사회적 지위, 사회적 가족, 익명성, 재테크, 타인의 평가, 빛, 창업, 비정규직, 경쟁, 명예, 마이너리티, 상품 후기, 기술중독, 저출산, 낮은 혼인율, 온라인 관계, 권위, 혈연·지연·학연, 쓰레기, 교육, 기후, 환경, 산책, 복지센터, 안전, 행복, 문화, 휴양, 사진, 산림, 야영장, 코로나19, 소셜미디어, 미니멀리즘, 인권, 성소수자, 채식, 인플루언서, 일상, 취향, 중고거래, 팬, 투자, 컨셉, 뉴트로, 데이터, 팬덤, 부캐, 재택, CX, 온택트, 인공지능, 생물다양성, 재생에너지, 심리적 만족, 유머, 잉여, 노동의 가치, 길거리 안전, 마을공동체, 꽃길·숲길, 노동여건, 경력단절, 인구격차, 핫플레이스, 개성, 힙스터, 젠트리피케이션, 탕진잼, 이생망, 정체성, 연대

○ 정량분석으로서 설문 기획 및 구성, 분석 방법

- 200개 키워드풀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중복 또는 불필요한 키워드 제외, 재구성 등의 작업을 거쳐서 최종 100개 키워드(의제)로 정리해서 설문 문항 구성함.
- 100개 문항은 각 문항의 특성, 청년들의 관심분야 및 미래의제의 주요 트렌드 등을 고려해서 5개 항목으로 재분류함(라이프스타일, 경제/일, 커뮤니티/관계,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정치/사회/참여).
- 설문지는 위의 100개의 각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5점,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항은 10점)로 구성해서 설문 진행함.
- 설문의 결과는 5점 리커트 척도 설문에 대한 응답값을 모두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분석. 즉, 100개 각 항목에 대해 100명의 응답값을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세대별 특성을 분석함.
 - ※ 각 개인의 응답을 기초로 청년세대의 특성 또는 청년세대 내 30대와 20대 간의 차이를 주요하게 비교분석하려는 본 연구목적과 분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평균값이 아닌 합산값을 사용.

○ 정성분석으로서 FGI 질문 구성 및 분석 방법

- 100개 문항에 대해, 청년세대 100명으로부터 설문을 받은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질문을 구성해서 각 세대별로 FGI를 시행함.
- 설문 분석 결과, 특별히 의미가 있거나 특이한 것들, 혹은 기존의 통념과 다른 것, 또는 두 세대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들을 중심으로 아래의 예와 같이 FGI 질문을 구성함.
 - ▶ 대덕구의 20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공정/평등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인 이유.
 - ▶ 대덕구의 30대가 오프라인 관계와 다양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 두 문항이 20대와 점수 차이가 매우 큰 이유.

3) 선행 문헌 연구

○ 주요 문헌별 내용분석 및 관련 키워드 도출

- UN지속가능발전목표(UN, 2015)

- ▶ 빈곤 종식, 기아 해소와 지속 가능한 농업, 건강 및 복지,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혁신과 인프라, 불평등 완화,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평화와 정의 및 제도, 파트너십.

→ 유추 키워드 : 기후변화, 불평등 완화, 혁신, 사회복지, 노후준비, 지속가능성

- UN지속가능발전목표 외 76개 문헌도 유사한 방식으로 문헌을 분석하고 키워드 도출함.

4) 설문 및 FGI

○ 설문 기획 및 조사, 분석

- (설문문항 선정) 문헌연구 내용을 기초로 1차로 200개 키워드풀을 작성하고, 이후 연구진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초안을 수정·보완하여 100개 키워드를 선정함.
- 대덕구 거주 30대 60명, 20대 40명의 청년 총100명(세대별 남성 43명·여성 57명)을 대상으로 함.

○ 분석방법

- 100개 문항별로 100명의 응답값을 합산하여, 문항별 총점을 도출. (합산)총점을 기준으로 100개 문항 간 응답값을 비교함.
- 100명 전체의 응답을 합산한 값과 30대와 20대 각각의 응답값을 합산한 값, 두 가지로 나누어서 비교분석 시행.

※ ‘오프라인 관계’와 같이 청년 세대 내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는 응답값이 다수 있기 때문에, 청년 전체(100명)의 응답값을 분석하는 것보다, 청년 세대 내에서 각 세대별(30대 50명, 20대 50명)로 응답값을 분석하는 것이 현실에 보다 가까운 해석일 것임.

○ 심층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 10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은 정량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제약이 있음. 본 설문은 청년들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 선호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설문의 특성상, 응답자가 특정 점수를 선택한 개인적·사회적 배경이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정성분석이 중요. 본 연구에서는 응답값의 정성분석을 위해 FGI를 시행해서, 생애사연구방법론에 기초해서 결과를 분석했음.
- FGI는 청년세대 총25명을 대상으로 함.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연령, 성별, 직업, 지역별 청년 참여자들이 균형있게 포함될 것을 고려하였음.
- FGI 참가자들은 생활권역 및 현재 소속된 지역 청년정책 단체(활동가인 경우)에 따라 다음의 5개

* 생활권역별 그룹 : 그룹1(오정동·대회동·회덕동), 그룹2(송촌·중리·법1동·법2동·비래동), 그룹3(신탄진동·덕암동·목상동·석봉동)

- ▶ FGI 질문은 설문조사에서 다루었던 내용 및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함.
- ▶ 생애사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의 한 장르로서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통해 맥락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맥락성, 기술성, 내러티브적 성격을 갖고 있음.

No	성명	세대	출생연도	성별
1	김○○	30대	1992	남
2	김○○	30대	1992	남
3	이○○	30대	1985	남
4	정○○	20대	1996	남
5	김○○	20대	2001	남
6	박○○	20대	2001	남
7	조○○	20대	1997	여
8	함○○	20대	2001	남
9	김○○	20대	1996	여
10	김○○	30대	1986	남
11	박○○	20대	1994	여
12	육○○	30대	1992	여
13	육○○	20대	1998	여
14	최○○	20대	1993	여
15	김○○	20대	1994	남
16	노○○	20대	1995	남
17	백○○	20대	2002	남
18	이○○	20대	1997	여
19	조○○	30대	1992	남
20	황○○	20대	1993	남
21	김○○	20대	1995	남
22	나○○	20대	1997	남
23	박○○	30대	1987	남
24	전○○	20대	2001	여
25	한○○	20대	1996	남

3_선행연구 검토

○ 주요 문헌별 내용분석 및 관련 키워드 도출

- UN지속가능발전목표(UN, 2015)

- ▶ 빈곤 종식, 기아 해소와 지속 가능한 농업, 건강 및 복지,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혁신과 인프라, 불평등 완화,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평화와 정의 및 제도, 파트너십.

→ 유추 키워드 : 기후변화, 불평등 완화, 혁신, 사회복지, 노후준비, 지속가능성

- 미래결정 정책의제 연구(국회미래연구원, 2018)

- ▶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적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정책 및 사회 정책 수립, 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용하는 사회통합적 정책 개편.
- ▶ 성장 둔화와 기술 요인에 따른 중산층 붕괴 및 경제적 양극화 대응 정책,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식 생산 및 사회 변화 대응.
- ▶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스템 개혁.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합리적 역할 분담,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정주환경 개선.

→ 유추 키워드 : 초고령사회, 출산, 가족, 스마트기술

- Both Gen Z & Millennials Believe This Is The Biggest Problem Their Generations Face Now(YPulse, 2019)

- ▶ 13세 ~ 17세 : 기후 변화, 소셜미디어, 기술 중독, 총기 사고·학교 테러, 따돌림, 정치, 부채, 정신 건강, 게으름, 마약.
- ▶ 18세 ~ 36세 : 기후 변화, 부채, 경제, 마약, 기술 중독, 소셜미디어, 인종주의·차별, 소득 불평등, 생활비, 기성세대.

→ 유추 키워드 : 소셜미디어, 따돌림, 차별, 기술중독

-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0(대학내일, 2019)

- ▶ 추구하는 가치 소신 : 환경, 취향 존중, 미니멀리즘, 동물, 역사, 약자, 직업 처우 개선, 성평등, 성소수자, 비거니즘.

→ 유추 키워드 : 존중, 미니멀리즘, 인권, 성소수자, 동물, 채식

-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1(대학내일, 2020)

- ▶ Z세대의 생활상을 표상하는 단어 : 인플루언서블, 일상력, 자기돌봄, 본질, 피부장벽, 무자극(파테프리), 홈트레이닝, 소소함, 성취감, 재미, 홈콕, 마음챙김, 등산, 차박, 느슨함, 컨셉친, 찐친, MBTI, 부캐, 팬덤, 중고거래, 플렉스, 로컬 생태계, 3테크, 동학개미운동, 아나바다, 선한 오지랖.

→ 유추 키워드 : 인플루언서, 일상, 취향, 팬, 중고거래, 지역색, 투자

- 트렌드 코리아 2019(김난도 외, 2018)

- ▶ 2019년 : 연출된 컨셉, 세포마켓, 뉴트로, 필환경시대, 감정대리인, 데이터 인텔리전스, 카멜레온, 밀레니얼 가족, 나나랜드, 매너소비자.

→ 유추 키워드 : 컨셉, 뉴트로, 데이터

- 트렌드 코리아 2020(김난도 외, 2019)

- ▶ 2020년 : 멀티 페르소나, 라스트핏 이코노미, 페어 플레이어,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팬슈머, 특화생존, 오팔세대, 프리미엄, 업글인간.

→ 유추 키워드 : 팬덤, 개인화, 부캐, 생존

- 트렌드 코리아 2021(김난도 외, 2020)

- ▶ 2021년 : 브이노믹스, 레이어드 홈, 자본주의 키즈, 거침없이 피보팅, 롤코라이프, 오늘하루운동, N차 신상, CX유니버스, 레이블링 게임, 휴먼터치.

→ 유추 키워드 : 재택, CX, 온택트, 중고거래

-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박영숙 외, 2020)

- ▶ 앞당겨진 미래 : 코로나19와 전염병, 디지털 학습, 로봇, 기본소득, 디지털 통화, 스마트시티, 드론, 데이터.
- ▶ 건강과 수명 연장 : 노화, 고령화, 마이크로바이옴, 3세대 유전자 가위, 가상현실, 증강현실, 원격의료, 예방적 의료, 뇌, 인공신경세포, 치매, 백신, 줄기세포.
- ▶ 스마트시티 & 라이프 : 유전자편집, 전기차, 자율주행차, 비행자동차, 스마트로드.
- ▶ 경제와 일자리 : 경험 경제와 구독 경제, 혁신.
- ▶ 거버넌스 : 초연결사회와 세계 시민권, 거버넌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 ▶ 환경과 에너지 : 기후 변화, 순환 경제, 생물다양성, 배양육, 태양광, 원자력발전소.
- ▶ 기술 : 양자컴퓨팅, 나노제조기, 보안기술.

→ 유추 키워드 : 인공지능, 생물다양성, 재생에너지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 ▶ 본 연구는 우리 사회 청년의 일과 삶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조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시행됨. '청년과 함께 하는 미래 한국'이란 비전 하에 5개 분야 16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함.
- ▶ 인구·가족 및 교육 : 혼인율 제고를 위한 주거 및 금융 지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행복지표 조사, 졸업유예가 필요 없는 사회연계형 대학취업 지원체계 강화, 산학연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도입 및 확대.
- ▶ 경제·고용 및 주거 : 일자리 및 경제 측면의 고용위기 해소정책 우선순위 조정, 이직 및 전직 지원체계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수혜 확대 및 평가,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 패러다임 전환.
- ▶ 건강 및 문화 : 심리치료 및 심리정서 지원 강화, 건강검진 수검률 확대, 문화 및 여가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저소득층 청년의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 ▶ 관계 및 참여 :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청년의 정치 및 사회 문제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 법·제도 기반 : 청년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법 제정, 청년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센터 구축.

→ 유추 키워드 : 행복, 낮은 혼인율, 고용 위기, 여가, 심리적 만족, 정치·사회 참여, 청년주거

-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연대기(최선헌, 2018)

- ▶ 이 자료는 한국 사회의 세대를 둘러싸고 진행되어온 논의 및 문제점들을 개괄해 제시하는 한편, 기존 연구 및 서적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세대 간의 상호 교차적 인식이나 세대 자체의 특성에 대한 보다 심화된 논의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 지금까지의 세대 연구들은 특정 시기 두드러졌던 사회상이나 구조적 변화를 토대로 그러한 변화가 극적으로 드러나는 어느 한 측면에 집중해옴.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세대 간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지만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문화 영역별 의식이나 생활상을 포괄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 세대에 대한 관심과 방향이 특정 연령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남음. 이 책에서는 어느 한 세대와 영역에 국한된 논의를 펼치기보다는 전 세대와 전 영역을 아우르는 분석을 진행함.
- ▶ 특히, 각 세대를 이루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시각과 그들의 목소리로 세대라는 현상을 구현해내려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90년생이 온다(임흥택, 2018)

- ▶ 이 책은 90년대생들이 놓인 사회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이들의 역량을 조직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비자로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를 공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저자는 90년대생이라는 큰 틀에서 그들 세대에 대한 정의와 해석을 진행하였고, 기본적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통계를 활용함과 동시에, 다양한 직군의 90년대생들을 인터뷰하고 관찰조사함.
- ▶ 저자는 90년대생의 직원으로서의 핵심 키워드로 “워라벨”, “주52시간제”, “참여와 인정욕구”, “흥미”, “이직”을 뽑음.
- ▶ 또한 저자는 90년대생의 소비자로서의 핵심 키워드로 “스마트 컨슈머”, “연결”, “미니멀리즘”, “해외 직구”, “유머”, “정직”을 뽑음.

→ 유추 키워드 : 워라벨, 52시간 근로, 참여, 인정욕구, 흥미, 스마트 소비, 연결, 미니멀리즘, 유머, 정직

- 밀레니얼의 반격(전정환, 2019)

- ▶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돼 있음. 1부에서는 다양한 밀레니얼 개척자(혁신창업가, 지역혁신가, 공공혁신가)를 소개하며, 그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활동을 하며, 그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은 어떠한지 파악함.
- ▶ 또한 이들의 특징을 이전 세대처럼 조직의 사다리를 오르거나, 혈연·학연·지연의 품앗이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경제적 자원을 축적하고 대물림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으며, 그 대신 세상과 연결된 개인의 가치를 찾아내고 취향과 가치 중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창조적인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키운다고 설명함.
- ▶ 2부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색함. 저자는 서구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초단기 압축성장의 길을 걸어온 탓에 여러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와 비슷하게 짧은 기간에 근대화를 이뤄낸 동아시아 국가들의 모습과 함께 한국의 과제를 파악함. 그리고 궁극적으로 서구 선진국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탈물질주의 사회로 변화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살펴봄. 이를 통해 한국의 개인과 산업, 도시가 탈물질주의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함.

→ 유추 키워드 : 부의 축적, 성공, 혈연·지연·학연, 취향,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 커뮤니티

- 청년 대중서로 본 동시대 청년 담론의 전개 양상(이광석 외, 2018)

- ▶ 이 논문은 출판계 청년 대중서들의 주요 담론과 토픽 흐름을 추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지난 10여 년에 걸쳐 시중에 출판된 청년 대중서의 담론 특성과 계열 흐름을 읽는 질적 연구이자 메타

분석에 해당함.

- ▶ 이 논문은 대중 출판 시장의 청년서가 청년 스스로 담론 소비와 생산 주체로 등장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청년 주체 형성 과정과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매체로 기능했다는 점을 주목함.
- ▶ 이 논문은 각 시기별로 청년 담론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류 담론 질서의 반복과 누적의 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반박하거나 신생의 담론 계열체 형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 ▶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출판계 청년 담론의 토픽은 “청년 빈곤의 정치경제학 비판”으로 주요 서적은 우석훈·박권일의 「88만원 세대 :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엄기호의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닌란 말인가」 등임.
- ▶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출판계 청년 담론의 토픽은 “청년 위로와 힐링 담론”과 “기성세대 청년 논리의 반담론”으로 전자의 경우 주요 서적은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 인생 앞에 홀로 선 그대에게」, 이지성의 「스무 살, 절대 지지 않기를」등이며, 후자의 경우 주요 서적은 최태섭의 「잉여사회 : 남아도는 인생들을 위한 사회학」, 오찬호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등임.
- ▶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출판계 청년 담론의 토픽은 “청년 주체의 사회학적 재구성론”으로 주요 서적은 조성주의 「청춘일기 : 광장 밖 호모 비정규니언스에 관한 기록」, 장원석의 「앵그리 2030 : 청년을 위한 나라의 없다」등임.

→ 유추 키워드 : 경제 위기, 위로·힐링, 잉여, 빈곤, 이생망(이번 생은 망함), 비정규직, 차별

- Y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 : 세대별 일의 가치를 통해 본 의미 및 역할(이혜정 외, 2013)

- ▶ 이 연구는 Y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의 의미와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세대라는 기준을,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에 있어 일의 가치를 주요한 선행 요인으로 봄. 이 연구는 세대별 인터뷰를 통해 각 세대가 갖고 있는 일의 가치의 특징과 이에 따른 일과 삶의 균형 상태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이 직장생활 및 전체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과 삶의 관계에서의 일의 가치와 역할을 탐색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다양한 대상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한 개념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이론적 의의를 제시함.
- ▶ 연구 결과, Y세대는 승진보다는 일의 의미와 일에서의 성취감 및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자기계발 및 여유 시간을 강조함.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다른 세대보다 높은 가치를 둠.

→ 유추 키워드 : 일의 가치, 성공

- 신세대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 연구 : Z세대를 중심으로(박혜숙, 2016)

- ▶ 이 연구에서는 소비문화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X세대, Y세대, Z세대, 알파세대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글로벌 소비문화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Z세대 라이프 스타일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 연구 결과는 첫째 Z세대는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자라난 세대로 유년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신기술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의 소비활동에도 적극 활용하는 세대이며, 둘째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며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여 이전 세대와는 차별화된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셋째 Z세대는 순간 집중력이 그 어느 세대보다 뛰어나고, 더욱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정보를 소화할 수 있으며 두뇌의 인지를 요하는 문제에 능하며, 넷째 인종, 성별, 종교, 사회, 경제적 지위와 만족성에 대해 가장 편견 없는 세대로 여겨짐.

→ 유추 키워드 : 정체성, 지위, 신기술

- 밀레니얼세대와 기성세대의 문화적 차이(전종우, 2020)

- ▶ 이 연구는 세대별 차이에 중점을 두고 밀레니얼세대가 자신들의 부모 세대인 기성세대와 문화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연구함. 설문조사를 통해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원에서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밀레니얼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있어 권력 거리는 차이가 나지 않고, 불확실성 회피성향은 기성세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밀레니얼세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기성세대는 집단주의 성향을 보임. 이어서 기성세대의 경우 장기지향성은 밀레니얼세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남성성이 높음. 반면에 밀레니얼세대는 여성성 문화 성향이 나타나고, 종합적 사고 경향에 있어서는 기성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문화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차원이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원임. 대표적으로 권력거리,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성향, 장기지향성, 자적·자제가 있음. 권력거리는 불평등하게 분배된 권력에 대하여 사람들이 수용하는 정도를 나타냄. 개인주의·집단주의는 자기를 중심에 두는 개인주의와 타인에 중심을 두는 집단주의로 구분됨. 남성성·여성성은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에 대한 차이를 지각하는 것으로 경쟁을 추구하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느냐에 대한 시각을 반영함. 불확실성 회피 성향은 불확실한 것을 감내하는 수준으로 설명함. 장기지향성은 지금보다 미래를 중시하는 경향임. 자적·자제는 행복감, 삶에 대한 통제력, 여가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평가하며 마음대로 소비하고 행동하고 여유와 재미를 추구하는 것을 표현함.

→ 유추 키워드 : 권위, 성역할, 현재·미래

-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김홍중, 2015)

- ▶ 이 논문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청년세대의 특이성을 사회구조의 변동 논리를 통해 이해하기를 제안하면서 그들을 '생존주의세대'라고 명명하고, 그들의 공통된 집합심리를 경험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사전적 이론 연구를 시도함.
- ▶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21세기 한국의 청년세대는 생존에 대한 불안이라는 기초 감정과 서바이벌을 향한 과열된 욕망, 그리고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자신 존재의 가능성들을 전략적으로 계발하려는 집요한 계산으로 특징지어지는 독특한 마음의 역동을 보여줌. IMF 외환위기 이후 전개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화 과정에서 전면화된 이 생존주의는 21세기 한국의 청년세대의 내밀한 마음의 풍경을 이루고 있음.
- ▶ 생존주의세대는 일반화된 경쟁 상황에서 도태되지 않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마음가짐인 생존주의로 특징됨. 존재의 텔로스로 간주되는 서바이벌은 도덕적 선이라는 가치를 획득하고, 생존주의의 레짐은 독존주의, 공존주의, 탈존주의 등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음.

→ 유추 키워드 : 생존, 공존, 욕구, 감정

- “불확실한 미래 보상보다 현재가 중요” MZ세대는 투명한 소통을 원한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21)

- ▶ 이 기고문은 최근 한국의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가 성과급의 공정성을 놓고 다양한 논란을 제기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음.
- ▶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가 공정한 보상에 예민한 이유로 ①경제 침체기에 자라나 불확실한 미래의 보상보다 현재의 보상을 우선시하고 ②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정성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며 ③온라인을 중심으로 회사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기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그 어느 조직에서든 성과급에 관련된 이슈를 제기할 수 있음. 조직이나 기성세대의 관점을 일단 내려놓고 그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유추 키워드 : 투명성, 소통, 연대, 공정성

- 세종시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 방안(최성은·안용준, 2020)

- ▶ 이 연구는 ①세종시의 1인 가구 현황을 검토하여 세종시 1인 가구의 특징적인 면을 도출하고, ②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과 같은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방안을 고려함으로써 20~30대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①1인 가구 규모 파악을 위한 현황 조사와 그에 기반한 연령대별 특화된 정책 및

그 정책대상을 고려한 기초자료 연구 ②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을 위한 세종시 마을공동체 사업 및 건강가족·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의 정책 연계 및 자체사업 시행,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음.

→ 유추 키워드 : 1인주거, 사회적가족, 다문화, 마을공동체

- 도전과 혁신으로 대덕e 꽃피다(대전광역시 대덕구, 2021)

- ▶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대덕구 정책 우수모델과 변화·성장의 기록을 담은 기록물로, 민선 7기를 맞이하여 대덕구가 4년간 어떠한 사업에 특히 중점을 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 ▶ 자료에서 언급된 사례들을 설명하는 단어들 중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어들을 취합해 빈출도를 조사한 결과, '에너지', '행복', '문화', '공동체', '혁신', '청년' 등의 단어 순으로 자주 등장한 것을 확인하였음.

→ 유추 키워드 : 에너지, 환경, 문화, 공동체

- 대덕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대전광역시 대덕구·사단법인 이음, 2020)

- ▶ 이 연구는 대덕구 청년정책의 환경을 분석하고 청년층 현안과 정책 욕구를 조사하여 향후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자는 목적 아래에 진행되었음.
- ▶ 이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연구내용은 ①대전 및 대덕구 사회조사 자료 분석 ②청년문제 실태 파악 및 정책 수요 확인을 위한 FGI조사 ③국내외 청년정책, 타 시군사례 조사, 대덕구 청년 대상 사업 분석 ④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⑤2021년도 대덕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 ▶ 대덕구의 청년정책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 사업의 정당성 부여, 대의 민주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청년정책 분야의 숙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설계나 시행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심의적 공론조사', '합의회의' 또는 '시민배심원제'와 같은 시민의 숙의와 역량강화를 강조하는 시책개발 및 집행이 요구됨.

→ 유추 키워드 : 창업, 일자리, 취업, 교육

- 대전시 20대 청년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정책 수요(주혜진, 2020)

- ▶ 이 연구는 ①대전 소재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년의 성평등 인식 수준과 대학 내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기구 운영 및 성평등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②다양화되고 있는 학내 성폭력 발생 양상 억제와 2차 피해를 예방, 대학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③지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와 활동가 집단이 함께 연대하여 청년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둠.
- ▶ 대전 소재 대학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 이들 기관이 학내에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상담원의 고용도 불안정하며, 성평등 및 성폭력 이슈에 대한 학생들이 관심이 적고 참여율도 떨어지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 대전 소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은 낮지 않지만 남녀간 인식의 차이가 여전하고, 교수나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보다 학생간 성폭력이 더 심각한 것을 확인함. 또한 전체 응답 학생 중 33.4%만이 전년도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학내 성폭력 예방 교육 확산과 참여 촉진, 그리고 성평등 인식 확산과 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 대응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 대전 지역에서의 성평등 인식 확산과 성폭력 예방, 대응을 위한 과제로는 ① 지자체와 경찰, 대학과 젠더 전문가가 함께하는 '성평등 학교 밖 연대회의' ②대전시 산하 기관을 활용한 '성평등 교육 플랫폼' 구축 ③대전시 성폭력 대응 법률지원단 운영 ④대학생 성평등 마인드 실천 워크숍 추진이 제시됨.

→ 유추 키워드 : 성폭력, 성평등, 성인지

- 대전·세종지역 청년인구감소의 지역 내 불균형(주혜진·최성은, 2020)

- ▶ 이 연구는 청년층 인구를 출산의 주제로 설정하고 이들에게 저출생의 책임을 묻기보다, 청년들이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탐색해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함. 그 방법으로 '사회적 감소'에 주목하고,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별 인구구조의 새로운 모습 및 그 모습을 해석하는 데에 색다른 시각을 투여함.
- ▶ 연구 결과, ①대전은 젊은 도시지만 동네별 청년인구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②세종의 경우 전체 청년~청소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읍면동 간 격차가 심하고 ③20~30대 남성과 여성들이 각 연령대마다 제기하는 민원의 내용도 상이하며 ④특히 문화여가 시설 부족, 보행자 친화적이지 않은 거리, 쓰레기 등의 불편함의 기억이 여성 청년에게 특히 오랫동안 작용함을 확인함.
- ▶ 마지막으로 종합 논의 부분에서는 ①여행자의 시각으로 도시 공간 탐구 ②생활공간이자 즐기는 장소로서의 도시 ③동네의 특성 파악과 함께 창업 공간과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 ④도시공간이 가진 기억과 이야기를 묶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마을 공간의 필요성 ⑤청년, 여성 청년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청년 지원 사업과 참여 기회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유추 키워드 : 저출산, 노동여건, 경력단절, 인구격차

- 대덕구 12개 행정동 주민자치회·주민총회 결과 (오정동 외 11개동, 2020~2021)

- ▶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 하순까지 아래의 행정동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의 결과표와 회의록의 내용을 분석, 현재의 남녀 청년층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선정함.
[오정동, 대화동, 회덕동,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법1동, 법2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 ▶ 각 동 주민총회의 결과표에서는 차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의 제목을 요약하여 키워드를 추출하였음.
- ▶ 12개 행정동 중 회의 중의 발표내용을 전부 텍스트화한 회덕동과 덕암동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주요 단어 빈출도를 통계조사용 컴퓨터 앱 "R"의 워드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여 조사해 키워드 선정에 반영함.

→ 유추 키워드 : 꽃길·숲길, 문화, 기후, 쓰레기, 교육, 길거리 안전

02. 세대: 정의, 분류, 기성세대

1_세대의 구분과 정의

- 세대 개념은 어떤 특정 집단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와 다른 새로운 집단의 출현을 설명하거나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과 이들이 다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과 갖는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 집단 간의 경계를 기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개념은 우리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동일한 세대 내의 유사성과 여러 세대들 간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내쉬, 1978)
- 세대를 연대기적인 시간 구분에 따라 범주화하든 주관적 또는 내면적 시간을 근거로 경계 짓든지 간에 세대라는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세대를 구분 지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임의성은 불가피함. (Spitzer, 1973)
- 경험적인 연구 차원에서 각 세대를 설명하고 또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대를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고, 이 구분은 세대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세대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짐. (최섫별, 2018)
- 세대를 구분하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동일시기에 출생한 코호트로 구분하는 것임. 코호트는 동년배를 뜻하는 용어로서 출생 시기, 입학 시기, 입사 시기 등과 같이 같은 시기 유력한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함. 두 번째 관점은 생애 주기에 따른 구분인데, 같은 생애 단계에 있는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관점은 친족 중 같은 항렬에 있는 사람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임.
 - IT기술의 발달로 소통하는 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같은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깊고 넓게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코호트적 관점이 가장 적합한 세대 구분으로 평가됨.
 - ▶ 친족 계보와 관련한 세대 개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세대 개념들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세대 범주가 가장 기본적인 세대 구분의 기준이 되며, 한국의 세대 관련 연구들 역시 이러한 세대 규정 방식의 큰 틀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함.
- 사실상 세대는 '나와 너', '우리와 그들'로 규정지어지는 '관계적'인 개념이며, 세대 갈등은 개인의 내적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주관적 차원의 문제임. '구세대'가 없이는 '신세대'를 논할 수

없고, 아무리 외부에서 세대를 다양하게 범주화한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세대로 이름 붙여진 개인들이 나와 다른 세대를 마주할 때 아무런 내적 동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섯별, 2018)

2_본 연구의 세대 구분

○ 본 연구는 세대를 구분하되 이에 대한 특별한 명칭을 정하지 않고, 각각의 그룹마다 해당되는 연령대를 그대로 집단의 이름으로 사용할 것임.

- 서울연구원(2020) 등 기존의 연구사례에서는 세대를 구분하고 명칭을 정함에 있어, 과거의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역사적 사건을 고려하는 코호트적 관점을 취하기도 하나, 이렇게 될 경우 피설문자가 현재 어떠한 연령인지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M세대'나 'Z세대'와 같은 집단명사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기성세대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와 같은 집단명사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이들 연령층은 포함하지 않을 것임.

[표 2-1] 세대 분류

분류	기성세대		청년세대	
	베이비붐세대	X세대	30대	20대
출생연도	1955~1964년	1965~1981년	1982~1991년	1992~2001년
성별	남/여	남/여	남/여	남/여

3_대한민국 기성세대의 정의 및 구분

1) 기성세대 정의

○ 출산율이 급증한 한국전쟁 이후부터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출생한 베이비붐세대와 1964년부터 1979년 사이에 출생한 2차 베이비붐세대인 X세대를 기성세대로 지칭함.

- 베이비붐세대는 국가에 따라 그 연령대가 조금씩 상이한데, 미국은 1946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7,200만 명이 베이비붐세대에 속하며, 일본은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806만 명이 베이비붐세대에 속함. 국내 베이비붐세대는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 명의 세대를 말하며, 유신세대 혹은 긴급조치세대로 명명되기도 함.
- X세대는 알 수 없는 세대라는 의미로 미지수를 뜻하는 알파벳 X로 명명되었고, X세대라는 용어는 1991년 캐나다 작가인 더글러스 코플랜드가 쓴 소설 X세대에서 따온 것으로, 미국의 대기업들이 소비시장 전면에 등장한 신세대를 어떻게 규정할까 고민하던 중 발견한 용어임. (최섯별, 2018)

2) 기성세대의 특징

○ 앞서서 중국이나 미국의 세대 구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각 세대는 그 세대가 성장한 사회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한국도 예외일 수 없음. 따라서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가 각자의 성장기에 겪었던 주요 사건을 확인하고 그것이 각 세대의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것임

○ 베이비붐세대(1955~1964)

- 베이비붐세대는 국내 모든 세대를 통틀어 인구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삶 전반에 걸쳐 과잉경쟁을 해야 했음. 또한 대부분의 베이비붐세대가 어린 시절 농촌에서 생활했으나 학업과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동함.
- 부모세대로부터 근검절약과 노력을 기본적인 삶의 태도로 요구받아 이를 내면화해 근면성실함. 고등학교나 대학의 학업을 마친 사람들은 취업 전선에 뛰어들 시기에 취업이 용이한 사회구조적 환경이 조성되어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했고, 경제호황이 계속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림. 반면에,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일부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착취 당하기도 함. 이들의 평균 결혼연령은 남성은 27.5세, 여성은 24.5세이며, 여성의 첫 출산은 26세임. 자녀는 약 2명임.
- 베이비붐세대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 모순적인 상황을 가장 많이 경험한 세대로서,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경험함.
 - ▶ 베이비붐세대가 성장한 1960년대는 군부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였음. 4.19 혁명을 바탕으로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은 저지됐으나, 곧바로 군사정변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군부정권의 장기 집권이 시작됨. 이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여러 시위가 일어났고, 이 시위를 저지하려는 군부 정권의 폭력적인 진압이 반복해서 발생함.
 - ▶ 1960년대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함. 이로 인해 이 시기 여러 노동자에 의한 노동운동이 발생했고, 1970년 봉제공장의 노동자였던 전태일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음.
 - ▶ 또한 이 시기에 발전한 대중문화는 1970년대 중반 검열이 시작되면서 위축되었고,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발효되면서 많은 가요가 금지곡으로 지정되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정부의 감시가 시작됨. (최재철, 2018)

[표 2-2] 기성세대 성장 배경 비교

분류	기성세대	
	베이비붐세대	X세대
출생연도	1955~1964	1965~1981
성장기의 GDP연평균성장률	6.1%	10.8%
성장기 중 경험한 주요 정치 사건	4.19혁명, 5.16 및 유신, 박정희 대통령 피살, 광주 민주화 운동	6월민주항쟁, 6·29선언, 대통령직선제 헌법 개정
성장기 중 경험한 주요 경제 사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서울지하철 개통	3저호황
성장기 중 경험한 주요 문화 사건	미군 클럽 유행, KBS 개국, 통행금지해제, 프로야구 출범	서울아시안게임 개최, 서울올림픽 개최
성장기 중 경험한 주요 사회 사건	베트남전 파병, 전태일 분신사망, 부마항쟁, 남북이산가족 상봉	노동자 대투쟁
성장기 중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 베이비붐세대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고속 경제성장기에 청소년기를 겪었으며 1980년대 초반 제2차 오일쇼크 이후 다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사회진출을 시작함. 이후 베이비붐세대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즉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까지 고성장 시기에 사회활동을 하며 안정적인 경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음. (조현승 외, 2017)
 - ▶ 1960년대 국가 주도로 시작된 경제개발정책은 1970년대에 이르러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산업화의 토대를 건설했고,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과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함. (최재철, 2018)
 - ▶ 베이비붐세대의 성장기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970년 255불에서 1985년 2,355불로 상승함. (현대경제연구원, 2012)
 - ▶ 베이비붐세대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는 고령층으로 편입되기 시작함. 기득권으로서 가장 많은 사회적 자원을 가졌으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부양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함.
- 베이비붐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학력이 높으며 서구문화를 청소년기부터 접하여 문화적으로도 자부심이 강함. 대중문화의 비약적 발전을 경험함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침해받기도 함.
 - ▶ 베이비붐세대의 대학 진학률은 27.7%임. (현대경제연구원, 2012)

○ X세대(1965~1981)

- X세대가 성장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한국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함.
 - ▶ 정치적으로, 1980년대의 경우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과 같은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시기임. 6월 민주항쟁은 6·29선언을 이끌어냈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룩함.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1985년 최초로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 또한 1991년 소련 붕괴로 인한 '미국 대 소련'의 냉전체제의 와해는 X세대가 탈정치 및 탈이념화 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침.
 - ▶ 그 결과 X세대에게는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나 달성해야 할 공동의 목표가 부재하게 되었고, 그 빈자리를 '나의 자유'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욕구가 대신하게 됨. 이러한 X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자연스럽게 기성 세대의 보수적 특성과 전통적 질서,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음
 - ▶ 경제적으로는 3저 호황을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임. 소비 사회 및 여가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정보화와 세계화의 바람도 X세대의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X세대는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정보화와 세계화 흐름 속에서 외국어 능력과 정보화 능력의 짝을 튼 세대임.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1988년 서울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기도 함.
 - ▶ 이 시기를 기점으로 여권 발급의 제한이 없어져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고,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교복 자율화 정책이 시행되는 등 X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자유롭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며 성장함.
 - ▶ 1990년대에 젊은 시절을 보낸 X세대는 이들이 향유한 하위문화와 독특한 가치관 및 라이프스타일로 주목받았으며, 신세대, 오렌지족 등으로 불리며 새로운 스타일의 문화를 창조했고, 오늘날까지도 대중문화영역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고 있음.
 - ▶ 그러나 X세대의 상당수는 졸업시기와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음. 외환위기 이후 벤처붐 등으로 경기가 회복되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과거와 같이 7~8%대의 고성장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직장 내에서도 경쟁이 강화됨.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에 졸업한 X세대는 외환위기 이전에 취업한 사람들에 비해 사회진출 초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

라, 사회에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도 직장 내에서 계속 치열한 경쟁을 겪게 됨. (산업연구원, 2017)

- 현재의 X세대는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공동체 의식이 약하며, 전통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 또한 회사와 가정, 일과 여가를 엄격히 분리한다고 평가됨.
 - ▶ X세대의 평균 결혼 연령은 남성은 30세, 여성은 28세임. (산업연구원, 2017)
 - ▶ X세대는 부모와 한두 명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의 가족 형태가 보편화되던 시기에 유년기를 보냈고, 이 같은 가족 구조와 문화의 변화는 X세대의 삶에 '전통적 삶의 방식에 대한 거부'와 '여성 파워의 증가'라는 변화를 일으킴. (최선헌, 2018)
- 이와 같은 X세대의 특징 중 그들의 자녀들(주로 20대)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침.

4_소결

○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의 공통점

- 두 세대는 현재의 청년세대에 비해 인구수가 많고, 성장기 높은 경제성장률을 경험함.
-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는 문화적으로 자부심이 강하고, 자아실현이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한 소비 활동에 매우 적극적임.
-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는 삶 전반에 걸쳐 치열한 경쟁을 겪음. 베이비붐세대는 베이비붐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삶 전반에 걸쳐 과잉 경쟁을 해야 했고, X세대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사회에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도 직장 내에서 계속 치열한 경쟁을 겪게 됨.

○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의 차이점

- 베이비붐세대는 조부모, 부모, 다수의 형제, 자매로 구성된 대가족 형태의 성장기를 보냈지만, X세대는 부모와 한두 명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의 가족 형태가 보편화되던 시기에 성장기를 보냈고, 이 같은 가족 구조와 문화의 변화는 X세대의 삶에 '전통적 삶의 방식에 대한 거부'와 '여성 파워의 증가'라는 변화를 일으킴.
- 베이비붐세대는 성장기 저개발국가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으나, X세대는 성장기 서울올림픽 등을 거치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됨.
- 베이비붐세대는 성장기 여권 발급의 제한, 해외여행 어려움, 야간 통행금지 등을 겪었으나, X세대는 여권 발급의 제한이 없어져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고,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교복 자율화 정책이 시행되는 등 자유롭게 풍요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며 성장함.
- 베이비붐세대는 학업을 마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 시기에 취업이 용이한 사회구조적 환경이 조성되어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했고, 여건도 좋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림. 반면 X세대의 상당수는 졸업 시기와 외환 위기가 겹치면서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에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도 직장 내에서 계속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됨.

03. 청년세대: 정의와 특징

1_정의

1) 청년

○ ‘청년’의 사전적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의 사람’을 일컫음.

- 청년은 역사적으로 발명된 하나의 개념(유럽, 18세기)으로서,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에 수입되어 당시의 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존재들에게 부여된 기호임.
- 20세기를 거치면서 청년은 국가 건설의 주역, 계몽주의자, 산업역군, 반공전사, 민주화투사,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 혹은 아방가르드 등으로 다양하게 호명되어 옴. 이 과정에서 청년은 대개의 경우 특정 거대서사의 담지자 역할을 수행했고, 기성 권력과 제도를 부정·비판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운동적 주체성의 상징으로 여겨짐. (김홍중, 2015)
- 그러나 21세기의 청년은 가혹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사회적 과제들의 수행은 고사하고, 본인의 과제들 역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임.
- 저항, 반항, 유희, 자유, 도전, 모험, 정치적 열정은 이들의 리얼리티와 무관하게 되었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토로 등장하는 것은 ‘생존’임.
- 반면 21세기 청년을 디지털세대로 명명하며 이전의 텔레비전세대와 달리 창의적이고,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함.

→ 유추 키워드 : 저항, 반항, 유희, 자유, 도전, 모험, 정치적 열정, 디지털, 창의, 민주, 혁신

[법령에서 정한 청년의 연령 범위]

- 2020년 2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 다만, 다른 법령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는 15세~34세를,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15세~29세를 기본으로 하되 병영 이행 시 연령 상한을 35세까지로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까지를 청년 연령의 상한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상 청년 연령 범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 울산, 세종, 경기, 충북, 경북은 연령 하한을 15세로 하였고, 나머지 시도는 18세 혹은 19세로 설정. 연령 상한의 경우는 34세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9세, 29세 순으로 나타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2) 청년세대

- 청년세대는 청년기에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받아 특정한 의식·문화·지식을 갖게 되는 동일한 혹은 유사한 출생 코호트이며, 자신이 속한 코호트에 대하여 최소한 느슨한 수준에서라도 동류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임. (성지현, 2019)

3) 청년 관련 각종 수치

- (인구) 2019년 기준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인구는 남성 896만 명, 여성 807만 명 등 총 1,703만 명이며, 전체 인구 대비 구성비는 남성 34.6%, 여성 31.3% 등 총 32.9%이며, 체류외국인 수는 약 130만 명임. (통계청, 2019)

- (경제) 2018년 기준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3.1%로 남성은 73.7%, 여성은 52.9%이며, 월 임금총액은 약 303만 원임.

- 청년층 임금근로자 전체 대비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비율은 2018년 기준 33.0%로 2014년 이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기준 청년들의 부채는 29세 이하는 2,430만 원, 30대는 6,920만 원임.
- 2019년 기준 청년들의 한 달 생활비는 약 79만 원으로, 15세~18세는 약 29만 원, 20대는 약 74만 원, 30대는 약 100만 원임.
-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안정적인 회사(25.7%),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19.4%), 급여가 높은 회사(17.0%),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16.0%), 분위기가 좋은 회사(8.9%),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6.9%), 퇴근이 빠른 회사(5.0%) 순이었음.
- 2015년 기준 청년의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38.3%, 전세 28.4%, 월세·사글세 28.6%, 관사·사택 등의 무상은 4.7%이며, 2018년 기준 전체 청년의 1인가구 비율은 44.5%임.

→ 유추 키워드 : 비정규직, 부채, 경제적 안정, 1인가구

- (건강) 2017년 기준 청년들의 비만 유병률은 전체 34.8%로 20대는 29.4%, 30대는 33.4%이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20대는 37.9%, 30대는 36.0%임.

- 우울감 경험율은 전체 11.6%로, 20대는 13.5%, 30대는 9.1%이며,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6명으로, 15~19세는 8.7명, 20~24세는 15.3명, 25~29세는 19.9명, 30~34세는 25.6명, 35~39세는 29.0명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높아짐.

→ 유추 키워드 : 비만,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 (여가) 2018년 기준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은 평일은 3.3시간, 휴일은 5.3시간임. 구체적으로 15~19세는 평일 2.8시간, 휴일 5.1시간이고, 20대는 평일 3.2시간, 휴일 5.7시간이며, 30대는 평일 2.8시

간, 휴일 5.0시간임.

- 청년들은 휴식 활동, 취미·오락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을 통해 문화 및 여가생활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추 키워드 : 워라밸, 유머

○ (행복) 2018년 기준 청년들의 주관적인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7점이고,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1점이며, 주관적 계층의식은 10점 만점에 5.4점임.

- 가치 항목별 선호에 있어서는, ①일과 여가 중에서는 여가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44.6%로, 일이 중요하다는 응답 28.2%보다 높음. ②현실과 이상 중에서는 현실 중시가 70.2%로, 이상 중시 11.6%보다 매우 높음. ③결과와 과정 중에서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3.9%로 과정이 중요하다는 20.7%보다 높음. ④집단과 개인 중에서는 개인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40.8%로 집단이 중요하다는 22.7%보다 높음.
- 청년은 “여가”와 “현실”과 “결과”와 “개인”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은 재산과 경제력 31.2%, 화목한 가정 24.6%, 건강 16.3%, 자아 성취 7.3%, 감사와 긍정 6.9%, 직장과 직업 4.5%, 꿈과 목표의식 4.4%, 대인관계 3.4%임.
- 2018년 기준 가족관계 만족도는 20대는 64.7%, 30대는 62.6%임.

→ 유추 키워드 : 여가, 재산과 경제력, 결과, 과정

○ 투표율의 경우,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9세는 68.0%, 20대 전반은 60.9%, 20대 후반은 56.7%, 30대 전반은 56.5%, 30대 후반은 57.6%임.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9세는 77.7%, 20대 전반은 77.1%, 20대 후반은 74.9%, 30대 전반은 74.3%, 30대 후반은 74.1%임.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9세 54.1%, 20대 전반은 52.9%, 20대 후반은 51.0%, 30대 전반은 53.0%, 30대 후반은 55.4%임.

- 대통령선거의 경우 70대 이상 노년층을 제외한 다른 세대(예 : 50대 78.6%)에 비해서도 투표율이 그리 낮지 않으나, 국회의원 선거는 최고 20%(비교대상 : 60대 80.0%), 지방선거는 최고 21%(비교대상 : 60대 72.5%)까지 투표율이 낮게 나옴.
- 하지만 19세~30대 후반의 낮아 보이는 전체 선거 투표율은, 각 중별 직전 선거에서 그들이 기록했던 투표율에 비해 최대 11.9%(30대 전반, 2016 국회의원선거 48.9% / 2020 국회의원선거 56.5%)까지 성장한 값이며, 다른 19세~30대 청년층에서도 모두 투표율이 상승하였음.
- 이를 통해 중앙 및 지역정치 참여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전망을 할 수 있으며, 청년을 위한 정책에 이들이 관심을 보일 개연성 또한 커짐.

→ 유추 키워드 :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2_분류

1) 청년세대

- 청년세대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1세기를 맞아 성인이 된 연령대를 의미하므로 1980년대 초부터 2000년 초까지 태어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에코세대는 베이비붐세대의 자녀로 메아리처럼 다시 출생 붐을 일으켰다는 의미, N세대는 네트워크세대라는 의미, P세대는 참여(Participation)· 열정(passion)· 힘(Power)을 바탕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세대라는 의미, IP(Interest & Passion)세대는 재미와 열정·국제적 잠재 역량·혁신의 개척자·똑똑한 재테크족 등을 의미, 달관세대는 아무런 희망 없이 무기력하다는 의미임.

→ 유추 키워드 : 재테크, 참여, 열정

[표 3-1] 청년세대에 대한 다양한 별칭

나이 및 생애 단계	문화적·행태적 특성	시대 상황적 특성
2030세대, 청년세대, 에코세대 등	N세대, 디지털세대, P세대, IP세대 등	88만원세대, N포세대, 절망세대, 달관세대 등

자료: 최섯별, 2018

2) 1982년~1991년생

- 이 세대의 구성원들은 1945년 해방 직후~1960년대 중반에 태어난 부모들, 즉 베이비부머가 결혼하면서 태어난 경우가 일반적이며,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일시적 경제위기를 비껴나가 3저(원유·환율·금리)호황이 이어지는 시기에 유년기를 보냈지만, 청소년기에는 IMF 사태를 목도하면서 경제와 사회가 함께 붕괴하는 사태에 고통을 받았음.
 - 미국의 인구통계학자인 닐 하우와 윌리엄 스트라우스는 1991년에 공저서 '세대'를 통해 1981년~1996년 즈음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이라고 지칭하였는데, 한국에서 이들 나이의 한국인들을 '밀레니얼세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하나의 사례로 여겨짐.
 - 그러나 미국의 학계에서 규정한 세대론에 따른 명명법을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부터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로 정의되는 연령대 역시 문헌에 따라 빠르면 1991년생(테일러굿뉴스, 2019. 5. 29), 늦으면 2000년생까지도 포함하는 등(신동아, 2019.3) 자의적 규정으로 점철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기준으로 '밀레니얼세대'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정확한 청년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조사 시점에서 이들이 30대에 속하는지, 혹은 20대에 속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편이 통계상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2021년 현재 상대적 연장자, 즉 만 30~39세에 해당하는 그룹을 '30대'로 칭하고 접근하는 것으로 갈음할 것임.

3) 1992~2001년생

○ 이 세대의 구성원들은 1960년대 중·후반~1970년대 후반, 즉 X세대(동아비즈니스리뷰, 2019. 7)에 태어난 부모들에게서 태어난 경우가 일반적이며,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호성장의 분위기를 각각 경험하지 못했음. 이들은 청소년기 내내 IMF의 여파 등으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이 일반화된 사회상을 경험하였음.

- 이들의 부모는 그들의 직전 세대인 베이비부머들에 비하여 사회의 성장에 대한 기댓값 자체가 낮았음. IMF로 인해 가정과 사회가 몰락하는 현상을 어른의 시점에서 목도한 부모들은 1992~2001년생 자녀를 양육하면서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입하였고, 그 자신도 자식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뜻에서, 자녀를 과보호하는 것을 넘어 통제에 가까운 양육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음(동아비즈니스리뷰, 2019. 7).
- 경제적 곤란이 내재화된 상태에서 유년 시절부터의 경쟁을 당연시하며 자란 이들은 정당하고 공정한 처우, 신속한 성과에 대한 갈망이 크며, 긴 호흡을 갖고 한 집단을 위해 끈기있게 헌신하기보다 ‘개인 플레이’에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2012년생까지를 ‘Z세대’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는 영미권이 ‘성장기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스스로 터득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로 부르는 분류법을 그대로 따른 것임.
- 그러나 밀레니얼세대에 대한 분류가 한국 안에서도 매체에 따라 제각각이었던 것처럼, Z세대의 분류 또한 한국 내에서도 매체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음. 심지어 일부 매체에서는 1980~2000년생을 ‘Y세대’라고 부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음(한겨레, 2019.9.29.).
- 위에서 논한 제반의 내용을 고려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연령대를 단위별로 그룹화해 알파벳 이름을 붙이는 것은 청년들의 세대별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미 ‘밀레니엄 세대’에 가까운 1982~1991년생을 ‘30대’로 호명하기로 한 것도 함께 고려, 1992~2001년생을 ‘20대’로 호명하기로 함.
- 한편 본 연구는, 위와 같이 30대와 20대로 양분한 그룹이, 결과적으로 ‘M세대’와 ‘Z세대’라는 작금의 분류법과 동일하게 겹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음. 이 경우 ‘30대’와 ‘20대’의 호칭을 ‘M세대’와 ‘Z세대’로 갈음할 수도 있으나, 이는 본 연구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자유의지에 맡기고자 함.

[표 3-2] 청년세대 분류

(단위: 1명, %)

분류	청년세대			
	30대		20대	
출생연도	1982~1986	1987~1991	1992~1996	1997~2001
인구수	3,543,286	3,196,647	3,554,930	3,146,973
인구비중	6.85	6.18	6.88	6.09

자료: 통계청

3_특성

1) 청년세대

- 청년세대는 성장기부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이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로 명명되기도 함. 업무는 물론 취미와 여가 등의 일상까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줄임말과 이모티콘의 사용 빈도가 높고, 신조어의 생성 및 쇠퇴가 빠름.

-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청년세대는 자기 노출 및 표현, 관계 맺기 활동을 중심으로 싸이월드 → 블로그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으로 진화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의 자아와, 되고 싶어하는 자아 드러내기를 통해 정체성을 확보하고 관계를 맺음.

→ 유추 키워드 : 온라인 활동, 디지털 네이티브

- 일반적으로 청년세대는 전통적인 공동체주의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유보다는 공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됨.

- 높은 등록금과 만성적 실업,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회적 문제보다는 개인의 생존과 영달을 추구하는 세대로 표상됨. 조급함이 크고, 깊고 의미 있는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평가되기도 함.
- 청년세대는 앞선 세대들보다 덜 반항적이며, 더 실용적인 생각을 갖고, 개인의 가치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권리보다는 의무를, 감정보다는 명예를, 말보다는 행동을 중심으로 사고한다고 평가되기도 함.

→ 유추 키워드 : 개인주의, 자신에 대한 투자, 배려, 불안, 생존, 공유, 실용, 명예, 실리

- 대학내일은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0’에서 아래 다섯 가지 키워드로 청년세대를 소개함.

- 다만추 :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세대.
- 후렌드(Who + Friend) : 온라인에서 누구와도 서슴없이 친구가 되다.
- 선취력 : 먼저 행동해서 선한 변화를 이끌어내다.
- 판플레이 : 참여할 수 있는 판을 열고 놀다.
- 클라우드 소비 : 소유보다 공유로 소비의 밸런스를 맞추다.

→ 유추 키워드 : 다양한 관계, 선한 변화

- 임흥택은 ‘90년생이 온다’에서 아래 세 가지 특징으로 90년대생을 소개함.

- 간단함 : 길고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피해야 할 일종의 악으로 여김. 언어 습관에서는 축약형 은어인 줄임말이 자주 나타나고 이모티콘과 짤방의 사용도 많음. 또한 초단편소설이 등장함.

▶ 짤방은 원래 ‘짤림 방지’의 줄임말임. 2000년대 초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이미지를 첨부하지

많은 글은 삭제 처리하였으며, 이에 사람들은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을 피하고자 임의로 아무 이미지나 첨부하여 글을 올림. 이렇게 시작된 짤방이라는 말은 온라인 상에 올리는 모든 이미지를 뜻하는 말로 의미가 확장됨.

- 재미 : 삶의 유희를 추구하며,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질서라는 것을 답답하고 숨 막히는 것이라고 생각함. 이들에게는 이념적 세계보다 연극적 세계가 더 중요함.
- 정직함 :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완전 무결한 정직을 요구함. 신뢰의 시스템화를 요구하고, 솔직함을 선호함. 부당함과 비합리적인 상황에서는 과감히 이슈를 제기함.

→ 유추 키워드 : 질서, 규칙, 정직, 신뢰, 솔직, 행동, 가치관

○ 인터파크 도서에 따르면 2020년 7월 도서 판매량은 20대의 경우 1위 해커스 토익 기출 보카, 2위 에듀윌 한국사, 3위 최태성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상, 4위 최태성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하, 5위 토익정기시험 기출문제집 등 모두 '취업 및 스펙'을 위한 수험서적이었음.

- 반면 30대의 경우, 1위 김미경의 리부트, 2위 부의 대이동, 3위 돈의 속성, 4위 더 해빙, 5위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등 모두 '자기계발 및 재테크' 관련 서적이었음.

→ 유추 키워드 : 취업 및 스펙, 자기계발

○ 1980년 이후 한국사회 주요 사건

[표 3-3] 1980년 이후 한국사회 주요 사건

연도	주요 사건
1980	광주민중화운동
1982	통행금지 해제, 프로야구 출범
1983	이산가족찾기 생방송
1985	남북 이산가족 상봉, 플라자 합의
1986	서울아시안게임, 3저호황
1987	6월민주항쟁, 6.29선언, 대통령직선제 헌법 개정, 전대협 출범
1988	노태우 대통령 취임, 서울올림픽, 한겨레신문 창간
1990	동구권 국가와 수교, 3당 합당, 범죄와의 전쟁 선언, 독일 통일
1991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걸프전 발발(한국군 파병), 소련 붕괴
1992	중국·베트남과 국교 수립, 노래방 등장,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1993	김영삼 대통령 취임, 금융실명제 도입, 우루과이라운드 합의, 한총련 출범
1994	김일성 사망, 성수대교 붕괴
1995	노태우·전두환 구속, 케이블TV 시작, 삼풍백화점 붕괴, 세계무역기구 출범
1996	OECD 가입
1997	IMF경제위기, 무료 이메일 서비스 개시, 초등 교과목에 영어 추가
1998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일본 대중문화 개방, 스타크래프트 발매, 금강산 관광 시작
1999	의약분업, 싸이월드 시작
2000	남북정상회담
2001	IMF 지원 자금 전액 상환, 9.11테러
2002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한일월드컵, 부산아시안게임

2003	노무현 대통령 취임, 대구 지하철 참사, 이라크 전쟁 발발
2004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열린우리당 총선 승리, 이라크 파병, KTX 개통, 성매매특별법 시행
2007	남북 정상 회담, 태안 원유 유출 사고
2008	이명박 대통령 취임, 광우병 촛불집회, 미국발 금융위기
2010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2011	김정은 정권 시작
2012	싸이 강남스타일 열풍
2013	박근혜 대통령 취임
2014	세월호 참사
2015	메르스 전염
2016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 알파고 대 이세돌 대결
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18	암호화폐 열풍, 미중무역전쟁 발발, 남북정상회담, 미투운동
2019	일본 불매 운동, 조국사태
2020	코로나19 대유행,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조두순 출소 소동

[표 3-4] 청년세대 성장 배경 비교

분류	청년세대	
	30대	20대
출생연도	1982~1991년	1992년~2001년
성장기의 GDP연평균성장률	8.8%	4.5%
성장기 중 경험한 주요 경제 사건	3저호황, 금융실명제, WTO 가입, OECD 가입, IMF 외환위기, 인터넷 쇼핑 등장, 주5일제 시작, 글로벌 금융위기, 휴대폰 등장	스마트폰 등장, 한미FTA, 글로벌 금융위기, 4차산업혁명, 일본불매운동, 비트코인 열풍, 배달앱 등장, 주52시간제 시작, 해외직구 열풍
성장기 중 경험한 주요 문화 사건	삐삐 등장, 노래방/PC방 등장,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케이블TV 시작, 일본 대중문화 개방, 스타크래프트 열풍, 2002년 월드컵, 전자책 등장	한류, 카카오톡 등장, 웹툰 열풍, 팟캐스트 등장, 넷플릭스 등장, 태블릿PC 등장, 나무위키 등장, 먹방 열풍, 알파고 등장
성장기 중 경험한 주요 정치·사회 사건	UN 가입, 한·중 국교 수립,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김일성 사망, 평화적 정권교체, 미국 911 테러, 대구지하철참사, 제1차 남북정상회담, 연평해전	노무현 서거, 김정일 사망, 천안함 사태, 세월호 참사, 촛불혁명, 미투운동, 운동, 연평도 포격 도발, 간통죄 폐지, 메르스 사태, 김영란법 시행, 포항 지진
성장기 중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성장기 중 정보통신기술	웹 2.0(주로 PC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유통함)	웹 3.0(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지능화된 웹이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함)
정보 검색	텍스트, 이미지 선호	이미지, 영상 선호
가치관	자기다움	유행에 민감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카페, 싸이월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조조정 형태	전 직급 대상 수시 구조조정	상시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화

2) 30대

○ 일반적인 30대는 치열한 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을 거쳤으며, 교육 수준이 높고 여러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교양을 가지고 있음.

- 외동 혹은 적은 수의 형제·자매들과 성장하며, 부모의 과잉 보호를 받아온 밀레니얼세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회사 등에서도 관심 받고 칭찬 받기를 좋아함.
- 밀레니얼세대는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이 높고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에 능숙하며, 201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함.

→ 유추 키워드 : 경쟁, 교양, 격려, 타문화에 대한 수용력

○ 정치적인 측면에서 30대는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으로 대한민국 첫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유년기를 시작함. 이전 세대들이 독재 및 군부 정권에 맞서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것과 달리, 밀레니얼세대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삶을 시작함. 또한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이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등 과거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 여겨졌던 대통령마저 권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성장함.

-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한 관광이 시작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어 전반적으로 30대는 정치적 탈권위 및 긴장 완화의 상황에서 성장함.
- 30대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시하고 기존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그것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이 나 평등과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성향을 가짐. (최섯별, 2018)

▶ 저자가 연구시 사용한 '88만원세대'라는 세대명을 본 연구의 '밀레니얼세대'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재정리함.

→ 유추 키워드 : 탈권위, 평등, 지도자, 시민, 개인, 가족, 커뮤니티

○ 경제적인 측면에서 30대는 WTO 출범 및 OECD 가입, 한미 FTA 체결 등을 겪으며 한국을 선진국에 버금가는 중진국으로 평가함.

- 그러나 30대는 이후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게 되었고, 최근에는 취업난 등에 시달림. (최섯별, 2018)
- 30대가 태어난 1980년대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던 경제의 호황기로 전 세대에 비하여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함. 그러나 1990년대 후반 IMF시대의 개막과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유년기에 비해 청년기로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경제의 위축이 지속되었고, 취업난과 비정규직 증가와 더불어, 88만원세대, N포세대와 같은 부정적 담론이 유행함. 따라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게 됨.

→ 유추 키워드 : 미래에 대한 불안, 취업난, 경제 위기, 쫓돌, 탄핵, 고용 안정

○ 사회적인 측면에서 30대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호주제가 헌법 불합치 선고를 받고 폐지되면서 가부장제로 인해 발생했던 사회 문제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것을 경험했고, 출산율 저하로 인해 아들과 딸의 구분없이 부모의 애정과 보호를 받으며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환경에서 성장함. (최섯별, 2018)

- 이들은 핵가족 내에서 성장한 세대로서 가족 구성원 수는 4명을 넘지 않고, 타인과의 비교로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받았으며, '누구나 각자의 장점이 있으며 최선을 다하는 한 우리 모두는 승리자이다', '네가 소중한 존재이듯이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해주어야 한다'라고 교육받음. (박진성, 2009)

→ 유추 키워드 : 성평등, 자존감

○ 문화적인 측면에서 30대는 유년기에 가정과 학교에 컴퓨터가 보급되었고, 케이블TV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방영됐으며, 무료 이메일 서비스도 시작됨.

- 더불어 일본의 대중문화가 개방됨과 동시에, 한류 열풍이 일어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됨.
- 나이가 30대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교과목에 영어가 추가됐으며, 해외 유학이 확대되기도 함. (최선헌, 2018)

→ 유추 키워드 : 연결, 세계화, 국제화, 한류

○ 현재의 30대는 일 자체보다는 일을 통한 보람과 즐거움에서 의미를 찾고, 일 외의 여가 및 가정 생활을 위해 다소 급여가 적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을 선호한다고 평가됨.

- 30대에게 평생 직장의 개념은 낮고, 이직 등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이 없음. 따라서, 밀레니얼세대는 직장에 대한 충성도와 인내심은 낮은 반면 이직률은 높고 이전 세대들과 불화하며 계산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함.
- 30대는 지금의 트렌드인 공유경제를 유발한 소비자 그룹임. 이전에는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문화였다면 이제는 '웰니스'를 중시하여 본인의 긍정적인 경험이나 체험활동에 관심을 기울임. 또한 30대는 상품후기나 포레 집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하고 본인의 소비활동을 공유하며 환경이나 인권 문제 같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동참함.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의 특별한 가치도 인정받기를 원함. (김정지, 2019)

▶ 웰니스(Wellness)는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으로 제시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보다 심화시켜 광범한 관점에서 접근한 새로운 건강관을 의미함. 웰니스는 생활과학으로서 운동을 일상생활에 적절하게 도입해 건강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보낸다는 의미임.

- 졸업 후 취업이라는 공식이 파괴된 청년세대들은 졸업 이후 대부분 상당 기간을 미취업자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신분으로 살며, 연애·결혼·출산 등을 선택하지 않거나, 혹은 선택하지 않음을 가장하여 포기하고, "올로"와 "소확행"을 선호하게 됨.

▶ 올로(YOLO)는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을 본 따 만든 말로 '인생은 한 번 뿐이기에 현재를 충분히 즐겨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

▶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약칭으로,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소설 "A Small, Good Thing"에서 따와 만든 신조어임.

→ 유추 키워드 : 워라벨, 소확행, 올로, 사회적 이슈에 참여, 존중, 타인의 평가, 상품 후기, 인내심, 지구력, 일에서 얻는 보람, 일에서 얻는 즐거움, 일에서 얻는 보상

○ 지금껏 30대는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글로벌 무대'에 서서 사회적 '성공과 부'를 성취하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계발해야 하는 삶을 강요받아 온 경향이 있음. 그 결과 이전 세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동시에 삶에 대한 기준치 역시 높게 설정됨. (최셋별, 2018)

→ 유추 키워드 : 성공과 부

○ 특히 30대는 '재미와 즐거움'을 삶의 우선 가치로 생각함.

-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30대는 가상공간에서 SNS를 통해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공유하며 새로운 놀이 공간을 창출하고 있음.

→ 유추 키워드 : 재미와 즐거움

○ 또한 30대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중요시 여김. 국내의 복잡한 대학입시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정시모집 확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전중우, 2020)

→ 유추 키워드 : 공정

3) 20대

○ 20대는 완전한 디지털네이티브 세대이며, 밀레니얼세대보다 반응이 빠르고, 텍스트보다 이미지나 영상에 주목함.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는 20대의 성향은 SNS를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취향 중심의 관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익명성을 선호함.

- 20대는 2000년 초반 정보기술 붐과 함께 유년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세대답게 신기술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를 소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강민정 외, 2020)

▶ 20대는 어떤 특정 사건에 의해 세대의식을 공유하거나 세대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함께 발전한 디지털 환경이 세대의식과 세대위치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침. (박치완, 2019)

→ 유추 키워드 : 텍스트, 이미지, 영상, 스토리, 익명성, 온라인 커뮤니티, 취향, 얼리아답터

○ 20대는 해외 체류 경험이 많고 부모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으며 성장함. 또한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며,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 한다고 평가되며, 유행에도 민감함.

- 20대는 성장기에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순차적으로 경험하여 과소비나 부채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성향을 보임.

→ 유추 키워드 : 독립, 부채, 문화적 개방성, 경제적 가치

○ 20대는 순간 집중력이 높고, 빈부·젠더·인종·종교·학력·출신 등에 대한 편견이 낮음. 또한 윤리, 환경 등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많음. 행복의 기준 역시 자기 자신에게 있으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장이 강함. 과거 세대들과 달리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안정과 실용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며, 정부나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낮음.

- 20대는 '8초 순간 집중력'이 뛰어나고, 이들의 두뇌는 더욱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정보를 소화할 수 있고, 인지를 요하는 문제에 능함. (박혜숙, 2016)
- 20대는 필요한 정보는 스스로 학습하고, 주어진 업무에만 집중하며, 개인의 창업을 선호함. 이들은 사회 변화 보다는 자기 계발에 우선 가치를 둠.
- 또한 20대는 이동성이 높고, 가상·현실 및 전통·근대를 넘나드는 세대로 규정됨. (박치완, 2019)
 - 유추 키워드 : 안정과 실용, 시스템에 대한 신뢰, 순간 집중력, 사회 변화, 창업

4_소결

1) 30대와 20대의 공통점

- 30대와 20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부모의 애정과 보호를 받으며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환경에서 성장함.
 - 30대와 20대는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의 특별한 가치도 인정받기를 원함.
- 30대와 20대는 비만 유병률,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율이 높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 30대와 20대는 가치 항목별 선호에 있어서 일보다는 “여가”를, 이상보다는 “현실”을, 과정보다는 “결과”를,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함.
 - 30대의 성장기에 주5일제가 시작되었고, 20대의 성장기에 주52시간제가 시작됨.
- 30대와 20대는 높은 등록금과 만성적 실업,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회적 문제보다는 개인의 생존과 영달을 추구하는 세대로 표상됨. 조급함이 크고, 깊고 의미 있는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평가되기도 함.
 - 30대는 성장기 IMF 외환 위기를 겪었고, 20대는 성장기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음.
 - 30대와 20대가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은 “재산과 경제력”, “화목한 가정”, “건강”순임.
- 30대는 성장기 대구 지하철 참사 등을 겪었고, 20대는 성장기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며, 두 세대 모두 재난·안전에 민감함.
- 30대와 20대는 치열한 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을 거치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고 여러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교양을 가지고 있음.

2) 30대와 20대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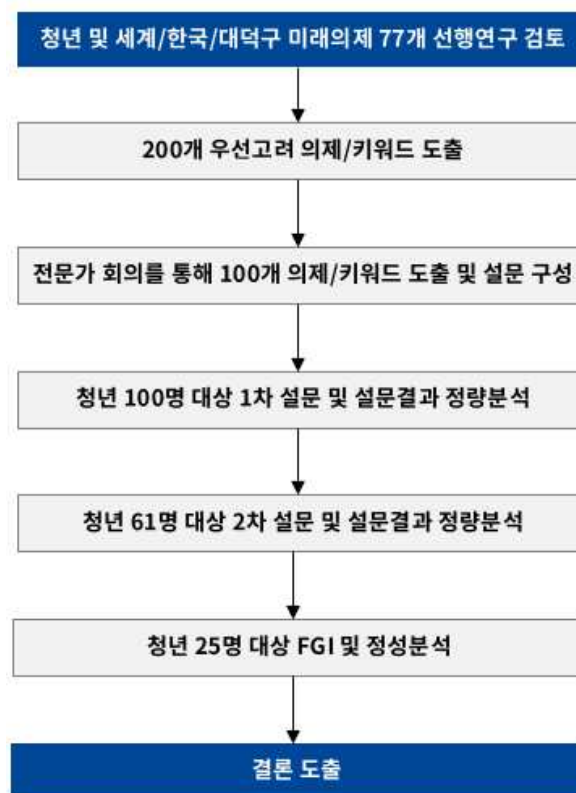
- 30대는 아날로그/텔레비전세대 + 디지털세대가 융합된 세대인 반면, 20대는 성장기에 본격적인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디지털세대의 성격이 강함.
- 30대는 성장기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네이버 블로그를 SNS로 주로 사용하였고, 20대는 성장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SNS로 주로 사용함.
 - 30대는 인터넷 정보 검색에 있어서 구글, 네이버 등을 활용한 텍스트나 이미지를 선호하는 반면, 20대는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영상을 선호함.

→ 유추 키워드 : 영상, 이미지, 텍스트

04. 100개 키워드로 살펴본 대덕구 청년들의 가치관과 주요 의제

1_조사 개요

- 문헌 연구, 설문 조사, 개별 면접의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를 연구진에서 반복 검토하여, 청년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의제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분석하고,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1단계) 청년과 미래의제 관련 77개 선행연구를 검토, 청년의 가치관이나 미래 의제 관련 100개 키워드와, 대덕구 관내 행정동(12개)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 발표 내용, 대덕구 및 인접지역에 대한 선행연구사례에서 도출된 100개 키워드로 설문 구성함.

- (2단계) 상기에서 도출된 200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전문가 회의 진행, 100개의 문항 내용을 정함.
- (3단계) 상기의 100개 문항에 대해, 청년 100명(30대 60명, 20대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시행 및 설문 결과를 분석함. (정량분석)
- (4단계) 상기 1차 설문조사 참여자 중 자원한 청년 61명을 대상으로 2차 설문시행 및 설문 결과를 분석함. (정량분석)
- (5단계) 정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을 구성해서 청년 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FGI를 시행함. (정성분석)

1) 선정된 키워드

- 라이프스타일(32개) : 웰빙 / 행복 / 건강 / 경제적 가치 / 사회적 지위 / 여가 / 워라벨 / 공존 / 현재를 즐기자 / 미래를 준비 / 나의 감정·욕구 / 과정 / 결과 / 인내심·지구력 / 순간 집중력 / 재미·즐거움 / 취업 / 스펙 / 성공과 부 / 안정 / 혁신 / 정직 / 스트레스 / 위로·힐링 / 명예 / 가치관 / 실리 / 자유 / 도전·모험 / 인정욕구 / 컨셉 / 미니멀리즘
- 경제/일(14개) : 일에서의 흥미 /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 재산·경제력 / 재테크 / 고용 안정 / 상품 후기 / 중고거래 / 가성비 / 비정규직 / 경제적 안정 / 빈곤 / 창업 / 청년주거 / 탕진점
- 커뮤니티/관계(25개) : 평등 / 존중 / 타인의 평가 / 독립 / 문화적 개방성 / 따돌림 / 차별 / 시민 / 개인 / 커뮤니티 / 사회적 가족 / 다양한 관계 / 오프라인 관계 / 온라인 관계 / 배려 / 공유 / 신뢰 / 권위 / 연결 / 경쟁 / 연대 / 혈연·지연·학연 / 마이너리티 / 성평등 / 성인지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14개) : 미래에 대한 불안 / 노후 준비 / 치매 / 코로나19 / 기후변화 / 1인주거 / 신기술 / 재생에너지 / 엘리자답터 / 인공지능 / 이미지 / 영상 / 스토리 / 익명성
- 정치/참여/사회(15개) :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 사회적 지속가능성 / 낮은 혼인율 / 저출산 / 초고령사회 / 불평등 사회 / 시스템에 대한 신뢰 / 공정 / 사회복지 / 의료공공성 / 질서·규칙 / 동물권 / 기성폭력 / 안전 / 환경

2_조사 결과: 전체, 세대별 응답(30대, 20대)

1) 표본집단 전체(100명)

아래는 표본집단 100명의 응답값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한 표.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키워드는 총점 409점을 얻은 ‘행복’임. 100개 키워드가 획득한 평균점은 369.4이며, 최하위를 얻은 키워드는 ‘탕진잼’으로 총점 286점이었음.

[표 4-1] 표본집단 전체(100명)의 응답값

No.	항목	키워드	총점	순위
1	라이프스타일	행복	409	1
2	라이프스타일	건강	408	2
3	라이프스타일	여가	407	3
4	커뮤니티/관계	신뢰	407	3
5	커뮤니티/관계	존중	406	5
6	커뮤니티/관계	평등	404	6
7	커뮤니티/관계	배려	403	7
8	라이프스타일	안정	402	8
9	라이프스타일	워라벨	401	9
10	라이프스타일	재미, 즐거움	398	10
11	정치/사회/참여	안전	398	10
12	정치/사회/참여	환경	397	12
13	정치/사회/참여	질서, 규칙	396	13
14	경제/일	경제적 안정	394	14
15	경제/일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393	15
16	라이프스타일	자유	392	16
17	라이프스타일	경제적 가치	391	17
18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재생에너지	390	18
19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389	19
20	라이프스타일	미래를 준비	388	20
21	라이프스타일	위로, 힐링	387	21
22	정치/사회/참여	의료공공성	385	22
23	정치/사회/참여	성폭력	385	22
24	라이프스타일	웰빙	384	24
25	경제/일	고용안정	384	24
26	라이프스타일	현재를 즐기자	383	26
27	라이프스타일	성과와 부	383	26
28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신기술	383	26
29	커뮤니티/관계	커뮤니티	381	29
30	커뮤니티/관계	공유	381	29
31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기후변화	381	29
32	정치/사회/참여	사회복지	381	29
33	커뮤니티/관계	성평등	380	33
34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미래에 대한 불안	380	33
35	라이프스타일	취업	379	35

36	커뮤니티/관계	다양한 관계	379	35
37	커뮤니티/관계	오프라인 관계	379	35
38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노후준비	379	35
39	라이프스타일	결과	378	39
40	라이프스타일	스트레스	378	39
41	라이프스타일	실리	378	39
42	경제/일	재산, 경제력	378	39
43	커뮤니티/관계	연결	378	39
44	라이프스타일	나의 감정, 욕구	377	44
45	커뮤니티/관계	문화적 개방성	377	44
46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영상	377	44
47	정치/사회/참여	공정	377	44
48	라이프스타일	인정욕구	375	48
49	경제/일	일에서의 흥미	374	49
50	경제/일	가성비	374	49
51	커뮤니티/관계	독립	374	49
52	커뮤니티/관계	시민	374	49
53	커뮤니티/관계	개인	374	49
54	라이프스타일	정직	373	54
55	정치/사회/참여	불평등 사회	373	54
56	커뮤니티/관계	성인지	372	56
57	경제/일	재테크	371	57
58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1인주거	371	57
59	라이프스타일	순간 집중력	370	59
60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스토리	370	59
61	정치/사회/참여	사회적 지속 가능성	370	59
62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코로나19	369	62
63	정치/사회/참여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368	63
64	라이프스타일	공존	367	64
65	라이프스타일	인내심, 지구력	364	65
66	라이프스타일	스펙	364	65
67	경제/일	청년주거	363	67
68	커뮤니티/관계	사회적 가족	363	67
69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인공지능	363	67
70	라이프스타일	도전, 모험	362	70
71	커뮤니티/관계	연대	361	71
72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이미지	357	72
73	정치/사회/참여	초고령 사회	357	72
74	라이프스타일	과정	355	74
75	라이프스타일	혁신	355	74
76	정치/사회/참여	시스템에 대한 신뢰	355	74
77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얼리아답터	352	77
78	커뮤니티/관계	권위	349	78
79	라이프스타일	명예	346	79
80	라이프스타일	미니멀리즘	346	79
81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익명성	345	81
82	정치/사회/참여	동물권	345	81
83	라이프스타일	사회적 지위	344	83
84	경제/일	반근	344	83
85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치매	344	83
86	커뮤니티/관계	타인의 평가	343	86

87	라이프스타일	컨셉	340	87
88	커뮤니티/관계	경쟁	339	88
89	커뮤니티/관계	따돌림	338	89
90	정치/사회/참여	저출산	338	89
91	커뮤니티/관계	온라인 관계	336	91
92	커뮤니티/관계	차별	335	92
93	경제/일	상품후기	334	93
94	경제/일	중고거래	334	93
95	정치/사회/참여	낮은 혼인율	332	95
96	경제/일	비정규직	327	96
97	커뮤니티/관계	마이너리티	324	97
98	경제/일	창업	319	98
99	커뮤니티/관계	혈연, 학연, 지연	316	99
100	경제/일	탕진잼	286	100

- [그림 4-1]은 위의 [표 4-2]를 누적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00명 중 절반은 20대, 나머지 절반은 30대임. 이 막대그래프에서는 두 세대의 응답치를 별도로 표시했음.
- 우리는 우선 100명 응답치를 합산한 값으로 응답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후 각 세대별 응답치를 별도로 분석해서 특징을 찾아낼 것임.

2) 상위 1/3의 키워드(32개): 1위부터 공동 29위까지

[표 4-2] 상위 표본집단 전체의 응답값

No.	항목	키워드	총점	순위
1	라이프스타일	행복	409	1
2	라이프스타일	건강	408	2
3	라이프스타일	여가	407	3
4	커뮤니티/관계	신뢰	407	3
5	커뮤니티/관계	존중	406	5
6	커뮤니티/관계	평등	404	6
7	커뮤니티/관계	배려	403	7
8	라이프스타일	안정	402	8
9	라이프스타일	워라벨	401	9
10	라이프스타일	재미, 즐거움	398	10
11	정치/사회/참여	안전	398	10
12	정치/사회/참여	환경	397	12
13	정치/사회/참여	질서, 규칙	396	13
14	경제/일	경제적 안정	394	14
15	경제/일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393	15
16	라이프스타일	자유	392	16
17	라이프스타일	경제적 가치	391	17
18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재생에너지	390	18
19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389	19
20	라이프스타일	미래를 준비	388	20
21	라이프스타일	위로, 힐링	387	21

22	정치/사회/참여	의료공공성	385	22
23	정치/사회/참여	성폭력	385	22
24	라이프스타일	웰빙	384	24
25	경제/일	고용안정	384	24
26	라이프스타일	현재를 즐기자	383	26
27	라이프스타일	성과와 부	383	26
28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신기술	383	26
29	커뮤니티/관계	커뮤니티	381	29
30	커뮤니티/관계	공유	381	29
31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기후변화	381	29
32	정치/사회/참여	사회복지	381	29

○ (1~5위를 차지한 키워드) 전체 100개 항목 중 청년들로부터 가장 중요시하는 키워드는 행복(1위, 409점), 건강(2위, 408점), 여가(3위, 407점), 신뢰(3위, 407점), 존중(5위, 406점)이었음.

- 대덕구의 청년들은 자유(16위, 392점)보다 신뢰를 보다 상위의 가치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됨.
- 후속 FGI에서 제기된 주장을 통해서, '행복'을 중요시하는 청년들이 다수 존재하나 그 척도에 대해서는 일반화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음.
- 행복과 여가, 평등이 1~3위권을 차지한 것을 볼 때, 청년들은 누구나 동등한 조건하에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여가 선용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6~10위를 차지한 키워드) 상위 5개 의제 다음으로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평등(6위, 404점), 배려(7위, 403점), 인정(8위, 402점), 위라벨(9위, 401점), 재미와 즐거움(10위, 398점)이었음.

-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100개 키워드 중 6위라는 높은 순위에 올라온 것으로 볼 때, 청년 세대들이 중시하는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됨. 배려를 중요시하는 대답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보조재로서 이를 중요시하는 경향의 징후일 수 있음.
- 인정을 중시하는 대답이 높게 나온 것도 자신들의 성의와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갈구한다는 뜻으로 보이며, 앞서의 평등, 배려와 함께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큰 것으로 해석됨.

○ (12~15위를 차지한 키워드) 환경(12위, 397점), 질서와 규칙(13위, 396점), 경제적 안정(14위, 394점),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15위, 393점) 순으로 확인됨.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는 물론, 그 이전부터도 이어져 내려왔던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윤택함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여겨짐. 경제적 안정,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많아진 것이 이를 시사하고 있음.
- 환경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특히 높아진 것은, 기후 변화 대책이나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같은 환경 관련 화두가 널리 파급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됨.

○ (16~20위를 차지한 키워드) 자유(16위, 392점), 경제적 가치(17위, 391점), 재생에너지(18위, 390점), 가치관(19위, 389점), 미래를 중시(20위, 388점) 순으로 확인됨.

- 앞서 존중, 배려, 인정의 뒤를 이어 가치관이 상위의 키워드로 제시된 것은, 청년들이 각 개인 단위가 갖는 가치관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민감함을 확인시켜줌.
- 경제적 가치와 재생에너지가 거의 동률의 점수를 기록한 것을 볼 때, 미래의 청년들을 위한 에너지 개발/보급은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마땅할 것임.

○ (21~24위를 차지한 키워드) 위로와 힐링(21위, 387점), 의료공공성(22위, 385점), 성폭력(22위, 385점), 웰빙(24위, 384점), 고용안정성(24위, 384점) 순으로 확인됨.

- 위로와 힐링, 웰빙은 연관되는 키워드로, 이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피로와 고립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사료됨.
- 의료공공성을 중시하는 답변이 많았던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상 부족, 보건의료노동자 총파업 등의 이슈와 함께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등 단기대책에 이어 장기적으로 공공의대법 등 통과를 통해 공공의료인 확대 양성, 공공의료 예산 확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접하며 의료공공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여겨짐.
- 성폭력의 경우 작년에 벌어졌던 N번방 사건 등의 여파로 남녀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사료됨.
- 비좁은 정규직 취업시장과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고용안정성에 높은 점수를 매겼을 것이라 추측됨.

3) 중위 1/3의 키워드(34개): 공동 33위부터 공동 65위까지

[표 4-3] 중위 표본집단 전체의 응답값

No.	항목	키워드	총점	순위
33	커뮤니티/관계	성평등	380	33
34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미래에 대한 불안	380	33
35	라이프스타일	취업	379	35
36	커뮤니티/관계	다양한 관계	379	35
37	커뮤니티/관계	오프라인 관계	379	35
38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노후준비	379	35
39	라이프스타일	결과	378	39
40	라이프스타일	스트레스	378	39
41	라이프스타일	실리	378	39
42	경제/일	재산, 경제력	378	39
43	커뮤니티/관계	연결	378	39
44	라이프스타일	나의 감정, 욕구	377	44
45	커뮤니티/관계	문화적 개방성	377	44
46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영상	377	44
47	정치/사회/참여	공정	377	44
48	라이프스타일	인정욕구	375	48
49	경제/일	일에서의 흥미	374	49

50	경제/일	가성비	374	49
51	커뮤니티/관계	독립	374	49
52	커뮤니티/관계	시민	374	49
53	커뮤니티/관계	개인	374	49
54	라이프스타일	정직	373	54
55	정치/사회/참여	불평등 사회	373	54
56	커뮤니티/관계	성인지	372	56
57	경제/일	재테크	371	57
58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1인주거	371	57
59	라이프스타일	순간 집중력	370	59
60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스토리	370	59
61	정치/사회/참여	사회적 지속 가능성	370	59
62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코로나19	369	62
63	정치/사회/참여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368	63
64	라이프스타일	공존	367	64
65	라이프스타일	인내심, 지구력	364	65
66	라이프스타일	스펙	364	65

○ 라이프스타일 분야

- 순간집중력과 인내심·지구력을 비교한 설문에 청년들은 인내심·지구력(65위, 364점)보다 순간집중력(59위, 370점)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함.
- 최근 금수저·흙수저 등의 이슈로 정직(54위, 373점)과 공정(44위, 377점)에 대한 관심이 청년층에서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들 모두 결과(39위, 378점)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음.
- 도전·모험(72위, 362점)보다 재미·즐거움(10위, 398점), 안정(8위, 402점)과 같은 키워드가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음. 이는 성공과 부(26위, 383점)에 대한 지향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창업이 319점으로 최하 위권(98위)을 기록한 것, 현재를 즐기자는 키워드가 383점으로 중상위급 평가(26위)를 받은 것과도 연관됨.
- 취업(385점)과 인정욕구(370점)를 중요시하는 경향은 중상위권 그룹에 자리하는 반면, 이를 충족하는 데에 필요한 스펙(370점)과 인내심(368점)은 이보다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함.

○ 경제/일 분야

- 가성비(49위, 374점)를 중요 의제로 생각하는 관점은 정확히 중위 그룹에 속하여,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효율적 소비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재테크(57위, 371점)를 의제로 생각하는 관점이 아직 부족한 것을 보면, 청년세대 상당수가 자산운용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아직 풍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커뮤니티/관계

- 성폭력(22위, 385점)을 중요 의제로 생각하는 의견이 상위 25% 이내에 속했고 성평등(33위, 380점)을 중시하는 의견도 이와 비슷했던 반면, 성인지(56위, 372)를 중요시하는 의식은 다소 낮은 편임. 성폭력 자체의

해악성에 대해서는 성별 집단간의 이견 차이가 크지 않고 성평등을 우리사회가 달성해야 할 공동의제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성인지 감수성 함양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판단됨.

- 공유(29위, 381점), 다양한 관계(35위, 379점), 연결(39위, 378점) 등 집단과 개인의 관계성을 전제로 삼는 키워드를 중시하는 경향이 관측되나, 집단을 배제하고 온전한 개인 스스로의 문제에 집중하는 자세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속함(49위, 374점).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 대덕구의 청년들은 재생에너지(18위, 390점)와 기후변화(29위, 381점)처럼 생활 환경을 좌우할 수 있는 미래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 영상(44위, 377점)이나 스토리(59위, 370점)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미래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보임.
- 코로나19(62위, 369점)에 주목하는 정도가 중하위권에 그친 것은, 대유행 이래 1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이를 '생활 속의 불가피한 요소'로 받아들인 측면도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됨.

○ 정치/사회/참여

- 대덕구의 청년들은 불평등 사회(54위, 373점)를 중요 의제로 생각하는 자세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이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회복지(29위, 381점)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었음.
- 의외로 '스팩'을 중시하는 대답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음(65위, 364점).

4) 하위 1/3의 키워드(34개): 공동 67위부터 100위까지

[표 4-4] 표본집단 전체(100명)의 응답값

No.	항목	키워드	총점	순위
67	경제/일	청년주거	363	67
68	커뮤니티/관계	사회적 가족	363	67
69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인공지능	363	67
70	라이프스타일	도전, 모험	362	70
71	커뮤니티/관계	연대	361	71
72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이미지	357	72
73	정치/사회/참여	초고령 사회	357	72
74	라이프스타일	과정	355	74
75	라이프스타일	혁신	355	74
76	정치/사회/참여	시스템에 대한 신뢰	355	74
77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얼리아답터	352	77
78	커뮤니티/관계	권위	349	78
79	라이프스타일	명예	346	79
80	라이프스타일	미니멀리즘	346	79
81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익명성	345	81
82	정치/사회/참여	동물권	345	81
83	라이프스타일	사회적 지위	344	83
84	경제/일	반곤	344	83
85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치매	344	83

86	커뮤니티/관계	타인의 평가	343	86
87	라이프스타일	컨셉	340	87
88	커뮤니티/관계	경쟁	339	88
89	커뮤니티/관계	따돌림	338	89
90	정치/사회/참여	저출산	338	89
91	커뮤니티/관계	온라인 관계	336	91
92	커뮤니티/관계	차별	335	92
93	경제/일	상품후기	334	93
94	경제/일	중고거래	334	93
95	정치/사회/참여	낮은 혼인율	332	95
96	경제/일	비정규직	327	96
97	커뮤니티/관계	마이내리티	324	97
98	경제/일	창업	319	98
99	커뮤니티/관계	혈연, 학연, 지연	316	99
100	경제/일	탕진잼	286	100

○ 라이프스타일

- 사회적지위(83위, 344점)나 명예(79위, 346점) 모두 하위 항목으로 평가받음. 밀레니얼세대라고 해도 청년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적지위나 명예와 관련해서 아직은 먼 ‘이야기’ 일뿐만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직장생활 등의 현실에 당면한 문제도 버거운 상황이라, 먼 미래의 일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함.
- 혁신(74위, 355점)은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 즉, 나와 관련이 없는 의제이며 동시에 현실에서 자주 접하기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하위에 평가함.
-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대덕구의 청년세대들은 과정(74위, 355점)보다 결과(39위, 378점)에 더 큰 중요도를 두고 있음.

○ 경제/일

- 대덕구의 청년들은 소비행위를 할 때 가성비(49위, 374점)를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중고거래(93위, 334점)를 중요 의제로 생각하는 정도가 낮은 것은 둘 사이의 관계성이 크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음. 중고거래 플랫폼에 따라 거래를 위해 상대방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하는 부담감과, 사기행위 등으로 인해 가성비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위험성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 빈곤(83위, 344점), 비정규직(96위, 327점)의 의제들도 낮은 평가를 받음. 이 두 가지 키워드 역시 세대 간 격차가 확인되는데, 1980~1995년생 밀레니얼 세대들이 좀 더 중요시한 의제였음.
-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적극적 소비를 즐기는 태도를 뜻하는 단어인 ‘탕진잼’(100위, 286점)이 전체 키워드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대덕구의 대다수 청년들이 이러한 소비행태에 지극히 부정적임을 잘 드러내고 있음.
- 상품후기(93위, 334점)의 점수도 전 세대를 통틀어 낮은 편이었음. 이는 얼리아답터에 대한 낮은 점수(77위, 352점)와도 연관되어 있으며, 유튜브로 활동하는 얼리아답터의 상품 후기를 듣고 특정 상품을 구매하기보다, 구입을 원하는 상품이 어느 정도 주변에 보급되고 기술적으로 완숙해진 다

음에 구매로 이행하는 소비태도가 청년들 사이에 작용하기 때문임.

○ 커뮤니티/관계

- 혈연·지연·학연(99위, 316점)도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음. 최근 권력형 비리 등에서 불거지며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고 알려진 혈연·지연·학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따돌림(89위, 338점), 차별(92위, 335점), 마이너리티(97위, 324점)와 같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관련 화두에 대한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던 것은, 이들에 대한 대덕구 청년층의 인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음을 확인시켜 줌. 청년들이 약자 및 소수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연대(71위, 361점)에 대한 중요도도 낮게 부여되어 있음.
- 경쟁 역시 339점으로 100위중 88위에 오름. 이는 경쟁이 격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청년세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 치매(83위, 344점)의 경우 세대를 불문하고 청년들에게는 더욱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보니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았음. 특히 1982~1991년생이라도 자신의 부모가 70대 이상이 아니라면 평균 치매 발병률이 6% 이하에 그친다는 통계도 있어, 치매에 대한 위기의식을 본격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됨.
- 익명성(81위, 345점)의 경우, 이것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 탓에 지극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참고로 FGI 조사 당시에도 SNS상의 악플이나 불법촬영물 영상 공유 등을 비롯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익명성을 위시한 각종 폭력행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 한편 얼리아답터에 대한 중요도(77위, 352점)가 낮게 부여된 이유는, 대덕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언론 등을 통하여 스마트폰 등을 비롯한 첨단 신상품들의 정보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큰 호기심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

○ 정치/사회/참여

- 치매에 대한 평가가 그러했듯, 초고령사회(72위, 357점) 역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저출산(89위, 338점)과 낮은 혼인율(95위, 332점) 역시 낮은 평가를 받음. 다만 1995년생 이후 남성들의 경우 낮은 혼인율을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문제시하면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로 큰 가중치를 주지 않는 특색을 보였음.
- 한국 전체에서 반려동물 부양 가구수가 늘어나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조사 결과 81위에 345점으로 낮은 가중치가 부여되었음.

5) 100개에서 상위/중위/하위를 차지한 항목의 비율

[표 4-5] 전체 설문에서 상위/중위/하위 그룹이 차지한 응답의 개수 및 비율

	전체		상위1/3		중위1/3		하위1/3	
	설문개수	설문비율	응답개수	응답비율	응답개수	응답비율	응답개수	응답비율
라이프스타일	32	32%	14	43.8%	11	32.3%	7	20.5%
경제/일	14	14%	3	9.3%	4	11.7%	7	20.5%
커뮤니티/관계	25	23%	6	18.8%	9	26.4%	10	29.4%
미래/디지털/커뮤니	14	14%	3	9.3%	6	17.6%	5	14.7%
정치/사회/참여	15	15%	6	18.8%	4	11.7%	5	14.7%
합계	100		32	100.0%	34	100.0%	34	100.0%

○ 청년세대들은 전반적으로 라이프스타일과 커뮤니티/관계 항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일,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항목, 정치/사회/참여 의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상위 1/3 키워드 비율

- 100개 항목 중 상위권에 속하는 키워드는 32개임.
- 이 중 라이프스타일 분야가 14개(43.8%), 경제/일이 3개(9.3%), 커뮤니티/관계가 6개(18.8%),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이 3개(9.3%), 정치/사회/참여가 6개(18.8%)를 차지함.
- 설문문항에서 각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100개 문항 중 상위 1/3을 차지하는 키워드에서 커뮤니티/관계, 라이프스타일 분야 응답이 상대적 다수를 차지함.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과 경제/일에 대한 응답은 가장 낮았으며 정치/사회/참여 분야는 설문문항 비율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중위 1/3 키워드 비율

- 100개 항목 중 중위권에 속하는 키워드는 34개임.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키워드는 라이프스타일 분야로 11개(32.3%)를 기록하였음.
- 커뮤니티/관계 분야가 그 뒤를 이어 9개(26.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체 설문문항 비율과 비슷한 수치임.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분야는 6개(17.6%)로 전체 설문문항의 비율(14.0%)과 비슷했음.
- 경제/일(12.9%)과 정치/사회/참여는 각각 4개로 설문문항 비율보다 낮게 나옴.

○ 하위 1/3 키워드 비율

- 100개 항목 중 하위권에 속하는 키워드는 34개임.
- 10개를 기록한 커뮤니티/관계는 29.4%로 전체 설문문항 비율 대비하여 매우 높게 나옴.
- 나머지 분야의 키워드들은 모두 응답자 숫자가 적으면서도 설문문항의 비율보다 높은 응답률을 기록함.

3_조사 결과: 전체, 세대별 응답(30대-20대)

1) 30대-20대 전체 값

아래는 전체 100개 항목에 대해서, 30대와 20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문항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표. 응답문항별로 순위와 총점을 병기했음.

[표 4-6] 30대와 20대 응답 비교표

30대(n=60)				20대(n=40)			
총점	(n=40가정)	순위	문항	문항	순위	(n=40가정)	총점
247	165	1	행복	안정	1	164	164
247	165	1	신뢰	여가	2	163	163
246	164	3	건강	행복	3	162	162
245	163	4	평등	건강	3	162	162
244	163	5	여가	존중	3	162	162
244	162	5	존중	신뢰	6	160	160
243	161	7	배려	배려	6	160	160
241	161	8	워라벨	워라벨	6	160	160
241	161	8	재미, 즐거움	평등	9	159	159
241	161	8	안전	경제적 가치	10	158	158
241	161	8	환경	재미, 즐거움	11	157	157
241	161	8	기후변화	안전	11	157	157
240	160	13	질서, 규칙	환경	13	156	156
240	160	13	가치관	질서, 규칙	13	156	156
239	159	15	경제적 안정	성공과 부	13	156	156
239	159	15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신기술	13	156	156
238	159	17	안정	취업	13	156	156
238	159	17	자유	경제적 안정	18	155	155
238	159	17	위로, 힐링	미래를 준비	18	155	155
238	158	17	웰빙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20	154	154
237	158	21	재생에너지	자유	20	154	154
237	157	21	인정욕구	결과	20	154	154
235	155	23	성폭력	스트레스	20	154	154
233	155	24	경제적 가치	성인지	20	154	154
233	155	24	미래를 준비	재생에너지	25	153	153
233	155	24	현재를 즐기자	의료공공성	25	153	153
233	155	24	커뮤니티	성평등	25	153	153
233	155	24	순간 집중력	미래에 대한 불안	25	153	153
232	155	29	의료공공성	고용안정	29	152	152
232	155	29	고용안정	다양한 관계	29	152	152
232	155	29	나의 감정, 욕구	스펙	29	152	152
231	154	32	오프라인 관계	공유	32	151	151
231	154	32	독립	사회복지	32	151	151
230	153	34	공유	연결	32	151	151
230	153	34	사회복지	성폭력	35	150	150
230	153	34	실리	현재를 즐기자	35	150	150
230	153	34	개인	노후준비	35	150	150
229	153	38	노후준비	공정	35	150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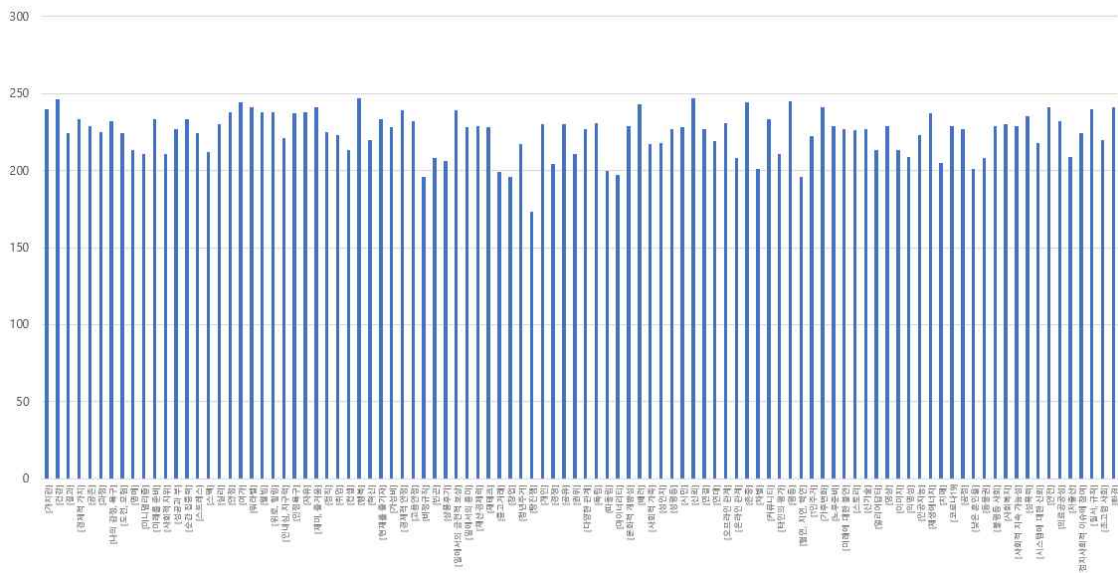
30대(n=60)				20대(n=40)			
총점	(n=40가정)	순위	문항	문항	순위	(n=40가정)	총점
229	153	38	재산, 경제력	가치관	39	149	149
229	153	38	문화적 개방성	위로, 힐링	39	149	149
229	153	38	영상	재산, 경제력	39	149	149
229	153	38	불평등 사회	1인주거	39	149	149
229	153	38	사회적 지속 가능성	커뮤니티	43	148	148
229	153	38	코로나19	오프라인 관계	43	148	148
229	153	38	공존	실리	43	148	148
228	152	46	일에서의 흥미	문화적 개방성	43	148	148
228	152	46	가성비	영상	43	148	148
228	152	46	시민	정직	43	148	148
228	152	46	재테크	웰빙	49	146	146
227	151	50	성공과 부	일에서의 흥미	49	146	146
227	151	50	신기술	가성비	49	146	146
227	151	50	성평등	시민	49	146	146
227	151	50	미래에 대한 불안	청년주거	49	146	146
227	151	50	다양한 관계	사회적 가족	49	146	146
227	151	50	연결	나의 감정, 욕구	55	145	145
227	151	50	공정	개인	56	144	144
226	151	57	스토리	불평등 사회	56	144	144
225	150	58	정직	스토리	56	144	144
225	150	58	과정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56	144	144
224	149	60	결과	이미지	56	144	144
224	149	60	스트레스	독립	61	143	143
224	149	60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재테크	61	143	143
224	149	60	도전, 모험	인내심, 지구력	61	143	143
223	149	64	취업	연대	64	142	142
223	149	64	인공지능	사회적 지속 가능성	65	141	141
222	148	66	1인주거	기후변화	66	140	140
221	147	67	인내심, 지구력	코로나19	66	140	140
220	147	68	초고령 사회	인공지능	66	140	140
220	147	68	혁신	얼리아답터	69	139	139
219	146	70	연대	치매	69	139	139
218	145	71	성인지	인정욕구	71	138	138
218	145	71	시스템에 대한 신뢰	공존	71	138	138
217	145	73	청년주거	도전, 모험	71	138	138
217	145	73	사회적 가족	권위	71	138	138
213	142	75	이미지	따돌림	71	138	138
213	142	75	얼리아답터	순간 집중력	76	137	137
213	142	75	명예	초고령 사회	76	137	137
213	142	75	컨셉	시스템에 대한 신뢰	76	137	137
212	141	79	스펙	동물권	76	137	137
211	141	80	권위	익명성	80	136	136
211	141	80	미니멀리즘	빈곤	80	136	136
211	141	80	사회적 지위	혁신	82	135	135
211	141	80	타인의 평가	미니멀리즘	82	135	135
209	139	84	익명성	경쟁	82	135	135
209	139	84	저출산	중고거래	82	135	135
208	139	86	동물권	차별	86	134	134
208	139	86	빈곤	명예	87	133	133

30대(n=60)				20대(n=40)			
총점	(n=40가정)	순위	문항	문항	순위	(n=40가정)	총점
208	139	86	온라인 관계	사회적 지위	87	133	133
206	137	89	상품후기	타인의 평가	89	132	132
205	137	90	치매	낮은 혼인율	90	131	131
204	136	91	경쟁	비정규직	90	131	131
201	134	92	차별	과정	92	130	130
201	134	92	낮은 혼인율	저출산	93	129	129
200	133	94	따돌림	온라인관계	94	128	128
199	133	95	중고거래	상품후기	94	128	128
197	131	96	마이너리티	컨셉	96	127	127
196	131	97	비정규직	마이너리티	96	127	127
196	131	97	창업	창업	98	123	123
196	131	97	혈연, 지연, 학연	혈연, 지연, 학연	99	120	120
173	115	100	탕진잼	탕진잼	100	113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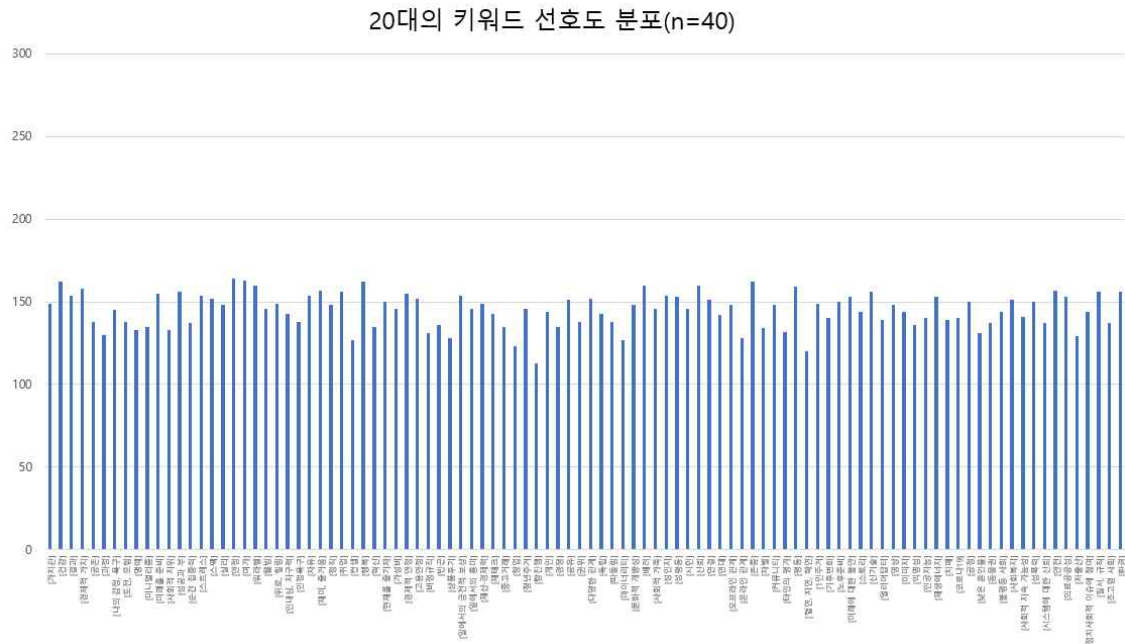
○ 기본 통계량 분석

- 청년 100명(30대 60명, 20대 40명)을 대상으로 100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의 설문을 진행한 결과, 100개 항목에 대한 30대의 평균치는 224.3점이고 20대의 평균치는 145.1임. 각 세대의 중위수는 227점과 146점임.
- 30대와 20대, 각각의 키워드 선호도를 그래프화하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확인할 수 있음. 분포곡선으로 따졌을 경우 두 성별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30대의 모수가 더욱 많고 선호하는 키워드에 대한 점수 부여도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음.

30대의 키워드 선호도 분포(n=60)



[그림 4-1] 30대의 키워드 선호도 분포



[그림 4-2] 20대의 키워드 선호도 분포

- 30대와 20대의 모수를 각 40명으로 가정했을 경우, 30대의 평균은 149.5점이고 중위수는 152점임. 이 경우 두 세대 간의 평균값과 중위수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두 세대 모두 일부 항목에 대해서 매우 강한 선호(outliers)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7] 세대별 응답에 대한 기본 통계량

30대 (n=60)	20대 (n=40)	
224.3	145.1	평균
227	146	중위수
10.8	10.48	표준편차

※세대별 n값 동일(n=40) 가정시

30대 (n=40)	20대 (n=40)	30대-20대	
149.5	145.1	4.4	평균
152	146	6	중위수
9.38	10.48	-1.1	표준편차

- 설문에 참여한 '20대'의 표준편차(10.48)는 '30대'의 표준편차(9.38)보다 더 큼. 분산 또는 표준편차의 값이 작다는 것은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몰려 있고 분산 또는 표준편차의 값이 크다는 것은 데이터가 넓은 범위에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세대를 두 그룹으로 분류했을 때 30대가 20대에 비해서 가치관이나 선호의 유사성이 더 높으며, 반대로 20대는 30대보다 세대 내 유사성이 낮음(선호가

넓게 퍼져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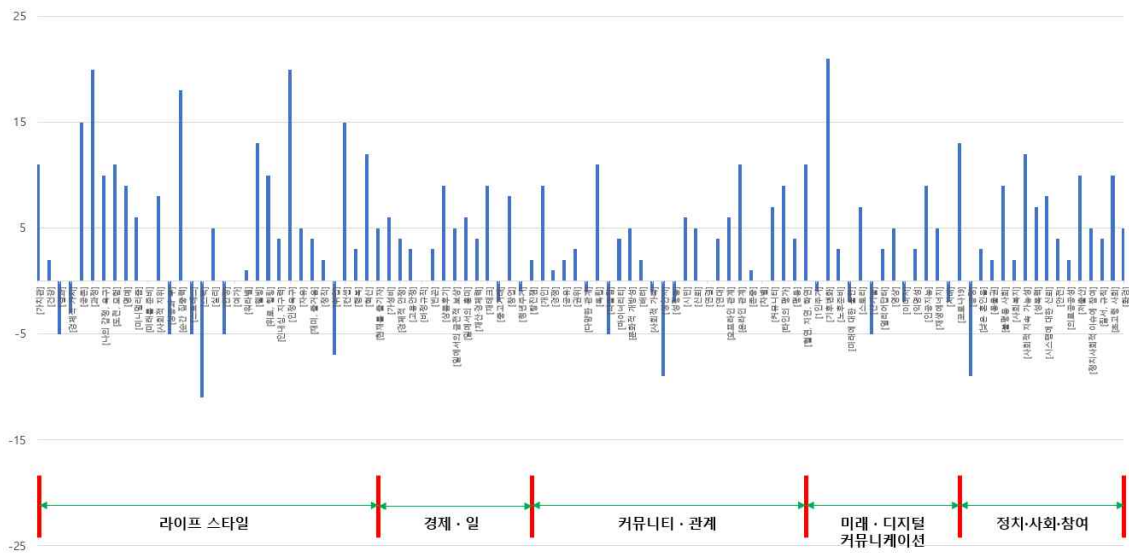
- 다시 말해서 100개 문항설문 결과에 대해, 20대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20대가 보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30대는 20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보다 균질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본 설문의 특성상 100개 항목 중에 평균값과 중위수에 해당되는 항목, 예를 들어서 30대에서 152점을 받는 문항(일에서의 흥미/가성비/시민/재테크)과 20대에서 146점을 받은 문항(웰빙/일에서의 흥미/가성비/시민/청년주거/사회적 가족)은 각각 두 세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없음.

○ 30대-20대간 카테고리별 키워드 선호도의 차이

- 아래의 그래프는 30대와 20대가 각각 부여한 키워드별 선호도의 상호 차이값을, 두 세대를 40명이라는 동일한 숫자로 맞춘 상태에서 도식화한 것임. 그래프의 높이가 높을수록 해당 키워드에 대한 30대와 20대의 선호도 격차가 크다는 뜻이며, 본 연구에서는 5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키워드를, '30대와 20대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일 것임.
- 그래프가 위의 방향으로 솟아오르는 것은 30대의 선호도가 20대보다 높은 것을 나타내며, 반대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은 20대의 선호도가 30대보다 높은 것을 뜻함.

30대-20대 간 카테고리별 키워드 선호도 차이



[그림 4-3] 30-20대간 카테고리별 키워드 선호도 차이(n=40)

2) 30대-20대간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상위 1/3 키워드)

전체 100개 항목에 대해서, 각 그룹(상위1/3, 중위1/3, 하위1/3)별로 30대와 20대가 공통 키워드로 평가한 것과, 개별키워드로 평가한 것을 정리. 아래는 상위 1/3에 해당하는 키워드 35개에 대한 표임.

[표 4-8] 30대와 20대가 선정한 개별 키워드와 공통 키워드(상위 1/3)

항목	구분	30대	20대
라이프스타일	공통	행복, 건강, 안정, 여가, 워라벨, 재미·즐거움, 경제적 가치, 자유, 미래를 준비, 현재를 즐기자	
	개별	가치관, 위로·힐링, 웰빙, 인정욕구, 순간 집중력, 나의 감정·욕구, 실리	성공과 부, 취업, 결과, 스트레스, 스펙
경제/일	공통	경제적 안정,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고용안정	
	개별	-	-
커뮤니티/관계	공통	신뢰, 존중, 배려, 평등, 공유	
	개별	커뮤니티, 오프라인 관계, 독립, 개인	성인지, 성평등, 다양한 관계, 연결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공통	재생에너지	
	개별	기후변화	신기술, 노후준비, 미래에 대한 불안
정치/사회/참여	공통	안전, 환경, 질서·규칙, 성폭력, 의료공공성, 사회복지	
	개별	-	공정

○ 라이프스타일

-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20대는 취업과 성공, 결과, 스펙 등 당면한 구직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30대는 가치관, 위로·힐링, 나의 감정·욕구 등 감성적 부분을 중시하는 경향이 드러남.
- 상위 1/3을 차지하는 의제 중 라이프스타일 항목은, 세대 간에 공통 의제가 9개, 세대별 개별의제는 12개(20대 5개, 30대 7개). 즉, 30대는 16개를, 20대는 14개를 상위 1/3에 속하는 의제로 선정. 라이프스타일 항목은, 30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이 더 많음.
- 두 세대가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부분도 적지 않고, 그 내용을 보면 행복, 건강, 안정, 여가, 현재를 즐기자와 같은 감성적 부분과 경제적 가치, 미래를 준비와 같은 경제적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접근 방식은 세대별로 다르지만 삶 자체의 편안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길을 공통된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엿볼 수 있음.

○ 경제/일

- 전체 100개 중 경제/일에 해당하는 상위 키워드는 3개(경제적 안정,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고용안정)였으며,

이들 키워드는 30대와 20대 모두 공통된 수준으로 중요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이 상위 키워드 랭킹에 포함된 것은, 피설문자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이 수행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구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줌.
- 한편 '고용안정'은 가깝게 보면 기간제나 계약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 취업을 지양하고 정규직을 원한다는 것처럼 보이나, 외부요인으로 인한 집단해고 등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스탠스도 함께 고려해야 함. 즉 외부요인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탄탄한 기업이 많아져야 이들의 걱정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상위 1/3 키워드들 중 경제/일에 대한 각 세대별의 독자적인 경향이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피설문자들이 동일한 고민의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함.

○ 커뮤니티/관계

- 상위 1/3를 차지하는 의제 중 커뮤니티/관계 항목은, 세대 간에 공통키워드가 개, 세대별 개별키워드는 총 8개(20대 4개, 30대 4개)임. 즉, 커뮤니티/관계 항목의 경우, 20대와 30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들 중 상당수가 명확히 같고 있음.
 - ▶ 두 세대 모두 신뢰, 존중, 배려, 평등, 공유의 의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 ▶ 공유가 높은 것은 공유경제 플랫폼이 널리 보급되면서 청년층도 쏘카, 에어비앤비, 위워크 등과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긍정적 인식과 더불어서 공유경제 기업들의 시장가치가 매우 크고 이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공유경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도 보임.
 - ▶ 평등이 높은 것은 공정함을 지향하는 청년들의 특성이, 관계에 있어서의 평등 역시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줌.
- 30대에서 개인, 독립과 같은 개별주체 기반의 키워드가 오프라인 관계, 커뮤니티와 같은 집단 기반의 키워드와 함께 상위 1/3에 올라간 것은, 집단 속에서의 개인 권리, 또는 한 집단 속에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이 세대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대의 경우 다양한 관계와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상위 1/3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는 20대가 온라인-오프라인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계층과의 관계를 지향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임.
- 한편 20대는 30대와 달리 성인지와 성평등을 개별적인 상위 1/3에 올려놓고 있음. 이 세대 내부에서의 남녀간 의견 양상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으나, 20대 전반이 성인지와 성평등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명해 보임.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 청년들의 주된 관심사라고 여겨졌던, 불평등완화, 청년주거, 고용안정, 기본소득 등은 일관되게 중위의 평가를 받음. 청년들은 이 정책들을 아직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일부 청년들은 이 정책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또 일부 청년들은 위의 정책들에 대해 이해 자체가 낮았음.
- 30대는 소비방식과 관련된 질문에서 가성비(가격대비 효율/성능의 우수성)와 가치소비를 모두 중간 정도의 중요도로 평가함. 빈곤이나 경제위기, 재테크 역시 낮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매우 높지도 않다고

평가함.

- 20대는 재산·경제력을 당장 매우 중요한 의제는 아닌, 중간정도의 중요도를 가진 항목으로 평가함. 이나 태양열/태양광 발전과 같은 친환경 발전시설과 수소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와 같은 신동력 친환경 자동차들의 존재가 세대를 통틀어 인지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됨.
- 30대에서는 기후변화를, 20대에서는 신기술, 노후준비,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상위 1/3 의제로 선정하였음. 사회생활을 아직 준비중이거나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들이 바라보는 미래의 사회상에는 기술발전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의 미래 자체에 대한 걱정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됨.
- 반면 30대의 경우 '기후변화'만을 상위 1/3 의제로 올리고 있는데, 이는 20대가 동 키워드에 대해 중위권 수준의 관심도를 보인 것과 상반되는 모습임.

○ 정치/사회/참여

- 두 세대 모두 안전, 환경, 질서·규칙, 성폭력, 의료공공성, 사회복지를 상위 1/3 수위의 공통 의제로 선정함. 상위에 속하는 키워드의 내용들이 거의 공통되어 있어, 정치/사회/참여 분야의 경우 상위 1/3에서는 거의 공통의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대의 경우 '공정'을 중시한다는 대답이 세대 개별 응답으로서 상위 1/3에 올라왔는데, 이는 취업을 비롯하여 향후 '공정'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통과의를 여러 차례 겪을 것이라는 해당 세대들의 자체적 전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3) 30대-20대간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중위 1/3 키워드)

[표 4-9] 30대와 20대가 선정한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중위 1/3)

항목	구분	30대	20대
라이프 스타일	공통	재산·경제력, 공존, 정직, 도전·모험, 인내심·지구력	
	개별	성공과 부, 과정, 결과, 스트레스, 취업, 혁신, 명예, 컨셉	가치관, 위로·힐링, 실리, 웰빙, 나의 감정·욕구, 인정욕구, 순간 집중력
경제/일	공통	일에서의 흥미, 가성비, 재테크, 청년주거	
	개별	-	-
커뮤니티 /관계	공통	문화적 개방성, 시민, 사회적 가족, 연대	
	개별	성평등, 다양한 관계, 연결, 성인지	커뮤니티, 오프라인 관계, 개인, 독립, 권위, 따돌림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공통	영상, 1인주거, 코로나19, 스토리, 인공지능, 얼리아답터, 이미지	
	개별	노후준비, 신기술, 미래에 대한 불안	기후변화, 치매
정치/사회 /참여	공통	불평등 사회, 사회적 지속 가능성,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초고령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	
	개별	공정	동물권

○ 라이프스타일

- 재산·경제력, 공존, 정직, 도전·모험, 인내심·지구력 등, 라이프스타일 부분에서는 중위권에 속하는 키워드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음. 그 중에서도 과거 청년 세대의 표상과도 같은 어휘였던 도전·모험이 중위권에 그쳤다는 것은, '안정'이라는 키워드가 상위 1/3에 올랐다는 것과 맞물리면서 청년들이 신중한 결정과 행동을 선호하고 있음을 암시함.

○ 경제/일

- 중위권 구간에서 경제/일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특정 세대 고유의 분포 경향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두 세대의 모든 피설문자들이 일에서의 흥미, 가성비, 재테크, 청년주거 등에 비슷한 수준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커뮤니티/관계

- 중위권 구간에서 커뮤니티/관계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은 공통되는 부분보다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더 강함. 예를 들어 20대에서는 상위 1/3에 포함되었던 성평등, 성인지는 밀레니얼세대들의 입장에서 중간 정도의 중요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반대로 30대들이 상위 1/3 수준으로 증시했던 오프라인 관계와 커뮤니티가 20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따돌림의 경우 20대가 증시하는 경향도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30대가 더욱 낮은 중요도를 부여했던 것에 비하면 일정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 두 세대 모두 영상, 1인주거, 코로나19, 스토리, 인공지능, 얼리아답터, 이미지를 중위로 평가. 흥미로운 것은 얼리아답터를 중요시하는 의견이 20대에서조차 상위 1/3에 들지 못하고 중위에 랭크되었다는 점인데, 신기술을 적용한 신상품에 대한 관심이 20대에서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최근 전세계적 리셋을 초래한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크게 민감해하지 않는 것으로, 의외의 결과가 나타남.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로 높지 않은데, 얼리아답터가 홍보하는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듯, 마케팅을 위한 이야기일 뿐이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 조사 결과 20대는 30대보다 노후 준비 및 치매에 대한 압박을 더욱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판단됨.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여기는 태도도 30대보다 20대 쪽이 더욱 강했음.

○ 정치/사회/참여

- 두 세대 모두 불평등 사회, 사회적 지속 가능성,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초고령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중요시하고 있음이 확인됨.

- 30대는 공정에 대한 관심이 20대에 대비하여 크게 낮은 반면, 30대가 느끼는 동물권에 대한 관심은 20대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음.

4) 30대-20대간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하위 1/3 키워드)

[표 4-10] 30대와 20대가 선정한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하위 1/3)

항목	구분	30대	20대
라이프 스타일	공통	미니멀리즘, 사회적 지위	
	개별	스펙	혁신, 명예, 과정, 컨셉
경제/일	공통	빈곤, 중고거래, 상품후기, 비정규직, 창업, 탕진잼	
	개별	-	-
커뮤니티 /관계	공통	타인의 평가, 경쟁, 차별, 온라인 관계, 마이너리티, 혈연·지연·학연	
	개별	권위, 따돌림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공통	익명성	
	개별	치매	-
정치/사회 /참여	공통	저출산, 낮은 혼인율	
	개별	동물권	-

○ 라이프스타일

- 미니멀리즘과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두 세대 모두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음.
- 30대의 경우 스펙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였음. 이는 해당 그룹의 인원들 상당수가 이미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류상 스펙보다 직무경력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보편적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임.
- 자기표현욕구가 강하고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20대가 혁신 및 컨셉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 것은, 신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별개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는 안정을 중시하는 편에 가까운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측됨.

○ 경제/일

- 30대와 20대에서 공통적으로 빈곤, 중고거래, 상품후기, 비정규직, 창업, 탕진잼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함.
- 청년들이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상품후기'가 낮게 나온 것은 의외의 결과임.
- 중고거래에 대한 중요도가 낮았던 것은 본 조사를 위해 참고했던 일부 마케팅 분석서에서 언급했던 청년세대들의 합리적 소비태도와 상반되어 보임.

- FGI에 응했던 대부분의 피설문자들은 “같은 책을 구입하더라도 참고서는 무조건 신품을 사지만, 소설이나 시집은 중고서적만 골라 산다”라는 등의 독자적인 중고품 선택 기준을 갖고 있었음. 따라서 모든 청년세대들이 자신들의 모든 소비생활을 중고상품으로 채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무언가를 마음먹고 구매하는 것을 즐기면서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서 ‘탕진잼’이라고 호칭·자조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30대와 20대 모두 매우 낮은 중요도를 부여함. 이는 다른 하위 키워드들에 비교했을 때도 현격하게 낮은 수치였으며, 해당 행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었음.

○ 커뮤니티/관계

- 타인의 평가, 경쟁, 차별, 온라인 관계, 마이너리티, 혈연·지연·학연 등에 대하여, 30대와 20대 모두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함.
- 타인의 평가에 대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 것에서, 자신의 노력을 누군가가 평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풍조가 세대를 불문하고 공감대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두 세대가 모두 경쟁과 혈연·지연·학연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 것은, 공정에 대한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던 것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임.
- 30대의 경우 권위, 따돌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매우 적었으며, 이는 과거에 그들이 소년기를 보냈던 시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둔감했기 때문으로 생각됨.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 익명성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매우 낮은 중요도를 부여했음. FGI 조사 당시, 일부 피설문자들의 경우 N번방 사건을 비롯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흥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실명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남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짓을 하니까 익명성을 중요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함.
- 치매에 대한 중요도를 20대보다 30대가 더 낮게 부여한 것은 의외의 결과임.

○ 정치/사회/참여

- 저출산, 낮은 혼인율 같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꼽히는 의제들은 모두 하위로 평가함.
- 20대가 동물권 의제에 대하여 갖는 관심은 30대의 그것과 달리 중위권에 올라와 있으나, 같은 중위권 랭킹 안에서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결국 모든 세대가 동물권 문제를 그렇게까지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지는 않으며, FGI 조사 당시에는 이 화두 자체가 TV프로그램이나 마케팅에 의한 산물이라며 ‘와닿지 않는다’라고 평가절하하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음.

4_조사 결과: 성별 차이

1) 남성-여성 전체값

아래는 전체 100개 항목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문항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표. 응답문항별로 순위와 총점을 병기했음.

[표 4-11] 남성과 여성 응답 비교표

남성(n=43)				여성(n=57)			
총점	(n=43가정)	순위	문항	문항	순위	(n=43가정)	총점
172	172	1	신뢰	행복	1	183	242
170	170	2	건강	존중	2	180	239
170	170	2	평등	건강	3	180	238
169	169	4	여가	여가	3	180	238
169	169	4	배려	안정	5	179	237
168	168	6	경제적 안정	질서, 규칙	5	179	237
168	168	6	고용안정	신뢰	7	177	235
167	167	8	행복	안전	7	177	235
167	167	8	존중	평등	9	177	234
167	167	8	워라벨	배려	9	177	234
167	167	8	재미, 즐거움	워라벨	9	177	234
166	166	12	환경	경제적 안정	12	175	232
165	165	13	안정	성폭력	12	175	232
164	164	14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재미, 즐거움	14	174	231
164	164	14	재테크	환경	14	174	231
163	163	16	안전	의료공공성	14	174	231
163	163	16	신기술	자유	17	173	230
163	163	16	커뮤니티	성평등	17	173	230
163	163	16	오프라인 관계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19	172	229
163	163	16	인정욕구	재생에너지	19	171	229
162	162	21	자유	나의 감정, 욕구	21	171	228
162	162	21	가치관	가치관	22	170	227
162	162	21	미래를 준비	성인지	22	170	227
162	162	21	기후변화	경제적 안정	24	170	226
162	162	21	노후준비	미래를 준비	24	170	226
161	161	26	재생에너지	위로, 힐링	24	170	226
161	161	26	위로, 힐링	현재를 즐기자	24	170	226
161	161	26	성공과 부	웰빙	28	170	225
161	161	26	다양한 관계	사회복지	28	170	225
161	161	26	재산, 경제력	공유	30	169	224
160	160	31	미래에 대한 불안	취업	30	169	224
160	160	31	실리	공정	30	169	224
160	160	31	스토리	결과	33	168	223
159	159	34	질서, 규칙	영상	33	168	223
159	159	34	경제적 가치	성공과 부	35	167	222
159	159	34	웰빙	스트레스	35	167	222
158	158	37	가성비	정직	35	167	222
158	158	37	시민	1인주거	35	167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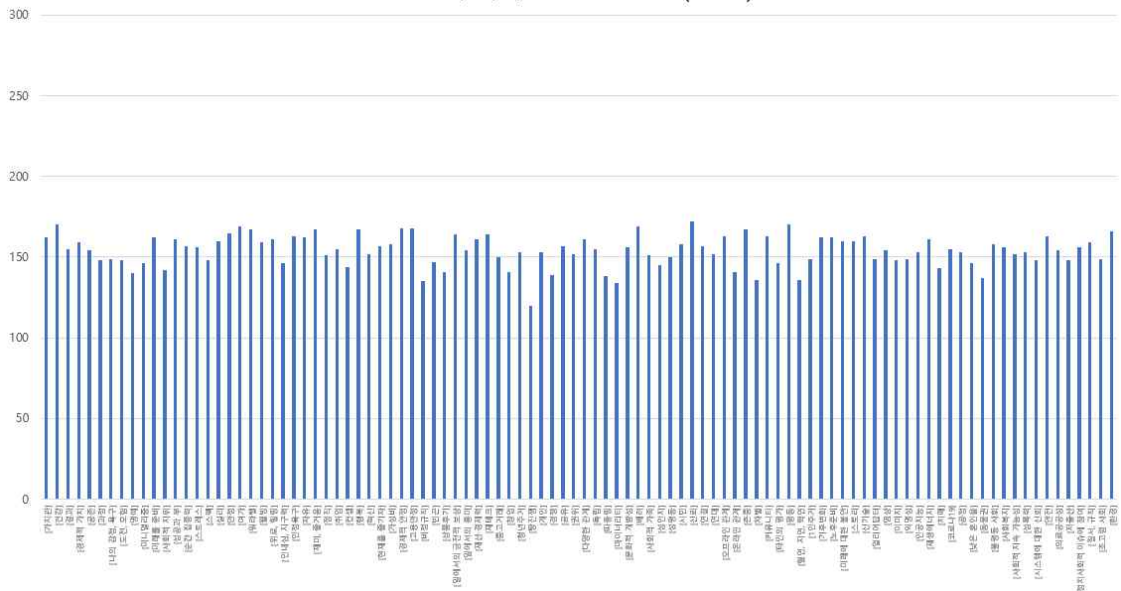
남성(n=43)				여성(n=57)			
총점	(n=43가정)	순위	문항	문항	순위	(n=43가정)	총점
158	158	37	불평등 사회	연결	39	167	221
157	157	40	현재를 즐기자	문화적 개방성	39	167	221
157	157	40	공유	개인	41	167	221
157	157	40	연결	신기술	42	166	220
157	157	40	순간 집중력	미래에 대한 불안	42	166	220
156	156	44	사회복지	일에서의 흥미	42	166	220
156	156	44	스트레스	기후변화	45	165	219
156	156	44	문화적 개방성	독립	45	165	219
156	156	44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커뮤니티	47	164	218
155	155	48	취업	다양한 관계	47	164	218
155	155	48	결과	실리	47	164	218
155	155	48	독립	사회적 지속 가능성	47	164	218
155	155	48	코로나19	인내심, 지구력	47	164	218
154	154	52	의료공공성	노후준비	52	164	217
154	154	52	영상	재산, 경제력	52	164	217
154	154	52	일에서의 흥미	고용안정	54	163	216
154	154	52	공존	오프라인 관계	54	163	216
153	153	56	성폭력	가성비	54	163	216
153	153	56	공정	시민	54	163	216
153	153	56	개인	스펙	54	163	216
153	153	56	청년주거	불평등 사회	59	162	215
153	153	56	인공지능	코로나19	60	161	214
152	152	61	사회적 지속 가능성	도전, 모험	60	161	214
152	152	61	연대	순간 집중력	62	161	213
152	152	61	혁신	공존	62	161	213
152	152	61	권위	인정욕구	64	160	212
151	151	65	정직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64	160	212
151	151	65	사회적 가족	사회적 가족	64	160	212
150	150	67	성평등	스토리	67	158	210
150	150	67	중고거래	청년주거	67	158	210
149	149	69	나의 감정, 욕구	인공지능	67	158	210
149	149	69	1인주거	연대	70	158	209
149	149	69	초고령 사회	이미지	70	158	209
149	149	69	얼리아답터	초고령 사회	72	157	208
149	149	69	익명성	동물권	72	157	208
148	148	74	스펙	재테크	74	156	207
148	148	74	도전, 모험	과정	74	156	207
148	148	74	이미지	시스템에 대한 신뢰	74	156	207
148	148	74	과정	명예	77	155	206
148	148	74	시스템에 대한 신뢰	혁신	78	153	203
148	148	74	저출산	얼리아답터	78	153	203
147	147	80	빈곤	사회적 지위	80	152	202
146	146	81	인내심, 지구력	치매	81	152	201
146	146	81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	82	151	200
146	146	81	타인의 평가	경쟁	82	151	200
146	146	81	낮은 혼인율	따돌림	82	151	200
145	145	85	성인지	차별	85	150	199
144	144	86	컨셉	권위	86	149	197
143	143	87	치매	빈곤	86	149	197

남성(n=43)				여성(n=57)			
총점	(n=43가정)	순위	문항	문항	순위	(n=43가정)	총점
142	142	88	사회적 지위	타인의 평가	86	149	197
141	141	89	온라인 관계	익명성	89	148	196
141	141	89	상품후기	컨셉	89	148	196
141	141	89	창업	온라인 관계	91	147	195
140	140	92	명예	상품후기	92	146	193
139	139	93	경쟁	비정규직	93	145	192
138	138	94	따돌림	저출산	94	143	190
137	137	95	동물권	마이너리티	94	143	190
136	136	96	차별	낮은 혼인율	96	140	186
136	136	97	혈연, 지연, 학연	중고거래	97	139	184
135	135	97	비정규직	혈연, 지연, 학연	98	136	180
134	134	99	마이너리티	창업	99	134	178
120	120	100	탕진잼	탕진잼	100	125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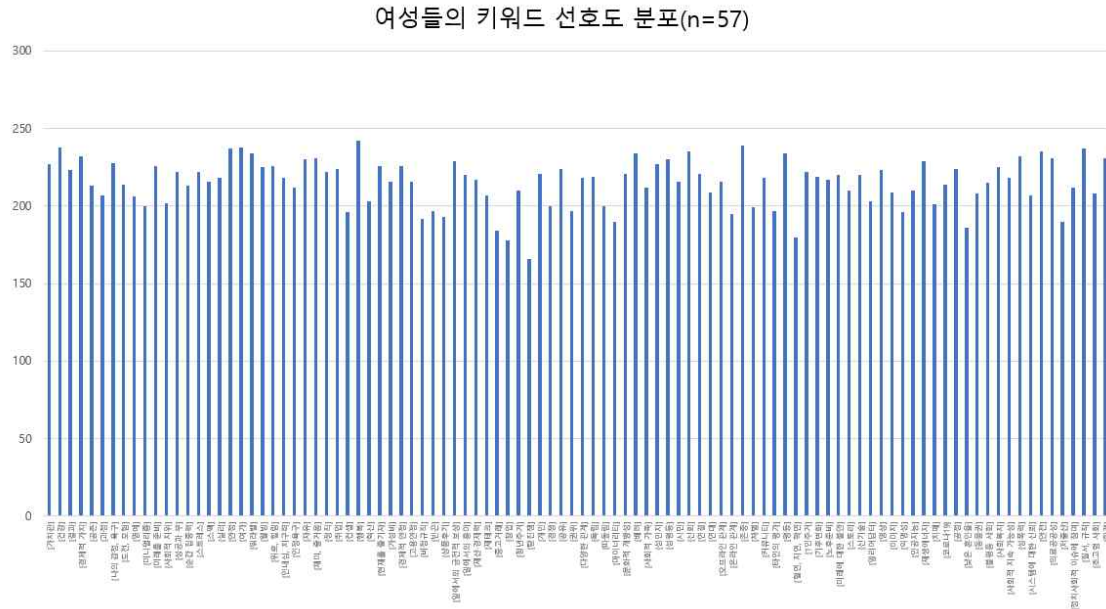
○ 기본 통계량 분석

- 청년 100명(남성 43명, 여성 57명)을 대상으로 100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의 설문을 진행한 결과, 100개 항목에 대한 남성의 평균치는 154.1점이고 여성 평균치는 215.3임. 각 세대의 중위수는 157점과 218점임.
- 남녀 각각의 키워드 선호도를 그래프화하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확인할 수 있음. 분포곡선으로 따졌을 경우 두 성별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여성들이 그 모수가 더욱 많고 선호하는 키워드에 대한 점수 부여도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음.

남성들의 키워드 선호도 분포(n=43)



[그림 4-4] 남성들의 키워드 선호 분포



[그림 4-5] 여성들의 키워드 선호 분포

- 남성과 여성의 모수를 각 43명으로 가정했을 경우, 여성의 평균과 중위수는 각각 162점과 164이었음. 이 경우 두 젠더집단 간의 평균값과 중위수의 차이는 어렵잡아 8~9점 정도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두 젠더집단 각자가 일부 항목에 대해서 강한 선호(outliers)를 내포하고 있다는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음.

[표 4-12] 각 성별 응답에 대한 기본 통계량

남성 (n=43)	여성 (n=57)	
154.1	215.3	평균
155	218	중위수
9.68	15.13	표준편차

※각 성별 n값 동일(n=43) 가정시

남성 (n=43)	여성 (n=43)	남성-여성	
154.1	162	-7.9	평균
155	164	-9	중위수
9.68	11.41	-1.73	표준편차

- 설문에 참여한 '여성'의 표준편차(11.41)가 '남성'의 표준편차(9.68)보다 더 큼. 분산 또는 표준편차의 값이 작다는 것은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몰려 있고, 반대로 분산 또는 표준편차의 값이 크다는 것은 데이터가 넓은 범위에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세대를 두 젠더집단으로 분류했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가치관이나 선호의 유사성이 더 높으며, 반대로 여성은 남성보다 동일젠더집단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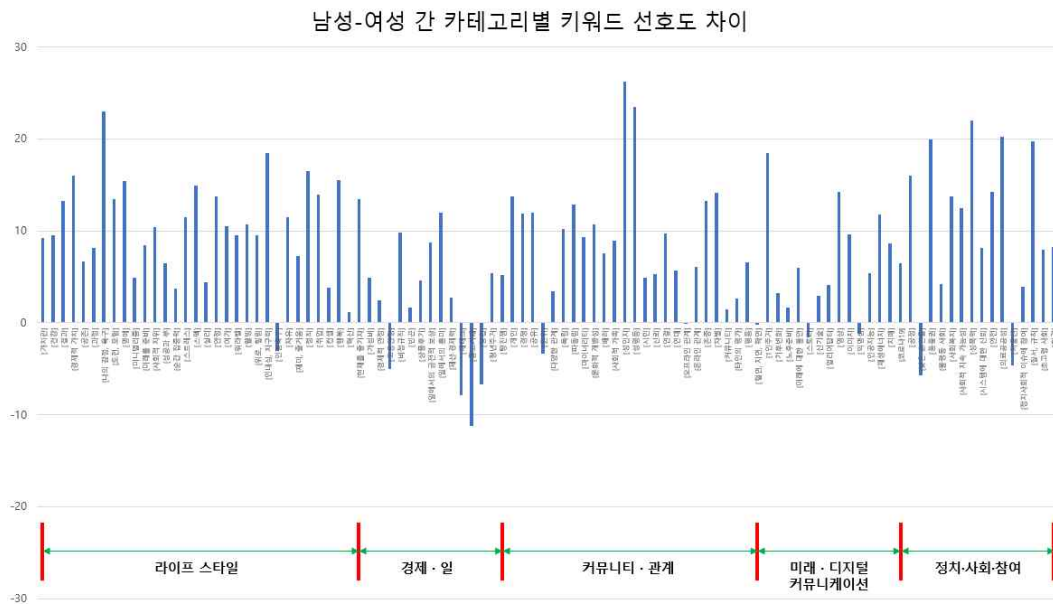
유사성이 낮음(선호가 넓게 퍼져 있음)을 의미함.

- 다시 말해서 100개 문항설문 결과에 대해, 여성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여성이 보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보다 균질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본 설문의 특성상 100개 항목 중에 평균값과 중위수에 해당되는 항목, 예를 들어서 남성은 155점을 받는 문항(취업/결과/독립)이, 그리고 여성은 164점을 받은 문항(커뮤니티/다양한 관계/실리/사회적 지속 가능성/인내심·지구력/노후준비/재산·경제력)이 각각 두 세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없음.

○ 남성-여성간 카테고리별 키워드 선호도의 차이

- 아래의 그래프는 남성과 여성의 인원수를 43이라는 가상값으로 통일한 상태에서, 각각 부여한 키워드별 선호도의 상호 차이값을 그래프화한 것임. 그래프의 높이가 높을수록 해당 키워드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선호도 격차가 크다는 뜻이며, 본 연구에서는 5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키워드를, '남성과 여성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일 것임.



[그림 4-6] 남성-여성간 카테고리별 키워드 선호도 차이(n=43)

- 그래프가 위의 방향으로 솟아로는 것은 여성의 의제 선호도가 남성보다 높은 것을 나타내며, 반대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은 남성의 의제 선호도가 여성보다 높은 것을 뜻함.

2) 남성-여성간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상위 1/3 키워드)

전체 100개 항목에 대해서, 각 그룹(상위1/3, 중위1/3, 하위1/3)별로 30대와 20대가 공통키워드로 평가한 것과, 개별키워드로 평가한 것을 정리. 아래는 상위 1/3에 해당하는 키워드 34위에 대한 표임.

[표 4-13] 남성과 여성이 선정한 개별 키워드와 공통 키워드(상위 1/3)

항목	구분	남성	여성
라이프 스타일	공통	건강, 여가, 행복, 워라벨, 재미·즐거움, 안정, 자유, 가치관, 미래를 준비, 위로·힐링, 경제적 가치, 웰빙	
	개별	인정욕구, 성공과 부, 실리	나의 감정·욕구, 현재를 즐기자, 취업, 결과
경제/일	공통	경제적 안정,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개별	고용 안정, 재테크	-
커뮤니티 /관계	공통	신뢰, 평등, 배려, 존중	
	개별	커뮤니티, 오프라인 관계, 다양한 관계	성평등, 성인지, 공유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공통	재생에너지	
	개별	신기술, 기후변화, 노후준비, 미래에 대한 불안, 스토리	영상
정치/사회/참여	공통	환경, 안전, 질서·규칙	
	개별	-	성폭력, 의료공공성, 사회복지, 공정

○ 라이프스타일

- 남녀가 모두 상위권으로 대답한 키워드는 건강, 여가, 행복, 워라벨, 재미·즐거움, 안정, 자유, 가치관, 미래를 준비, 위로·힐링, 경제적 가치, 웰빙으로, 남녀 모두가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남성의 경우 인정욕구, 성공과 부, 실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욕구, 현재를 즐기자, 취업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정욕구(남성 16위, 163점 / 여성 64위, 212점)나 나의 감정·욕구(남성 69위, 149점 / 여성 21위, 228점)처럼 남녀간의 괴리가 큰 항목도 존재함.
- 설문에 응한 남성 43명 중 30대에 속하는, 즉 병역을 마쳤을 확률이 높은 연령대는 29명(67.4%)였던 반면, 여성 57명 중 동일연령대에 속하는 응답자는 30명(52.6%)였음.
- 남녀간 평균 연령차이 및 군필여부가 응답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함.

○ 경제/일

- 경제적 안정,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는 두 성별 모두 상당 부분 중요시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의 경우 남성(14위, 164점)과 여성(19위, 229점)의 차이가 특히 적었음.
- 남성의 경우 고용안정(6위, 168점)과 재테크(14위, 164점)를 특히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들의 경우 이들 두 키워드가 상위 랭킹에 포함되지 않음. 이 또한 앞서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에서 그러하였듯 남성과 여성 집단의 연령 및 군복무 이후 사회경험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이 항목만을 보고 여성 청년들은 재테크와 같은 자금관리 수완 향상 욕구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선부른 결정이며, 피설문자 집단의 연령과 직업경력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커뮤니티/관계

- 신뢰, 평등, 배려, 존중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두 성별 모두가 이들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남녀간 응답차이가 가장 큰 평등(남성 2위, 170점 / 여성 9위, 234점)도 순위상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음.
- 남성의 경우 커뮤니티(16위, 163점), 오프라인 관계(16위, 163점), 다양한 관계(26위, 161점) 등 사교적 측면의 키워드를 적극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성들은 성평등(17위, 230점), 성인지(22위, 227점)처럼 이성을 만날 때에도 동등하면서 합리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집을 강하게 드러내었음.
- 여성 피설문자들이 공유(30위, 224점)에 대하여 높은 관심도를 보였던 것은, 연령과 사회경력이 적으면서 당면한 경제력도 부족한 대다수 여성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소비생활을 선택한다는 증거로 여겨짐.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 남녀 모두로부터 상위권으로 받아들여진 키워드는 재생에너지가 유일함. 남성(26위, 161점)과 여성(19위, 229점)의 순위상 차이도 크지 않아 남녀를 불문하고 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남성의 경우 신기술(16위, 163점), 기후변화(21위, 162점), 노후준비(21위, 162점), 미래에 대한 불안(31위, 160점), 스토리(31위, 160점) 등 폭넓은 범위의 키워드들을 상위권으로 올려 놓았으나, 여성의 개별 상위 키워드는 영상(33위, 223점)이 전부였음.

○ 정치/사회/참여

- 환경(남성 12위, 166점 / 여성 14위, 231점), 안전(남성 16위, 163점 / 여성 7위, 235점), 질서·규칙(남성 34위, 159점 / 여성 5위, 237점)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상위권으로 대답함.
- 다만 질서·규칙의 경우 같은 상위권이라도 중요도에 대한 남녀간 인식격차가 크며, 안전에 대한 인식에도 다소의 차이가 확인됨. 생활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경향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짐.
- 각 성별의 개별 키워드는 여성의 경우에만 확인되었으며, 성폭력(12위, 232점), 의료공공성(14위, 231점), 사회복지(28위, 225점), 공정(30위, 224점)이 이에 해당함.
- 성폭력이 상위권에 올라간 것은 앞서 성평등, 성인자가 상위권에 올라갔던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음.

3) 남성-여성간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중위 1/3 키워드)

[표 4-14] 남성과 여성이 선정한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중위 1/3)

항목	구분	남성	여성
라이프스타일	공통	스트레스, 정직, 순간 집중력, 공존	
	개별	현재를 즐기자, 취업, 결과, 혁신	성공과 부, 실리, 인내심·지구력, 스펙, 도전·모험, 인정욕구
경제/일	공통	가성비, 일에서의 흥미,	
	개별	청년주거	재산·경제력, 고용 안정
커뮤니티/관계	공통	시민, 연결, 개인, 연결, 문화적 개방성, 독립, 사회적 가족	
	개별	연대, 권위	커뮤니티, 다양한 관계, 오프라인 관계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공통	코로나19	
	개별	영상, 인공지능	1인주거, 신기술, 미래에 대한 불안, 기후변화, 노후준비
정치/사회/참여	공통	불평등 사회,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별	사회복지, 의료공공성, 성폭력, 공정,	-

○ 라이프스타일

- 스트레스라는 키워드 자체는 중위권의 키워드를 기록하는 데에 그쳤으나, 여성(35위, 222점)의 경우 남성(44위, 156점)보다 이를 더욱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성평등과 성폭력 등, 여성들이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불평등 요소들이 이러한 반응에 일조한 것으로 사료됨.
- 정직에 대한 중요도 또한 같은 중위권임에도 여성(35위, 222점)이 남성(65위, 151점)보다 훨씬 높은 중요도를 기록함. 상위 1/3 키워드 중에서도 여성이 공정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했던 것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명문화되고 불가역적인 공정·공평 원칙을 바라는 마음이 여성에게서 보다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남성의 경우 공존(52위, 154점)에 부여한 중요도 순위가 여성(62위, 213점)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성별간 혹은 계층간의 분쟁 없이 어울리는 것을 중시하고는 있으나 그 속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떨어져 보이는 인상을 줌. 결국 ‘공존’과 ‘공정’을 한 그릇에 담아낼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향후 청년 간의 분쟁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이밖에도 남녀 개별 응답 결과로는, 남성의 경우 현재를 즐기자, 취업, 결과, 혁신에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부여하였고, 여성들은 성공과 부, 실리, 인내심·지구력, 스펙, 도전·모험, 인정욕구에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음.

○ 경제/일

- 이 항목에서는 가성비와 일에서의 흥미 이외에는 각 성별마다 중요시하는 키워드들이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확인됨.
- 남성이 청년주거에 대하여 부여한 중간 정도의 중요도(56위, 153점)는 여성(67위, 210)에 비하여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직장 등의 이유로 독립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 피설문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여성의 경우 재산·경제력(52위, 217점)과 고용안정(54위, 216점)에 대하여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부여함. 남성과 똑같이 상위 1/3의 중요도를 부여했던 경제적 안정(24위, 226점)과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19위, 229점)에서도 남성에 비해 다소 그 점수가 낮았는데, 종합해 보면 역시 여성 피설문자들의 평균 연령이 낮은 것이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됨.

○ 커뮤니티/관계

- 시민, 연결, 문화적 개방성, 개인, 연결, 문화적 개방성, 독립, 사회적 가족 키워드에 대해서는 두 세대가 모두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부여하였음.
- 남성의 경우 연대(61위, 152점)와 권위(61위, 152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부여하였으나 그중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를 기록함. 두 키워드에 대한 중요도를 모두 하위권으로 분류한 여성의 응답결과와도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아, 두 성별 모두 연대와 권위에 대한 의식이 낮다고 판단됨.
- 여성의 경우 커뮤니티(47위, 218점), 다양한 관계(47위, 218점), 오프라인 관계(54위, 216점)에 대하여 중간 수준의 중요도를 부여하였음. 이는 관계를 중시한다는 대답이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했던 남성 피설문자들과 상반되는 내용이며, 교우관계를 비롯한 각종 인적 교류 문제로 학교생활에까지 지장을 받는다는 10대 여학생들의 경향과도 크게 다르게 나타남.
- 즉, 설문에 참여한 여성들은 각종 형태의 교우관계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지는 않으나, 타인과의 관계보다 개인 자신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음.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 코로나19 키워드에 대해서는 남성(48위, 155점)과 여성(60위, 214점)이 모두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부여함. 성별 간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며,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작된 11월 이후부터는 해당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가 남녀 모두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정치/사회/참여

- 두 세대 모두 시스템에 대한 신뢰, 사회적 지속가능성, 불평등 사회에 대해 중위의 평가함.
- 20대가 질서·규칙을 상위로 평가한 반면에 30대는 중위로 평가함.
- 동물권과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는 20대가 중위로 평가한 반면에 30대는 동일 항목을 하위로 평가함.

4) 남성-여성간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하위 1/3 키워드)

[표 4-15] 남성과 여성이 선정한 개별키워드와 공통키워드(하위 1/3)

항목	구분	남성	여성
라이프 스타일	공통	과정, 명예, 사회적 지위, 미니멀리즘, 컨셉	
	개별	도전·모험, 나의 감정·욕구, 스펙, 인내심·지구력	혁신
경제/일	공통	중고거래, 빈곤, 상품 후기, 창업, 비정규직, 탕진잼	
	개별	-	청년주거, 재테크
커뮤니티 /관계	공통	타인의 평가, 경쟁, 따돌림, 차별, 온라인 관계, 마이너리티, 혈연·지연·학연	
	개별	성평등, 성인지	연대, 권위
미래/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공통	이미지, 얼리아답터, 익명성, 치매	
	개별	-	스토리, 인공지능
정치/사회 /참여	공통	초고령사회, 동물권,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출산, 낮은 혼인율	
	개별	-	-

○ 라이프스타일

- 과정, 명예, 사회적 지위, 미니멀리즘, 컨셉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낮은 중요도를 부여함.
- 남성 세대에서 도전·모험에 대한 중요도가 낮게 측정된 것은 의외로 비춰질 수 있으나, 그 배경에는 응답한 남성들의 연령이 여성들에 비해 높았으며 군필자도 많았던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임. 자기감정과 욕구에 대한 중요도가 낮게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임.
- 또한 인내심과 지구력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매긴 것은, 기업 등에서 과거와 같이 강압과 극기 강조로 점철된 OJT나 HR연수가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줌. 물론 직장 안에서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나 직장폭력·갑질(power harassment)과 같은 행태도 똑같은 문제를 부를 것임.
- 참고로 이 항목에 대하여 여성들이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 피설문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남성들보다 낮고 취업 경력에도 그만큼의 제한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며, 여성이나 남성이나 힘든 것은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보지 않는 조직의 상급자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을 것임을 인정해야 하겠음.
- 여성 피설문자들은 혁신에 대한 중요도를 남성보다 낮게 평가함. 다만 남성들도 같은 키워드에 대해 중위권 이상의 점수를 주지는 않았고, 세대 기준에서 보았을 때도 전반적으로 호응이 적었음. 혁신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정서가 청년세대 사이에 더 많이 퍼져 있으며, 여성은 그 경향이 조금 더 짙을 뿐이라고 판단됨.

○ 경제/일

- 중고거래, 빈곤, 상품 후기, 창업, 비정규직, 탕진잼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낮은 중요도를 부여함.
- 중고거래에 대해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부정적 정서가 강했으나, 이후 실시한 FGI 조사 결과 남성의 경우 사기 피해 등으로 가성비에서 오히려 손실을 볼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확인된 반면, 여성의 경우 직거래 중에 만나게 될 각종 위험요소나, 중고로 매각한 휴대폰의 개인정보 누출 등, 개인 안전의 문제상 중고거래를 꺼리는 응답이 확인됨.
- 개별 응답의 경우 여성이 청년주거에 대해 낮은 중요도를 부여한 것이 전부임. 동일 키워드에 대해 남성이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그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음. 다만 1인주거에 대해서는 여성이 같은 중위권 안에서도 높은 중요도를 부여했음.

○ 커뮤니티/관계

- 타인의 평가, 경쟁, 따돌림, 차별, 온라인 관계, 마이너리티, 혈연·지연·학연에 대해 남녀 모두 낮은 중요도를 부여함. 남녀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개인주의 풍토가 짙게 깔려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남성의 경우 성평등과 성인지, 여성의 경우 연대와 권위에 낮은 중요도를 부여함. 이 또한 남녀 피설문자간의 연령차이에서 기인하는 응답결과로 보여짐.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 이미지, 얼리아답터, 익명성, 치매 등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낮은 중요도를 부여함.
- 여성들의 경우 인공지능과 스토리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매기고 있음. 스토리의 경우 남성이 스토리에 대해 상위 수준의 중요도를 매긴 것과 정확히 대비되는데, 반대로 여성이 영상에 대한 중요도를 남성보다 높게 평가했던 것과 함께 생각해 보면, 남성 청년들은 내러티브, 여성 청년들은 비주얼을 통한 의사 전달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결과로 나타남.

○ 정치/사회/참여

- 초고령사회, 동물권,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출산, 낮은 혼인율에 대해서 남녀 모두 낮은 중요도를 부여하였음.
- 동물권의 경우 남녀 피설문자 모두 '매스컴이 지어내 보여주는 이야기', '키우는 입장이 아니라서 외당지 않는 다'와 같이 타자화하는 반응을 드러냄.

5_2차 설문조사 결과: 각 성별/연령대별 응답자 인물상 비교 분석

-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100명 중, 지원자 61명(남성 19명, 여성 42명)을 대상으로 결혼여부, 취업 상태, 현재 거주지, 자가주택 보유 여부, 거주 주택의 방 개수, 1인거주 여부, 부엌/화장실/세면대 공용여부, 정규직/계약직/무직 여부, 구직활동 여부, 자녀부양여부,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여부, 병역여부를 추가 조사하였음.
- 본 설문조사를 위해 사용한 홍보수단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이었으며, 이들 두 SNS플랫폼은 한국의 20대~30대 SNS 사용자 점유율에서 전부 상위 3위권에 들어가 있음(DMC리포트 “2021 소셜 미디어 시장 및 현황 분석 보고서”, 2021).
- 상기 보고서에서 상위 3위권에 함께 등재된 네이버 BAND의 경우, 동아리나 친목회와 같은 조직 구성원의 교우관계에 특화된 SNS라는 점에서, 오픈된 환경에서 진행되는 웹 설문조사에는 적합하지 않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추가설문조사 결과 테이블)

- 한국 남녀별 SNS 월별 실질접속자수(Monthly Active Users)를 확인한 결과, 남성의 경우 20대에 인스타그램(1위)과 페이스북(2위)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0대에 들어 각각 2위와 4위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App Ape, 2020).
- 반면 여성의 경우 20대와 30대 모두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부동의 1위를 보여주었고, 페이스북은 상위 5위권에도 들어가지 못했음. 이번 추가 설문조사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참가자가 더욱 많았던 것은 이러한 현실을 표상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4-16] 추가설문 대상자들의 성별구성비 및 생년구성비

출생연도	남성	여성
1982~1985(39세~36세)	2	3
1986~1990(35세~31세)	7	11
1991~1995(30세~26세)	6	13
1996~2000(25세~21세)	4	10
2001년 이후(20세 이하)	-	5
총계	19	42

- 연령별 혼인자들의 구성비를 확인한 결과, 남성은 1991~1995년생(30세~26세) 계층과 1986~1990년생(35세~31세) 계층에서 미혼자 수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여성은 1991~1995년생(30세~26세)과 1996~2000년생(25세~21세)의 미혼자 수가 눈에 띈다. 본 설문조사에 응한 1996~2000년생(25세~21세) 전원이 대학·전문대학생임을 감안하면, 대덕구 남성의 경우 사회에 진출하여 3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을 위한 제반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들도 30대가 되기까지는 동일한 상황인 것으로 추산됨.

[표 4-17] 추가설문 대상자들의 기혼/미혼 여부

출생연도	남성(기혼)	남성(미혼)	여성(기혼)	여성(미혼)
1982~1985(39세~36세)	2	-	1	2
1986~1990(35세~31세)	2	5	7	4
1991~1995(30세~26세)	-	6	2	11
1996~2000(25세~21세)	-	4	-	10
2001년 이후(20세 이하)	-	-	-	5
총계	4	15	10	32

○ 자기명의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1986~1990년생(35세~31세) 남성의 자기명의주택 보유율이 7명 중 1명꼴(14.2%)에 불과, 같은 구성집단의 낮은 기혼율(11.7%)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여성의 경우 1982~1985년생(39세~36세) 집단에 이르기까지 자기명의주택 보유 자체가 매우 미미하나, 1986~1990년생(35세~31세) 집단에 이르러 혼인율이 높아지는 것(63.6%)을 보면, 남성이 집을 장만하고 여성이 혼수를 준비하는 젠더 역할의 고정관념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음.

[표 4-18] 추가설문 대상자들의 자기명의주택 보유 여부

출생연도	남성(보유)	남성(미보유)	여성(보유)	여성(미보유)
1982~1985(39세~36세)	1	1	2	1
1986~1990(35세~31세)	1	6	-	11
1991~1995(30세~26세)	-	6	1	12
1996~2000(25세~21세)	-	4	1	9
2001년 이후(20세 이하)	-	-	-	5
총계	2	17	4	38

○ 기혼자로서 자기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남녀 청년의 현황은 다음과 같았음. 1986~1990년생(35세~31세) 여성이 결혼하여도 (공동명의 포함) 자기 명의의 주택을 갖는 이행률은 그리 높지 않으며, 남녀 공히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자기명의주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으로 예상됨.

[표 4-19] 기혼 남녀 청년들의 자기명의주택 보유 여부

출생연도	기혼남성 (보유)	기혼남성 (미보유)	기혼여성 (보유)	기혼여성 (미보유)
1982~1985(39세~36세)	1	1	2	-
1986~1990(35세~31세)	-	2	-	7
1991~1995(30세~26세)	-	-	1	1
1996~2000(25세~21세)	-	-	-	-
2001년 이후(20세 이하)	-	-	-	-
총계	1	3	3	8

○ 자가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피설문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시설을 통해 생활수준을 확인하는 시도도 이루어졌음. 먼저 “현재 거주하시는 집의 방은 몇 칸인가요?”라는 응답에 대하여, 각 세대의 대답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음.

- 남성의 경우 31~35세에까지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으며, 학업 이후 직업상 관계로 독신 거주중일 가능성이 높음.
- 여성의 경우 직업·학업상 관계로 원룸에 거주하는 계층이 1996~2000년생(25세~21세)와 1991~1995년생(30세~26세)에까지 폭넓게 존재하나, 이들 연령층에서 독신으로 2칸짜리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인원을 4명 확인함. 이들 3명 중 무직이 아닌 사람은 대화동에 거주하는 29세 미혼 여성(정규직 마케팅) 1명뿐이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무직인 3명(33세 2명 취업준비중, 24세 1명 학생)도 원룸보다 생활 조건이 우량한 2칸짜리 주택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뜻이 됨.
- 3칸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높는데, 이들 주택을 자기명의로 보유하면서 독신으로 거주중인 사람은 남녀 공히 1982~1985년생(총 3명)이었음. 그 이하 연령대의 3칸 이상 주택 거주자는 모두 자가소유 상태가 아니었으며, 전월세 혹은 부부·가족과의 동거 형태로 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표 4-20] 추가설문 대상자들의 거주 주택 방 개수 집계

출생연도	남성			여성		
	1칸	2칸	3칸이상	1칸	2칸	3칸이상
1982~1985(39세~36세)	-	1	1	-	1	2
1986~1990(35세~31세)	2	1	3	-	6	5
1991~1995(30세~26세)	2	2	2	3	5	5
1996~2000(25세~21세)	4	-	-	1	-	6
2001년 이후(20세 이하)	-	-	-	-	-	5
총계	8	4	6	4	12	23

- 각 성별·세대별 취업현황 조사 차원에서 정규직·계약직·무직(학생, 아르바이트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았음. 남녀 모두 1986~1990년생(35세~31세)의 무직자 수가 많아, 결혼을 해야 할 나이의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난점이 관측됨.

[표 4-21] 성별·세대별 정규직/계약직/무직 현황

출생연도	남성			여성		
	정규직	계약직	무직	정규직	계약직	무직
1982~1985(39세~36세)	2	-	-	2	1	-
1986~1990(35세~31세)	3	-	4	4	2	5
1991~1995(30세~26세)	3	2	1	7	4	2
1996~2000(25세~21세)	2	-	2	1	1	8
2001년 이후(20세 이하)	-	-	-	-	-	5
총계	10	2	7	14	8	20

- 취업자들의 업종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았음.

- 남녀 정규직·계약직 합계로 집계시 전체적으로 보건업·사회복지(6)와 숙박·음식점업(4), 도매·소매업(3),

제조업(3)의 순으로 확인되며, 전반적으로 3차 산업에 치중된 산업구조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중임.

- 보건업·사회복지(6)와 숙박·음식점업(4)의 종사자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 인력풀을 활용한 생태관광 혹은 무장애관광(Barrier-Free Tourism)과 연계한 관광업을 기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표 4-22] 성별·세대별 취업 업종 현황

출생연도		남성	여성
1982~1985 (39세~36세)	정규직	제조업(1), ※무응답(1)	교육업, 제조업(각 1)
	계약직	-	제조업(1)
1986~1990 (35세~31세)	정규직	보건업·사회복지(2) 숙박·음식점업(1)	보건업·사회복지, 행정 (각 1), ※무응답(2)
	계약직	-	도매·소매업, 교육업(각 1)
1991~1995 (30세~26세)	정규직	제조업(1), 도매·소매업(1) IT(1)	보건업·사회복지(2), 숙박·음식점업, 마케팅, 제조업(각 1), ※무응답(2)
	계약직	보건업 및 사회복지(1) 공무원(1)	숙박·음식점업, 프리랜서, 프로그래머(각 1), ※무응답(1)
1996~2000 (25세~21세)	정규직	운수·창고업(1)	도매·소매업(1)
	계약직	-	숙박·음식점업(1)
2001년~ (20세 이하)	정규직	-	-
	계약직	-	-
최다취업직종		보건업·사회복지(3)	보건업·사회복지(3) 숙박·음식점업(3) 교육(2), 제조업(2) 도매·소매업(2)

- 계약직 노동자·무직자에게 정규직 취업을 위한 구직이나 기타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본 2차 설문조사에서 여성 설문자의 숫자가 남성보다 실질 2배에 가까운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여 정규직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됨.

[표 4-23] 계약직 노동자·무직자들의 정규직 취업을 위한 구직이나 기타 활동 시행 여부 조사

출생연도	남성(계약직·무직)		여성(계약직·무직)	
	활동중	활동하지 않음	활동중	활동하지 않음
1982~1985(39세~36세)	-	-	1	
1986~1990(35세~31세)	4	5	4	2*
1991~1995(30세~26세)	-	-	4	2
1996~2000(25세~21세)			6	4
2001년 이후(20세 이하)			3	2
총계	4	5	18	10*

* : 무응답 1명 미산입

○ 현재 학생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직 취업을 위한 구직이나 기타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왔음.

- 여성층에서 ‘구직활동 및 준비과정 자체에 권태감·회의감을 느껴서’라는 응답이 3건이나 나와, 여성 청년들의 정규직 구직의욕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으며, 이들이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됨.
- 마찬가지로 여성층에서 ‘원하는 직종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4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성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창업을 위해 (남성, 1986년생, 무직)
 -자신 및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남성, 1989년생, 무직)
 -지금의 직장에 만족해서 (남성, 1992년생, 시간제공무원)
 -원하는 직종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여성, 1988년생, 무직)
 -원하는 직종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여성, 1988년생, 교육업)
 -자신 및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여성, 1989년생, 무직)
 -구직활동 및 준비과정 자체에 권태감·회의감을 느껴서 (여성, 1991년생, 숙박·음식점업)
 -원하는 직종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여성, 1993년생, 무직)
 -현 사회시스템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곤 정규직과 똑같아서 (여성, 1995년생, 프로그래머)
 -구직활동 및 준비과정 자체에 권태감·회의감을 느껴서 (여성, 1996년생, 무직)
 -구직활동 및 준비과정 자체에 권태감·회의감을 느껴서 (여성, 1998년생, 무직)
 -원하는 직종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여성, 1998년생, 무직)

○ 대덕구 내의 1인 청년가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남성은 1인가구와 동거가구의 비율이 비슷하나, 여성은 동거가구 거주자가 1인가구의 3배에 달하며 30세 이전, 즉 결혼을 검토하기 이전의 연령에서도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경향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바로 위에서 보았듯, 안정성과 본인의 희망에 부합하는 직장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성 구직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성의 자립된 생활 또한 실현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4-24] 대덕구 내 1인 청년가구 현황

출생연도	남성		여성	
	1인가구	동거가구	1인가구	동거가구
1982~1985(39세~36세)	-	2	1	2
1986~1990(35세~31세)	3	4	2	9
1991~1995(30세~26세)	2	4	4	9
1996~2000(25세~21세)	4	-	4	6
2001년 이후(20세 이하)	-	-	-	5
총계	9	10	11	31

○ 자녀 부양 유무와 해당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 현황을 확인하는 문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음.

- 남녀 공히 ‘초보 부모’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나, 자녀가 초등학생에 재학하기 시작할 때의 모친의 나이가 1982~1985년생(39세~36세)라는 것은, 부친의 나이가 40대일 가능성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될 것임.
- 40대의 고용률이 특히 좋지 않은 한국 내수시장 전반의 상황(중앙일보, 2020.11.22.)을 고려하면, ‘초보 부모’들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 40대 부친과 30대 모친 중 최소한 한 쪽은 고용에 있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표 4-25] 자녀 부양 유무 및 해당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 유무

출생연도	남성		여성	
	자녀유무	초등학교재학	자녀유무	초등학교재학
1982~1985(39세~36세)	1	-	2	2
1986~1990(35세~31세)	1	-	3	0
1991~1995(30세~26세)	-	-	-	-
1996~2000(25세~21세)	-	-	-	-
2001년 이후(20세 이하)	-	-	-	-
총계	2	-	5	2

○ 이밖에도 남성 피설문자 19명을 대상으로, 병역수행의 유무가 경제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병역수행(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모두 포함)의 유무를 조사했으나, 1989년생(무직, 지병으로 인한 면제) 피설문자 1명을 제외한 모든 설문자가 병역을 마친 것으로 확인,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지는 못했음.

○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각 청년들의 거주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음(행정동 기준 / 법동은 1-2동 통합).

[표 4-26] 행정동별 남녀 설문조사 참여 청년 분포

출생연도	남성					여성				
	1982~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	1982~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
대화동		1					2	2		
덕암동			1	1			3		1	
목상동							1	1		
법1·2동	1					1	3	3	1	
비래동		1	1					2		1
석봉동		2						3		
송촌동						1		1	2	2
신탄진동		1	1					1	1	
오정동			2	1		1	1	1	4	
중리동	1	1	1	1					1	2
회덕동				2					1	

[표 4-27] 교육과정별 청년세대 특징

분류		청년세대			
		35세~39세	29세~34세	24세~28세	18세~23세
출생연도		1982~1986	1987~1991	1992~1996	1997~2001
교육과정	초등	5차~6차	6차~7차	7차	7차 및 이후 개정
	중등	6차~7차	7차	7차 및 이후 개정	7차 이후 개정
	고등	7차	7차	7차 및 이후 개정	7차 이후 개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재된 환경 ·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인터넷 검색 포털을 이용 · 다른 나라 문화나 다른 인종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 포용력이 높고, 지적 수준과 도전정신이 높은 편 - 입시 경쟁률 가장 치열한 시기에 학창 시절 · 경쟁, 도전에 익숙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감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선호하는 세대 · 자기계발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 · 트렌드에도 민감해 쇼핑을 즐기고, 소비력도 왕성한 편 - 실속파 · 평소에는 실족을 행기다 때때로 과감히 소비 · 직업적 안정성 중시 · 교육과 피드백을 통한 성장에 대한 관심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보다 현재를 더 중시하는 세대 · 취향과 경험 소비를 중시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아낌없이 돈을 씀 · 율로족, 카푸어 등 현재 자신을 꾸미고 자신에 대한 보상심리로 소비하는 새로운 형태 · 취업 관문이 더 좁고, 워라벨 더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접한 세대 · IT기술에 익숙하여, 사교생활에 SNS 자유롭게 사용 · 문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 역할을 모두 수행 ·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 개인주의 선호 세대 ·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 성 정체성, 인종, 국적 문제에 관대함 · 기업의 환경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세대

[표 4-28] 교육과정별 특징

분류	5차 (1987년 7월~1992년 9월)	6차 (1992년 10월~1996년 12월)	7차 (1997년 1월~2009년 2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중심교육 · 과외금지조치 해제 ·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 증가 · 6·25전쟁/반공 주제 읽기 제재 · 한 과목을 여러 교과서로 배움 · 교육과정 통합 ex) 바른생활(도덕+사회) 등 · 기술·가정교과 새로 신설 (1991년부터 남녀구분없이) · 교련 교과서 편찬 주체가 국방에서 교육부로 변경되었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에 교련 교과의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안보교육을 제외한 군사훈련부분을 삭제하고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1994년부터 모든 고등학생에게 일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미래상을 위한 교육 · 국민학교 → 초등학교 · 학력고사 → 대학수학능력시험 · 지방 교육자치 부활 - 지역/학교별 교육과정 도입 (초등학교 1학년이 3월 한 달 동안 배우는 교과의 교육과정을 전국 각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자율로 구성, 초등학교에 학교재량시간을 주당 1시간 씩, 중학교에 주당 3시간 씩 선택 교과(한문, 환경 등)를 편성) · 교과 순서가 도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로 바뀜, 도덕 교과에서 반공과 안보 관련 내용을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중심교육 · 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설정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 동안 모든 학교에서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후 2년간의 선택중심교육기간에는 선택교과를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국어과에는 보충 · 심화형을, 수학과와 외국어과에는 단계형 교육과정을 채택해 수업할 수 있도록 함. · 2004학년도부터 부분적으로 주5일 수업제 도입, 2005학년도부터 매월 4번째 토요일 월1회 도입, 2006학년도부터 매월 2, 4번째 토요일 월2회

※ 7차 교육과정을 마지막으로 8차 교육과정처럼 교육과정을 전면적 또는 일률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수시로 부분적 개정하기로 함

6_소결 : 30대와 20대, 남성과 여성은 각각 다른 청년이다

1) 30대와 20대의 차이

○ 다시 말하지만, 본 연구의 모두부분에서 소위 'MZ세대'라는 구분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했던 이유는, 각각 30대와 20대로 상정되는 두 집단을 하나로 묶어 서술하는 대중매체 및 언론사들의 태도에 대하여, 다름아닌 'MZ세대'에 해당하는 연령의 집단들 중에서 거부감을 드러내는 여론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지나치게 광범위한 단위의 그룹화는 그 속의 상호이질적 집단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들이 같은 현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현실을 간과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 특히 “이전에 '90년생이 온다'로 인해 하나로 묶인 90년대 초반생과 후반생을 보는 것 같달까”(경남신문, 2021.11.23)라는 한 29대 직장인의 'MZ세대' 그룹화에 대한 냉랭한 시선은, 같은 청년층이라도 최소한 30대와 20대의 구분은 분명히 해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우선, 30대와 20대가 상위 의제로 선정한 키워드를 먼저 살펴보면, 두 세대 모두 행복, 건강, 안정, 워라벨을 비롯하여 당장 현재의 라이프스타일에 안락감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중요히 생각하고 있음.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미래와 현재를 다함께 고려하는 태도에서도 두 세대는 공통된 인식을 보임. 경제관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큰 인식 차이는 보이지 않았음.
- 그러나 행복이나 안정, 자유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30대와 20대 간의 인식차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30대가 위로·힐링, 웰빙, 자신의 감정·육구 등 ‘정성적’인 요소가 강한 의제를 중시했던 것과 달리, 20대는 성공과 부, 취업, 결과, 스펙 등 ‘정량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오프라인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나 젠더 관련 제반 화두에 대한 인식은 30대와 20대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드러나 있어, 두 세대가 상호 교감하는 데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차적.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확충할 수 있는 지방행정 차원의 묘안을 고려해볼 만 함.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의제에서도 30대와 20대는 큰 인식차이를 보이는데, 흥미롭게도 20대 쪽이 노후준비 및 미래에 대한 불안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였음. 한국인 10명 중 6명이 자식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라고 비판한다는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8월 21일 조사결과(한국경제, 2021.8.6)에 이들 세대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데, 아무래도 아직 학생신분이고 자기재산이 충분치 않은 20대가 더욱 큰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사료됨. 미래에 대한 20대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의 고용 및 진로개발, 사회 안전 관련 정책들이 요구되는 바임.
- 공정에 대한 인식도 30대와 20대간의 이견차가 크게 나타났으나, 질서·규칙이라는 보다 큰 단위의 화두에 대해서는 두 세대가 비슷하게 상위의 주요도를 부여했음. 지역의 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규칙을 만들더라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근거 설명과 함께 그것이 모두에게 공정한 처우임을 인식시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함.
-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한 의제로 생각한다는 대답은 30대와 20대 공히 중위권의 순위를 기록했으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받기도 하는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가 인원부족 없이 4년간 이어지고 있는 것은, 청년에 관련된 지방의 각종 정책에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높이려는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반증임.
- 대전의 청년들은 비단 평범한 청년들의 일자리만이 아니라 예술·인문계 졸업생에 특화된 일자리 정책의 요구, 전세 관련 피해를 입은 청년들에 대한 구제정책 요구,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을 대전에 붙잡아놓기 위한 정책의 요구(충청신문, 2021.9.13)와 같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청년정책 요구를 보내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단순히 법정·비법정 위원회에 청년들의 자리를 더 확보해 주는 것을 넘어, 청년정책 그 자체에 대한 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지역 진흥사업의 확대나 지원 프로그램의 개편이 필요해 보임.

2) 남성과 여성의 차이

- 남성과 여성 청년은 일부 키워드 선호도의 분포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성평등 문제에 있어서는 여성이 훨씬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성폭력의 경우 남성(n=43 기준 56위, 153점)과 여성(n=43 기준 12위, 175점)으로 순위차 52를 기록, 본 조사에서 확인된 이질집단간 순위격차로서는 가장 큰 차이를 보였음.
- 남성의 경우 인정욕구, 성공과 부, 실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욕구, 현재를 즐기자, 취업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보다 남성이 더욱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인생설계에 임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 장기적인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점에서 빠르게 만족시켜야 할 요소가 엄연히 존재함. 그러한 뜻에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중시하는 대상의 차이, 즉 가치관의 차이에 우열을 정하는 것은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님.
- 건강, 여가, 행복, 워라벨, 재미·즐거움, 안정, 자유와 같이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중시하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남녀의 인식 차이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음. 신뢰·평등·배려·존중에 대한 중요도를 남녀가 모두 높게 부여했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며, 경제적 안정과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도 남녀 모두가 높은 수준으로 중요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한편, '성공과 부'에 있어서는 남성이 비교적 상위의 중요도를 부여하고 여성은 중위 수준의 중요도를 부여하는 데에 그쳤음. 그러나 남성이 부여한 중요도가 상위권이면서도 그리 높지 않은 20위권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남녀 청년들 사이에서는 일을 함으로써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지향하기보다, 감내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면서 그에 상응한다고 납득할 수 있는 수입을 지향하는 정서가 폭넓게 퍼져 있다고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2차 설문조사의 '성별·세대별 취업 현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대덕구에 거주하는 여성 청년 노동자는 남성에 비하여 정규직 획득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안정된 직장생활'을 추구하는 기회에 대한 젠더간 차별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고용안정'을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한다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적은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낮은 기대치를 드러낸 결과로 보임.

3) 2차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결과

- 2번째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인된 것은 청년층 여성의 노동을 둘러싼 불공정한 조건과 그로 인한 좌절이었음. 우선 계약직·무직 여성들은 빠르게는 20대 초반부터, 늦게는 30대에 들어서도 정규직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구직활동에 남성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보답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두 부족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정규직 취업을 위한 구직이나 교육을 포기한 계약직·무직 청년들 중에서도, 여성의 경우 ‘구직활동 및 준비과정 자체에 권태감·회의감을 느껴서’라는 응답이 3건, ‘원하는 직종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4건이나 나왔으며, 이는 남성 비정규직 청년들이 ‘창업’·‘지병’·‘현재 직장에 만족함’과 같이, 정책적 고려의 여지가 없는 사유로만 대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부정적인 사유들이 많았음.
- 계약직·무직 여성들 중 ‘원하는 직종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라는 이유로 정규직 구직활동을 포기한 케이스는 30대 초반~중반 연령대 여성이 많았으며, ‘구직활동 및 준비과정 자체에 권태감·회의감을 느껴서’라는 이유로 포기한 케이스는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 사회에 본격 진출하지 않은 나이대에서부터 구직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연합뉴스, 2021. 1. 16.)으로 판단됨.
- 이번 조사에서 30대 초반~중반대 연령 중에서 ‘원하는 직종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도출된 한편, 한국의 30대 여성들에 대한 고용률은 50% 후반~60% 초반대에 머무르면서 독일(78.9%)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는 현실도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아웃소싱타임스, 2019. 10. 22.).
- 한편, 해당 인용기사에서는 ‘청년·시니어 일자리만 관심..170만 경단녀 일자리는 아무도 안 챙겨’라는 말로 30~50세 경력단절여성 전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30대는 경단녀이기도 하고 청년이기도 하므로, 이들 계층의 고용을 질적·양적으로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고용 정책의 수립은 ‘청년 여성 고용’과 ‘경단녀 고용’이라는 두 과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지금까지 여성 청년의 직업에 관한 이야기만을 하였으나, 남성도 자기명의주택을 30대가 되어서야 조금씩 갖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결혼을 ‘해내기’ 시작하는 등, 취업을 하더라도 새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재산이 축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한 남성보다도 고용조건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불리한 여성들은 결혼하는 때까지 자기명의주택과 같은 다액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며, 이는 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남녀간 불균형으로 이어져 기존의 저혼인·저출생 문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짐.

- 종합하자면 대덕구 청년들의 결혼을 저해하는 요인은, 오창섭·최성혁(2012)이 전국 시도별 패널자료와 KLIPS(노동패널) 자료 등을 분석하여, 청년 초혼 저하의 3대 원인으로 ①고용불안정 ②주택 마련 곤란 ③실업을 꼽았을 때와 본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초혼의 저하는 곧 자녀 출산의 저하 혹은 지연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저자세의 인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대덕구의 남성 독신 거주자 총원 9명 중에서는, 2칸짜리 주택에 거주하는 1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여성은 11명 중 4명이 2칸짜리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 4명 중 무직 상태인 3명(취업준비중 2명, 학생 1명)은 이들 2칸짜리 주택에 전세·월세의 형태로 기거하고 있었으며, 주거비용을 아끼기 위해 원룸을 선택하기보다 기본적인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의식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보임.

- 물론 대부분의 여성 1인 청년가구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원룸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만약 이들을 대상으로 청년주택공급사업을 벌인다면 양적 기준 중심(원룸 다수)을 택할 것인지, 혹은 질적 기준 중심(2칸 이상 주택 다수)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 보건업·사회복지(6)와 숙박·음식점업(4)의 종사자가 다수인 대덕구의 청년 고용 사정은, 2021년 7월에 발표되었던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뉴딜 일자리 창출 연구”의 내용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일 것임.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전반의 대처 태세가 안정화되면, 이들 업계의 인력풀을 활용한 공정관광 진흥정책도 추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청년 남녀가 각자 노력한 끝에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도, 자식을 양육할 때에는 더욱 많은 부담이 소요될 것은 자명함. 특히 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경우 부모 중 한쪽이 40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큰데, 40대의 고용률이 특히 좋지 않은 한국 내수시장 전반의 상황(중앙일보, 2020.11.22.)을 고려하면, 자녀가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함께 엄습할 위험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저자세 차원의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과 같은 현실적 지원으로, 청년 부모들이 이러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필요가 요구됨.

05. 20개의 질문으로 살펴본 청년세대 가치관의 차이점과 공통점

제5장은 대덕구의 남녀 30대와 20대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그리고 특징적인 결과에 대해, 세대별로 FGI를 한 질문과 답변을 요약정리하였음.

1_30대 vs. 20대: 희망사항과 만족사항

- 대덕구가 추진하는 4대 청년정책(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중 가장 평가가 높았던 것을 묻은 결과, 30대와 20대 모두 '설자리'와 '놀자리'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음.
- 가장 평가가 좋았던 '설자리'에 대해서는 청년들끼리, 혹은 청년과 기존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공간활용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는 응답자도 있었음. 청년병커를 통하여 설자리에 관련된 정보를 다수 접하고 있다는 사례도 제시되어, '설자리'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 자체는 방향성의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판단됨.
- 다만 청년병커를 포함하여 '설자리'를 위한 인프라나 관련 정책의 홍보가 광범위하고 내용을 알기 쉽도록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 또한 1995년생 이후의 경우 '설자리'에 관련된 인프라 및 정책의 개설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눈에 띄었음.
- 평가순위가 가장 낮은 '일자리'의 경우, 이미 취업을 한 30대(1982년~1991년생)조차 지역이 떠안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음.

(FGI Q&A)

2-1. 대덕구가 현재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개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이들 중 현재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1점)에서부터 가장 우수한 것(4점)으로 점수를 기입해 주세요.

1) 일자리 :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점)

- 2) 설자리 : 청년행복 증진을 위한 지원 인프라 조성 및 참여·소통 확대 (점)
- 3) 살자리 : 정주여건 및 양육 환경 개선 (점)
- 4) 놀자리 : 청년 커뮤니티 문화시설 확충 및 활성화 (점)

[표5-1] 30대 연령 FGI 참가자들의 일자리·설자리·살자리·놀자리 우선순위 (참가인원수 6명)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4점 응답	0	2x4명=8	1x4명=4	3x4명=12
3점 응답	2x3명=6	2x3명=6	2x3명=6	0
2점 응답	1x2명=2	1x2명=2	2x2명=4	2x2명=4
1점 응답	3x1명=3	1x1명=1	1x1명=1	1x1명=1
합계점수	11	17	15	17

[표5-2] 20대 연령 FGI 참가자들의 일자리·설자리·살자리·놀자리 우선순위 (참가인원수 17명)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4점 응답	1x4명=4	6x4명=24	1x4명=4	6x4명=24
3점 응답	3x3명=9	4x3명=12	7x3명=21	3x3명=9
2점 응답	5x2명=10	5x2명=10	4x2명=8	4x2명=8
1점 응답	8x1명=8	2x1명=2	5x1명=5	4x1명=4
합계점수	31	48	38	45

2-2. 위의 4개 정책들을 채점한 경위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덕청넷 일자리 분과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느끼는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역량이나 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일자리가 지역에 없는 게 문제 같아요. 청년정책네트워크처럼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채널도 많이 준비한 것은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거주지에 대한 문제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미혼이라서 양육 환경에 대한 체감도 적습니다. 놀 공간은 이미 많이 갖춰져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부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 남성, 30세)

-설자리가 가장 시급해 보여요. 취업을 하려면 지원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한데, 대덕구는 그에 대한 지원이 아예 없는 거 같아요. 살자리는 집값 같은 게 저렴하니까 괜찮아 보이고요, 놀자리는 대전시 전체를 놓고 보면 부족한 편은 아닌 거 같아요.

(김○○, 남성, 21세)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설자리는 우수한 편인 거 같아요. 일자리도 3점 정도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남대가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이랑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놀자리는 2점 정도로 좀 모자르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병커가 생긴 것은 긍정적이지만 외곽지역에서 찾아오기에는 좀 멀어요. 제일 시급한 건 살자리인데, 결혼을 생각하면서 대덕구나 신탄진에서 거주를 할까에 대한 확신이 잘 안 서요. 주거환경이나 보행

환경이 위험한 편이라 빨리 개선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육○○, 여성, 30세)

-보통 대덕구 청년은 준비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취업을 나가고, 여기는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가 많이 적은 거 같아요. 인프라 조성도 부족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도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살자리 문제도 시급한 것이, 대덕구 안에 전입해서 거주하는 청년 자체가 거의 없어요. 친구들 말로는 놀거리도 부족하고 원룸도 찾기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나마 신탄진 같은 곳으로 이동해서 사는 게 대안인 거 같아요. 저도 신탄진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굳혔고요. 문화시설도 확충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순위로 따져 보면 다른 분야보다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육○○, 여성, 24세)

2_30대 vs. 20대: 도시의 노령화

- 대덕구(2020)가 발표한 “대덕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기준 대전의 노령화 지수는 109.9%인 반면, 대덕구는 144.0%로 대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었음.
- 한남대학교와 산업단지 등을 보유한 도시로써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환경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의 전체 인구 대비 청년층 인구 비율은 19.1%로 하위 수준을 기록함. 그리고 최근 4년간 20대 연령층의 감소 폭이 둔화된 반면, 30대 연령층의 인구 감소는 현저해졌음.
- 대전세종연구원(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3.7%로 전국 평균치(30.2%)를 앞지르고 있음. 이중 청년 1인 가구의 규모는 2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대덕구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시내 5개구 중 중구(22.9%)를 제외하면 가장 낮음(26.1%).
- 상당수가 이미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30대의 경우, 전직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낡고 오래된 주거환경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확인됨.
- 한 20대 청년은 학교 인근의 원룸촌이 주거환경과 치안에 있어 불리하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월세가 오르는 등 혼자 살기 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문제시했음.

(FGI Q&A)

2-3. 2020년 12월의 조사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의 노령화 지수는 144.0%로 대전 전체의 평균값 109.9%에 비해 높았으며, 청년 1인 가구의 규모도 대전 5개 구 중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덕구가 대전의 다른 구에 비하여 청년이 적고 중·노년층이 많은 지역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귀하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덕구 주요 산업 구조를 보면 공단이 많은데, 청년층은 공단 취업보다는 3·4차 산업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대덕구 안에는 그런 일자리의 기반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이 대덕구에 미술관, 음악관, 영화관 등 문화시설이 없는 데, 만약 집앞에 그런 시설들이 있다면 소비하고 참여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감하고 소비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없다는 게 큰 문제 같아요.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70~80년대 대덕구 자체가 공단 중심의 생산직에 많이 직접되어 있는데, 청년층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비춰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 남성, 37세)

-직업의 영향이 큰 거 같습니다. 20대가 선호하는 직무의 기업이 별로 없는 거 같고, 현재 20대 청년이 전공하는 직무의 기업이 부족한 거 같아요. 대덕구 거주 1인 가구 대부분이 타지에서 온 대학생들일 텐데, 다들 졸업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고 생각하는 듯해요. 제가 보더라도 다른 지역과 공간의 느낌 자체가 다른 거 같고, 젊은 인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성, 24세)

-대덕구 안에 4년제 대학교가 하나뿐이라 청년 거주비율도 그만큼 낮은 거 같아요. 대대손 손 몇십년 계시던 분들은 계속 대덕구에 살고 계시는데 유입 인구는 적다보니 청년 비율도 떨어질 수밖에요. 대덕구에서 찾을 수 있는 일자리의 임금 수준 등이 낮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어하는 청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살만해지지 않을까요?

(육○○, 여성, 30세)

-전반적으로 대덕구는 노후화되었다는 이미지가 커요.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 거주여건이 별로 쾌적하지 않아 선택지에서 밀려나는 거 같은데요. 젊은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 문화시설이나 직종이 대덕구에 많지 않아서 젊은 세대가 더 살지 않게 되는 거 같아요.

(김○○, 여성, 26세)

3_남성 vs. 여성: 직업관, 생활관, 행복관

- 대덕구(2020)가 발표한 “대덕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대덕구 관내 20대~30대 근로자들의 직업 만족도를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집계한 결과, 여성 근로자의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온 항목은 ‘임금 또는 소득’, ‘고용 안정성’으로 한정되었음.
- 반면 ‘하고 있는 일의 내용’과 ‘근로 환경’, ‘근로 시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 공평성’,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남성의 만족도 점수가 훨씬 높았음.
- 동일 집단에게 선호 직장의 선택 이유를 확인한 결과, ‘임금 수입’과 ‘고용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대답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음.

[표5-3] 대덕구 관내 20~30대 근로자들의 직업 만족도 조사결과(단위 : %)

	사례수	적성 흥미	사회적 공헌	자기 발전	임금 수입	고용 안정성	거리	시간 여유	장래 유망	근로 환경
전체	(288)	6.9	3.8	4.2	28.1	39.2	1.4	6.3	9.0	1.0
남자	(127)	6.3	3.1	7.1	29.9	37.8	0.8	3.1	11.8	0.0
여자	(161)	7.5	4.3	1.9	26.7	40.4	1.9	8.7	6.8	1.9
20대	(120)	10.0	1.7	5.8	25.8	40.8	0.0	2.5	11.7	1.7
30대	(168)	4.8	5.4	3.0	29.8	38.1	2.4	8.9	7.1	0.6

※출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2020) <대덕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대다수 응답자들은 직업을 평가하거나 직업에 임하는 의식의 기준이 남녀간에 상이한 것에 기인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이는 다수의 여성 근로자가 학창시절 문·이과 계열 중 어느 쪽이었는지와도 관계가 있다는 흥미로운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이공계를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한국 취업시장에서, 문과 전공자가 많은 여성들의 경우 적성에 맞는 직군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남성은 임금수입을 크게 중요시했던 것과 달리, 여성은 임금수입보다 고용안정성을 조금 더 중요시한다는 기존의 대덕구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남녀 양측이 큰 저항없이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줌. 이를 통하여 대덕구의 남녀 청년이 갖는 ‘이상적인 직장관’에 대한 차이를 재확인할 수 있음.
- 자신의 행복도에 대한 물음에서도 남녀간의 차이가 확인되는데, 스스로가 현재 행복하다고 느끼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았음. 통상적으로 평균급여가 낮은 여성의 행복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성들에게는 안정적인 직장과 우량한 근로환경이 높은 급여보다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음을 알게 해줌.

(FGI Q&A)_____

2-4. 2020년 12월, 대덕구의 여성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임금 또는 소득”과 “고용 안정성” 부분에서는 남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내용”, “근로 환경·시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리후생” 등 그 외의 모든 항목에서는 남성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귀하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녀의 직종이 다른 것에서 나온 만족도 차이라고 생각해요. 주로 남성이 종사하는 제조

업은 경기에 따라서 고용 불안정을 느끼는 거 같고요, 업무량에 비해 임금 액수의 만족도도 높지 않은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군의 차이에 가까운 것 같고,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오는 반응에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조○○, 남성, 30세)

-응답자의 욕심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한 거 같아요. 대덕구의 사업체 중에는 중소기업이면서 이공계 계열 회사인 곳이 많은데, 여성 근로자들은 야간 숙직 같은 것을 안 하니까, 인사고과나 개인의 발전에 대한 개인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함○○, 남성, 21세)

-근무 환경이나 사내 복지와 관련이 있는 거 같아요. 여성과 남성이 가지는 신체적 차이라는 게 있는데,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수용할 만큼의, 아직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만족도가 낮은 거 같아요.

(최○○, 여성, 29세)

-일단, 여성이 남성보다 기술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과 계열을 더욱 선호하니까, 문과 출신이 대다수인 여성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지 못하니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 같고요. 결국 기술이 부족하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게다가 직장에서 높은 직책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남성 위주니까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감도 낮은 거 같아요.

(전○○, 여성, 21세)

2-5. 2020년 12월, 대덕구의 여성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선호 직장의 선택 이유를 물은 결과, “임금 수입”이나 “고용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대답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응답자본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3가지 기준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5-4] 대덕구 관내 20~30대 여성 근로자들의 직업선택 기준

	적성 및 흥미	사회적 공헌	자기발전	임금수입	고용 안정성	출퇴근 거리	시간적 여유	장래 유망	근로환경
전체	9	5	9	15	11	4	8	3	10
남자	7	4	7	10	5	4	7	2	7
여자	2	1	2	5	6	0	1	1	3
20대	6	1	7	9	8	3	6	2	6
30대	3	2	2	4	1	0	2	1	4

※출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2020) <대덕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임금수입(15)과 고용안정성(11), 근로환경(10)을 중시하는 대답이 많았으나, 남성-여성으로 나누어 접근했을 경우 남성은 임금수입을 크게 중요시했던 것과 달리, 여성은 임금수입보다 고용안정성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일이 나와 맞아야 하고, 일을 하면서 발휘되는 흥미가 자기 발전, 장래 유망 등과 연관되

는 것 같아요. 근로 환경은 일하는 장소가 좋아야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 자체가 힘든 건 당연한 건데, 환경까지 안 좋게 되면 이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공헌 또한 자기 발전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일을 하며 이타적인 가치가 중요한 사회가 되었고 자기 발전, 장래 유망과 연관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조○○, 남성, 30세)

-한 일터에 오래 있기 위해서는, 그 일터의 성격과 자신의 적성, 흥미가 모두 일치되어야 한다고 봐요. 힘든 일을 하더라도 같이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나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일을 하면서 보내겠으나, 일과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는 게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고, 시간적 여유를 보상으로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 남성, 27세)

-고용 안정이나 임금 수입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부족하더라도 사회적 공헌을 체감하거나 인정을 받으면 보람을 느끼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육○○, 여성, 30세)

-임금 수입과 고용 안정성이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 같아요. 일한 만큼 돈을 벌어가 는 것도 중요해요. 살아가는 데에 있어 직장이 안정적으로 잡혀 있어야 생활과 삶이 안정 적으로 영위될 것이니 고용 안정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근로 환경도 환경적으로 잘 개선 되어 있고 쾌적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근로활동에 있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갖춰진다고 봐요.

(김○○, 여성, 26세)

2-6. 2020년 12월 대덕구의 20~30대 남녀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구내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귀하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는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말이고, 양질의 주거환경과 보행환경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그만큼 되어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도 자연스레 높지 않을까요?

(김○○, 남성, 30세)

-교육 수준이 좋은 곳으로 사람이 몰리다 보니 주거 환경이 높아지고 수준도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과 교통시설도 개선되는 거 같고요.

(김○○, 남성, 21세)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거 환경과 보행환경이 우량한 곳에 사니까 만족도가 높겠
죠. 현재 제가 사는 곳이 대로변이라 주거환경과 보행환경이 좋지 않음을 많이 느끼는데,
송촌동에 오면 보행 안전과 자연 환경의 측면에서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육○○, 여성, 30세)

-고용이 되어 소득이 생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할 요인이 적어지니까 그런 거
같아요. 소득에 따라 더 좋은 여건의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결국 현실과의 타협
이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는 거 같습니다.

(육○○, 여성, 26세)

2-7. 2020년 12월 대덕구의 20~30대 남녀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보다 여성의 만족도 및 행복도가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귀하는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시나요?

-소득이 있다는 것은 직장인이면서 일자리를 가졌다는 이야기이고, 소득이 늘어나면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생각하는 등 가족을 꾸려야겠죠. 한국사회의 경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지
만 여성보다 남성에게 사회적 역할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남자
는 집, 여자는 혼수장만과 같은 관념은 남성에게 스트레스를 강요하죠. 남자는 가정을 부양
하고 자식을 책임지는 등, 본능적으로 부여되는 사회적 의무와 그에 기인한 책임감이 더
크다고 봅니다. 내가 벌어서 나만 먹고사는 거라면 즐기고 행복할 수 있겠지만, 가장으로서
아직 대다수의 20~30대가 느끼는 결혼에 대한 현실, 주택 가격 등, 남성에게 아직까지 많
은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 남성, 37세)

-소득과 무관하게 삶의 만족도는 여성이 더 높을 거라 생각해요. 소득보다 중요한 원인은
남녀의 성향 차이가 아닐까요?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여성이 더 행복하게 사는 거 같다고
느껴집니다.

(황○○, 남성, 29세)

-보통 여성들이 결혼하면 가사,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을 통하
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나가면 소득의 고저를 굳이 따지게 되지 않을 테니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해요.

(최○○, 여성, 29세)

-사람마다 행복의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직장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힘을
쓰거나 야외에서 일하는 현장직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 같고요.

(전○○, 여성, 21세)

2-8. 2-7에서 말한 내용과 관련하여, 응답자께서는 스스로를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나요?

- ①매우 행복함 ②행복함 ③보통 ④행복하지 않음 ⑤전혀 행복하지 않음

-④행복하지 않음. 진로에 대한 고민·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음. 개인의 생애주기에 대하여 과거에서부터 정해져 있는 틀 때문에 더 압박을 받고 불안해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김○○, 남성, 30세)

-③보통. 미래나 장래를 아직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미래도 보장할 수 없으며 청년 직업 문제 등이 많다보니, 고민을 하다보면 마냥 행복할 수는 없는 거 같음. 소소한 행복은 즐길 수 있어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됨.

(백○○, 남성, 20세)

-②행복함.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급여를 받고, 커리어도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함. 주말도 즐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함.

(박○○, 여성, 28세)

-②행복함. 고용이 불안하긴 하나 좋은 분들과 자기계발을 하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육○○, 여성, 24세)

2-9. 자녀를 갖지 않으신 기혼자 분들에 한하여 질문드립니다. 대덕구의 20~30대 남녀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를 부양하는 청년이 전체 대비 36.3%에 그친 반면, 부양을 보조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들을 모두 제치고 가장 크게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응답자께서는 자택이나 회사 근처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소할 경우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반드시 가질 것임 ②가질 것임 ③가지지 않을 것임
④전혀 가지지 않을 것임 ⑤모르겠음

-가질 것임. (이○○, 남성, 37세)

2-10. 위와 같이 대답하신 경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기보다 자택, 회사 근처가 더 큰 이유이고요, 이왕이면 사립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시설, 교육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가까이 있어야 유사시에 대응이 가능하고 출퇴근 하면서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남성, 37세)

2-11. 설문조사 결과 "행복"을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는 의견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현저히 높게 나왔습니다. 세대 기준으로 보았을 경우 1980~1994년생이나 1995년생 모두 행복을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히 여성이 이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남성인 나는 돈을 많이 중시하고 그것에서 행복이 온다 생각하는데, 여성의 경우 '어느 정도가 나의 행복인지'에 대해 남성과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아직 경력단절이란 문제가 있고,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보지 않는 것 같고요. 행복에 대해 구체화하지 않고, 그냥 난 행복하게 살 거야, 정도로 말이지요.

(김○○, 남성, 29세)

-어느 세대이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남녀 모두가 항상 중요시 했던 것이고, 남성이 권력으로 대표된다면 과거의 여성은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행복의 기초가 달라서 나오는 결과라고 봐요. 여성이 보았을 때 남성이 생각하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고 보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남성과 여성의 행복에서 밀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백○○, 남성, 26세)

-남성은 행복보다 책임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나 사회 활동에서도 책임감을 중시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고요.

(육○○, 여성, 30세)

-여성들이 느끼는 기준이 높아서라고 생각해요. 행복은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기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 여성, 21세)

4_남성 vs. 여성: 성평등, 성인지, 저출산

- 2-12에서 1995년생 이후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는 문제에 대해서, 같은 또래의 FGI 피설문자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지켜보고 있음을 확인함. 양측 모두 이 문제에 대하여 자기 성별 진영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기보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의견의 충돌을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 다만 소수의견으로 이러한 젠더 대립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그 바탕에는 현재의 청년 세대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여과없이 들어오는 것을 판단하기에 어려운 세대”라는 냉정한 인식이 근거하고 있음.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자체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임.
- 1995년생 이후의 경우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낮은 혼인율을 더욱 문제시하는 반면, 낮은 출산율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20대 남성 피설문자는 이를 “체면” 문제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줌. 반면 여성 피설문자들과 상대적으로 연장층의 남성 피설문자는 현재의 세태 자체가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을 강권하는 시대가 아님을 논하면서 인식의 차이를 드러냄.

(FGI Q&A)

- 2-12. 설문조사 결과 “성평등”과 “성인지”를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는 순위는 ①1995년생 이후 여성→②1980~1994년생 여성→③1980~1994년생 남성→④1995년생 이후 남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①과 ④의 그룹에서는 그 평균값의 차이가 아주 컸습니다. 동년배의 남녀가 두 현안을 놓고 서로 큰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과 해결책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디지털 문명이 확산됨에 따라 경험하지 않은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성적인 갈등이 생긴 거 같고, 95년생 이후 남성은 군대 이슈도 있을 거 같고요. 30대 여성과 남성 사이의 갈등이 줄어드는 것은 사회화 과정에서 같이 지내며 이해하는 부분이 늘어나니까 그럴 겁니다. 이전처럼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보고 경험한 것만 느꼈는데, 지금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도 검색을 통해 보고, 잘못된 정보들이 여과없이 들어오는 것을 판단하기에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등은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 남성, 37세)

-오랜 시간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기득권에 놓여있던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는 거 같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 큰 이슈를 보이는 것은 양 극단에 있는 성향의 집단, 커뮤니티, 매체, 언론에서 자극적인 이슈를 통해 온전한 가치관 등을 확립하기 전에 특정 커뮤니티의 생각이 유입되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고요. 양극단의 집단이 반대를 위한 반대나 의미 없는 혐오를 내려놓고 왜 성평등, 성인지를 추구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감정에 너무 치우쳤어요.

(정○○, 남성, 26세)

-여성들이 본인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남성들은 이슈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것 같지만, 20대 남성은 군대를 가야하는 시기가 있어서 평등에 대한 이슈를 생각하는데...이슈에 대한 반감이 강해서 오히려 반감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 여성, 28세)

-일단 95년생 이후 여성들이 성평등을 중요한 의제라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의제가 떠오르게 2010년 정도부터였으니 비교적 더 젊은 여성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나 생각해요. 성평등/성인지 문제 인식격차의 해결책에 대해서는...95년생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남자들이 더 거부감을 갖고, 중립은 중립대로 더 공고해지고...양극간의 격차는 더 심해졌는데 더 대화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 보여요. 2016~17년 기점으로 분위기가 많이 변한거 같은데, 학교에서 남학우들이 얼떨이나 몸평을 더 자제하고 교수님들도 발언을 조심하시게 되었어요.

(조○○, 여성, 24세)

- 2-13. 설문조사 결과, 국가적 의제로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는 "낮은 혼인율"과 "낮은 출산율"을 중요한 의제로 생각한다는 의견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생 이후의 경우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낮은 혼인율을 더욱 문제시하는 반면, 낮은 출산율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혼이나 출산 저하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모님 세대를 통해, 결혼은 의무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인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성들 사이에서,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책임감에 대한 부담으로 자유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크게 자리하는 거 같아요.

(김○○, 남성, 36세)

-남성이 결혼을 못했을 때 느끼는 체면의 문제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남성, 24세)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는데, 육아는 더 뼈저리게 와닿는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지만 육아는, 남성의 입장에서 더 책임져야 하고 보호해줘야 할 연약한 대상이 생기는 것이기에 결혼에 비해 무거움이 더 커서 출산에 대한 막연함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혼인은 할 수 있지만 출산은 다른 여러 요인들이 생각이 들어서 고려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대덕구 육아 관련 정책의 경우, 신혼부부 혜택은 요즘 많이 생기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직 육아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자세하게 알려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대덕구 여성 중 복직을 하는 분들을 위한 돌봄, 교육 제도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보강되었으면 해요.

(최○○, 여성, 29세)

-이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현재는 부부끼리 사는 가정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될 게 없기 때문에 낮은 출산율에 대해 비교적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재 비혼주의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혼인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혼주의자가 많아져서 결혼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양이고요.

결혼을 꼭 해야되겠다는 아니지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하겠지만 굳이 해야되겠다고
생각해요.

(전○○, 여성, 21세)

5_30대 vs. 20대: 미래관, 경제관, 공정에 대한 인식

- 1차 설문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FGI 피설문자들도 현재의 즐거움이나 행복보다 미래의 대비를 우선하는 목소리가 우세했음.
- 일부 마케팅 가이드북에서 청년들이 ‘가성비’ 위주의 소비를 선호하면서 중고거래에도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고 분석한 바가 있으나, FGI 결과 대덕구의 청년들은 중고거래를 크게 선호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전반에 깔려 있었음. 다만 옷이나 참고서 등, 자신이 필요한 품목에 따라 중고품을 제한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함.
- ‘얼리아답터’, 즉 최신 상품을 남들보다 앞서서 사용하는 문화에 대해, 금번 FGI 설문자들은 크게 긍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최신 상품의 첨단 기술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것을 자신의 삶에 실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중의 문제로 생각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음.
- 대다수의 FGI 피설문자들은 ‘도전·모험’을 시도하기보다 적은 노력을 들여 부와 명예를 얻으려는 최근의 풍조에 대해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학연·혈연·지연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일부 피설문자들은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면 솔직히 활용했을 것’이라는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함.

(FGI Q&A)

2-14. 기존의 문헌들을 확인해 보면, 현재의 청년 세대들은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보다 현재의 즐거움이나 행복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남성·여성 모든 연령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우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하께서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우선하는 입장이라면, 언제부터 어떠한 계기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셨나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을 나갔을 당시, 돈을 벌면서 주변분들이 돈 쓰시는 것을 봤을 때, 하루만에 다 쓰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 적당히 소비하는 분들이 만족도가 더 높고 표정도 밝았어요. 하루이틀만에 탕진하는 분들은 쓰는 동안에야 좋고 행복한데, 그 이후로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요.

그런 걸 보고, 어느 정도 소비는 하겠지만,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게 살 수도 있겠

다는 생각을 했어요. 욕구가 사라진 게, 그 생각 자체부터 미래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 언젠가 돈이 필요하다는 현실 때문이죠. 주변 분들을 보며 많은 영향을 받은 거 같아요.

(김○○, 남성, 36세)

-미래를 준비하는 편이에요. 청년 시기에는 미래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죠.

(백○○, 남성, 20세)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편이에요. 학창시절부터 현재를 투자해서 미래를 얻으라는 말을 부모님 세대로부터 들은 게 영향을 많이 미친 거 같아요. 미래가 좋으려면 현재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 관념이 미래를 준비하는지, 현재에 투자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같아요.

(육○○, 여성, 30세)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즐거움과 행복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취직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기에 준비를 해야 하지만, 현재가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거 같아요.

(전○○, 여성, 21세)

- 2-15. 설문조사 결과 소비생활에 있어 “가성비”를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전체 조사 대상들을 통틀어 높은 편이었으나, “중고거래”의 경우 그보다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년층은 가성비를 위해서라면 중고거래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던 기존의 분석과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귀하는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층의 인식 차이에서 오는 거 같아요. 소유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중고 물품은 잘 안 사는 편이에요. 남이 쓰던 것을 다시 쓰는 게 싫어서인 듯한데, ‘내 것’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런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거 같습니다.

(김○○, 남성, 30세)

-부모님은 가구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중고거래로 많이 이용하세요. 중고품의 상태가 큰 하자가 없다면 괜찮아 하시고요. 다만 저는 중고라는 것 자체가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인식을 크게 갖고 있어서, 가격 때문에 중고거래를 굳이 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정○○, 남성, 26세)

-타인에 대한 신뢰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사생활을 더 중시하고 거래를 했을 때, 타인에 대한 믿음이 적다 보니 물건에 대한 불신도 있어서 생기는 차이 같습니다.

(박○○, 여성, 28세)

-인터넷 중고거래라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당근마켓같은 직거래에서도 남이 쓰던 물건이라 싫다는 생각이 있는 거 같아요. 저야 빈티지 웃고 입고 하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중고 물품에 대한 생각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육○○, 여성, 24세)

- 2-16. 설문조사 결과 미래에 우리가 즐길 신기술을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는 경향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이러한 신기술을 상징하는 소비유형인 얼리아답터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기술이 나와서 삶과 일상이 편해지는 것은 좋은 거 같고, 불치병에서도 신기술이 나와 저렴하고 적은 위험부담으로 감수할 수 있으니 너무 좋다고는 생각하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신제품이 등장하더라도 시기가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굳이 일찍 사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기술을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이○○, 남성, 37세)

-가격대가 비싸질수록 부담으로 다가오니까요. 20~30대의 경우 금액적으로 부담이 커지니까, 잘해봐야 에어팟 등 작은 부분에서 구매하는 정도인 거 같아요.

(정○○, 남성, 21세)

-저는 신기술에 대한 인식이 둔한 편이에요. 앞으로의 행복과 미래의 편리함, 복지를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완벽하게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출시되어도 늦지 않을 것이고, 신기술에 대해 앞서서 비싼 가격을 주고 소비할 만큼의 가치는 없다고 봐요.

(최○○, 여성, 29세)

-일단 저는 얼리아답터가 아니에요. 신기술이 대중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고요. 새로운 의학기술 같은 것을 보면 막연하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신기술이 적용된 물건을 굳이 서둘러 사거나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 같아요.

(조○○, 여성, 24세)

- 2-17.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 지위, 혁신, 명예, 창업, 도전·모험과 같은 의제를 중시하는 경향은 전 세대에 걸쳐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모순되게 성공과 부, 인정욕구,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을 중시하는 경향은 오히려 높은 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는 도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기에, 여유와 된다면 도전을 추구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전 자체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 거 같아요. 말씀하신 모순되는 상황은 청년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실패를 구제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계속 도전하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죠. 실패를 경력이나 경험으로 봐주지 않는 사회인식이 다수인 거 같습니다.

(이○○, 남성, 37세)

-사회적 흐름이 원인인 거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착실하게 모아도 집 하나 제대로 사지 못하는 현실에 살고 있으니, 뭔가를 이룰 때 내 몸을 갈아넣기보다 상대적으로 편한 것을 우선 찾게 되는 거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주식에 손을 대는 연령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실패를 해도 보장되는 부분이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남성, 26세)

-사회적 지위나 혁신 같은 것은 청년 세대에서 얻기 어렵고, 창업, 도전, 모험도 청년이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용기가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또는 돈이 많은 경우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육○○, 여성, 30세)

-SNS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안 좋은 모습은 올리지 않고 자랑하는 모습을 올려 성공에 대한 만족감을 놓지 못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부가 있어야 SNS에 글을 올리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

(전○○, 여성, 21세)

- 2-18. 본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의제는 신뢰였던 반면 가장 중요시하지 않았던 의제는 학연·지연·혈연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연·지연·혈연의 악용이 사회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생각 때문인 듯한데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 이를 가장 분명하게 느끼셨나요?

-취업 과정에서 학연, 지연으로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알게모르게 아직까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느끼네요.

(김○○, 남성, 36세)

-일을 하면서 그런 게 없지는 않아요. 같은 학교라인 끌어주고 올리고, 혈연의 경우 전 회사에 있을 때 사장의 가족들이 회사에 주요 직군으로 앉아있을 때 나한테 학연-지연 관련 제의가 들어오면...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했으니까 보상받는구나, 라고 자기합리화할 거 같아요.

(김○○, 남성, 29세)

-남자친구가 지연, 혈연으로 얹힌 가족회사에 다니는데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도 채용, 업무에서 혜택을 받는 것을 보고 피해를 입어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해요. 학연, 지연, 혈연으로 피해가 생기는 게 일단 문제 같아요.

(육○○, 여성, 30세)

-내로남불인 거 같아요. 내가 누린다고 생각했을 땐 상대방에겐 불합리하겠지만, 본인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사회성 등 공정한 자리에선 공정해야겠지만,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이라고 본다면 취업과 같이 동일 선상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공간에서 악용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김○○, 여성, 26세)

6_30대 vs. 20대_기타 의제 : 익명성, 반려동물

- 인터넷 상에서의 “익명성” 화두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30대보다 20대가 익명성을 옹호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 동물권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FGI 피설문자들이 거의 공감하지 않았으며, 매스컴이 만들어낸 트렌드에 불과하다는 강한 부정론도 관측되었음.

(FGI Q&A)

2-19. 설문조사 결과, “익명성”을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는 의견은 전반적으로 소수에 속하였으나, 유독 20대 남성에 한해서는 평균적인 의제 중시 정도를 웃돌 정도로 이를 중요한 의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 알고 계시는 바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명제에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최근 익명성으로 피해를 받는 공인들이나 청년층이 자주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봤을 때, 익명의 뒤에 숨어서 커뮤니티의 수준을 떨어트리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실명제였다면 이렇게 했을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익명성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남성, 30세)

-반대로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 잘 안하는 편인데, 잘못이 있는 사람들이 익명성을 중시하는 것 같네요.

(함○○, 남성, 21세)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만나는 것이 많다 보니, 온라인 매체에 의지하는 추세라서 온라인으로 활동이 많은 세대일수록 익명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남성이 많은 이유도 온라인에서 많은 것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인터넷 실명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완전 실명제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육○○, 여성, 30세)

-인터넷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 익명 댓글을 쓰고 비판도 하지만, 기사를 보면 댓글 비율을 볼 수 있는데 20대 남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게임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게임에서도 욕을 많이 하는 버릇이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로도 옮겨가는 거 같아요.

(전○○, 여성, 21세)

2-20. 2010년 이래 10년간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전체 대비 17.4%에서 27.7%로 증가했습니다. 반대전 대덕구도 이에 따라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동물권을 주요 의제로 생각한 비율은 매우 낮았는데요. 이러한 현상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물과 관련한 법안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충분히 책임지려는 상황이기에 당연히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남성, 37세)

-새로운 사회 현상 뒤에 법이 느리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슈들이 생기고 인식이 된 이후에 정책이 생겨나면서 바뀌어 갈 겁니다.

(노○○, 남성, 26세)

-반려동물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물이지만 반려라는 것은 같이 살아갈 가족의 느낌인데, 본인이 키우는 것은 좋지만 책임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되어야 지켜지는 것 같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되네요.

(최○○, 여성, 29세)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이 커서, 동물권보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세부적인 법령이 생기거나 동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에 대한 사례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하네요.

(김○○, 여성, 26세)

7_소결

- FGI의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대덕구의 남녀 30대와 20대는 대덕구가 청년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를 꼽았음. 앞서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대덕구 청년들의 고용 실태와 함께 생각하면, FGI에 참가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생각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다수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표하고 있다고 판단됨.
- ‘살자리(주거환경)’와 ‘놀자리(문화시설)’ 현안은 청년 개개인의 행복에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들이 대덕구에 정을 굳이 붙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데에 있음. 개개인의 수요를 1:1로 만족시키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렵겠지만,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주거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원하는 장르의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용공간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 ‘일자리’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30대와 20대 모두가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음. 반면 ‘살자리’는 30대가 좀 더 시급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20대는 ‘놀자리’의 문제를 좀 더 시급하게 여기고 있었음. 청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과 자립활동 지원 등에 관련된 ‘살자리’에 대해서는 30대와 20대 모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음.

- 스스로가 현재 행복하다고 느끼는 청년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았는데, 이는 2차 설문조사에서 청년 여성들의 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낮고, 정규직 구직활동 포기 사례도 더 많았다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임. 이는 이번 FGI가 설문조사 당시와 달리, 불특정 대상의 인원 외에도 지인의 소개 등을 통하여 확보된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의 균질성을 가진 복수 인원들이 FGI에 참가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기존 “대덕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 도출되었던 남녀간의 직업 인식이나 행복관에 대해서도, FGI에 참가한 남녀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편이었음. 남성은 임금수입을 크게 중요시하며, 여성은 고용안정성을 중요시한다는 기존 인식이 크게 어긋나지 않았음을 확인함.
- 남녀간에 크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성평등, 성인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은 20대에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젠더에 편향된 대답이 다수를 차지하다가, 30대가 되면서 일정한 수준의 객관성을 갖는 것으로 드러남. 남녀간의 의견차이라기보다 연령대 간의 의견차이라는 느낌이 더 짙었으며, 결국 청년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짐.
- 30대와 20대가 ‘가성비’를 중시한다고 기술한 시중의 마케팅 분석 서적의 내용을 완전히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이 확인됨. 30대와 20대 모두 ‘가성비’를 중시한다고 해서 품목을 가리지 않고 중고상품 구매도 즐기는 것은 아니며, ‘얼리아답터’나 ‘상품후기’가 구매결정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FGI 참가자들은 크게 인정하지 않았음. 적어도 대덕구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 FGI 참가자들은 소비태도에 있어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년들의 소비활동 진작만을 노린 지원 정책이 큰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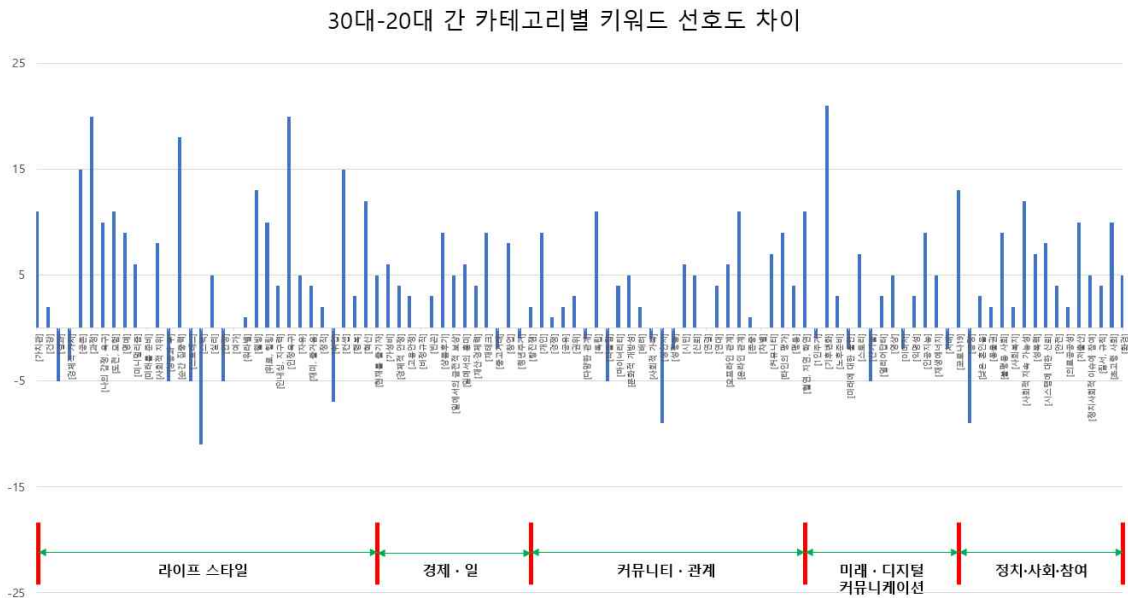
06. 결론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였음.

- 첫째, 대덕구의 청년세대가 중요시 하는 의제와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
- 둘째, 30대와 20대는 각각 어떠한 특성을 보이며, 같은 연령그룹 안에서도 전반기와 후반기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
- 셋째, 같은 청년집단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은 각각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

1) 두 세대는 동질한 집단인가, 다른 집단인가

○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하자면, 같은 청년세대라고는 하지만 두 세대가 다른 집단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임.



[그림 6-1] 30-20대간 카테고리별 키워드 선호도 차이(n=40)

- 만약 두 세대가 유사한 집단이라면 항목별로 그리고 100개 항목 전체에서 차이의 합계가 0을 중심으로 일정한 분포를 가져야할 것이지만,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차이의 합계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의 모양이 불규칙하며, 세대별 중요도(선호)가 항목을 기준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이 나타남. 아래의 [표 6-1. 키워드별 (30대-20대) 합계 비교표]를 보면 세대별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음.

[표 6-1] 키워드별 (30대-20대) 합계 비교표(각 세대 n=40)

항목	(30대-20대) 합계 비교표
라이프스타일	167
경제/일	55
커뮤니티/관계	84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56
정치/사회/참여	83
합계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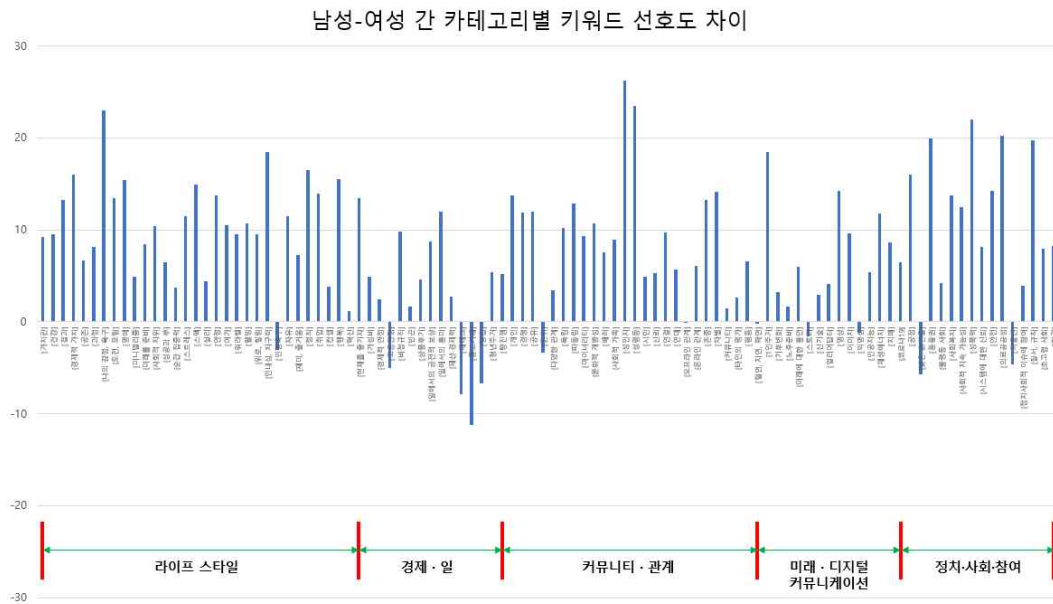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20대보다 30대가 각 키워드에 대한 점수를 모두 높게 주는 편이었으며, 이는 30대와 20대의 중위수가 각각 152와 146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증명되었음.
 - 라이프스타일의 (30대-20대) 차이가 167로 최고값을 기록한 것은, 해당 키워드에 대한 30대의 선호도가 20대보다 그만큼 크게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 됨. 반대로 최고값 차이가 가장 적었던 쪽은 경제/일(55)이었음.
 - 20대의 선호도 표준편차(10.48)는 30대(9.38)보다 높았으며, 이는 20대가 30대보다 다양한 가치관들을 상대적으로 어긋비슷한 수준으로 추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키워드에 부여한 개별 점수들은 30대보다 20대가 적은 것으로 보아, 각 키워드에 대한 평가는 20대가 신중한 태도인 것으로 보임.
 - 라이프스타일 영역에서 (30대-20대)의 키워드 배점 차이 중 특히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해 보면, 30대는 가치관(+11), 위로·힐링(+10), 웰빙(+8), 인정욕구(+19), 순간 집중력(+18), 나의 감정·욕구(+10), 성폭력(+7), 실리(+5)에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부여했고, 20대는 성공과 부(-5), 취업(-7), 결과(-5), 스트레스(-5), 스펙(-11)에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됨.
 - 경제/일 영역에서는 (30대-20대)의 키워드 배점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경제적 안정(+4),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5), 고용안정(+3), 일에서의 흥미(+6), 가성비(+6), 재테크(+9), 청년주거(-1)로 확인됨.
- 항목(라이프스타일, 경제/일, 커뮤니티/관계,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개별 키워드 단위로 접근했을 경우, 30대와 20대는 키워드 선호도의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였음. (30대-20대)의 값이 +5점 이상, 즉 30대의 선호도가 높은 키워드는 100개 중 44개였음. 반대로 (30대-20대)의 값이 -5점 미만, 즉 20대의 선호도가 높은 키워드는 100개 중 9개였음.
- 개별 키워드 단위에서 30대가 20대보다 월등한 점수를 준 것은 기후변화(+21), 과정(+20), 인정욕구(+20), 순간 집중력(+18), 공존(+15) 순이었음. 상기 5개 키워드 중 4개가 라이프스타일 영역에 해당되며, 나머지 39개의 30대 우세 키워드는 +13~+5까지 다양한 점수차가 분포됨.
 - 반대로 개별 키워드 단위에서 20대가 30대보다 월등한 점수를 준 것은 스펙(-11), 성인지(-9), 취업(-7) 순이었으며, 나머지 6개 키워드(결과, 성공과 부, 스트레스, 안정, 파도림, 신기술)은 모두 -5점이었음. 스펙과 취업에 민감한 것은 대학 졸업후 직장을 가지려 하는 20대가 느낄 당연한

고민들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젠더 관련 키워드의 경우 20대가 성인지(-9)를 중요한 키워드로 내세웠던 것과 다르게, 30대는 성폭력(+7)을 중요하게 내세웠음. 결과적으로 남녀 문제에 대해 두 세대가 나름의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그 방향성과 주목도에 있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2) 남녀 성별간의 유사점과 상이점

○ 같은 청년세대라도 30대와 20대가 다르듯,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의견 또한 다른 분포를 보임.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키워드도 30대-20대 기준의 경우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6-2] 남성-여성간 카테고리별 키워드 선호도 차이(n=43)

-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젠더집단 간 차이의 합계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의 모양은 상당히 불규칙하며, 젠더별 중요도(선호)가 항목을 기준으로 크게 구분되는 특성이 나타남. 아래의 [표 6-2. 항목별 (남성-여성) 개별 키워드 개수차]를 보면 세대별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음.

[표 6-2] 키워드별 (남성-여성) 합계 비교표(각 성별집단 n=43)

항목	(남성-여성) 합계 비교표
라이프스타일	-340
경제/일	-27
커뮤니티/관계	-218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69
정치/사회/참여	-159
합계	-813

-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각 키워드에 대한 점수를 모두 높게 주는 편이었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의 중위수가 각각 155와 164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증명되었음.
 - 라이프스타일의 (남성-여성) 차이가 -340으로 최고값을 기록한 것은, 해당 키워드에 대한 여성의 선호도가 남성보다 그만큼 크게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 됨. 반대로 최고값 차이가 가장 적었던 쪽은 경제/일(-27)이었음.
 - 남성의 선호도 표준편차(9.68)가 여성(11.41)보다 낮았다는 것은 특정 키워드들에 대한 남성의 선호도 집중 경향이 여성보다 높았음을 말함. 여성은 남성보다 동일 젠더집단 안에서 훨씬 다양한 키워드에 대해 주목했다는 뜻인데, 위의 합계 비교표에서 격차가 여성 쪽으로 크게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보면, 여성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키워드에 큰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됨.
 - 라이프스타일 영역 32개 키워드 중에서 (남성-여성)의 키워드 배점 차이 중 특히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해 보았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키워드는 인정욕구(+3)가 전부였으며, 이 또한 본항에서 규정하는 유의미한 차이인 ± 5 에 해당하지 않아 유의미한 우세로 간주하지 않음. 나머지는 전부 여성의 우세로 드러났음.
 - 경제/일 영역에서는 (남성-여성)의 키워드 배점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그리고 남성이 +5 이상 우세인 키워드 7개중 4개가 이 영역에 해당하지만, 이 영역에서도 여성들이 동일한 만큼의 우세를 보이는 키워드가 7개였고, 결과적으로 이 영역도 -26이라는 여성 우세를 보였음.
- 위의 설명을 통해서 이미 상당부분 규명되었지만, 항목(라이프스타일, 경제/일, 커뮤니티/관계,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개별 키워드 단위로 접근했을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의 선호도 분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임.
- 남성은 중고거래(+11), 재테크(+8), 창업(+7), 여성(+6), 낮은 혼인율(+6), 저출산(+5), 고용안전(+5)의 7개 키워드에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부여했음.
 - 그런데 여성은 무려 72개의 키워드에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그 격차도 남성이 +5 이상 우세인 경우에 비해 훨씬 컸음. 남성과의 격차가 가장 컸던 것은 성인지(-26)였으며, 성평등(-24), 나의 감정·욕구(-23), 성폭력(-22), 동물권(-20), 의료공공성(-20), 질서·규칙(-20) 등, 남성 우세의 키워드 분포에서 볼 수 없던 거대한 격차들이 다수 확인됨.

3) 각 세대가 중요시하는 가치의 분포 양상

- 라이프스타일 항목의 경우, 20대는 전반적으로 취업과 결과, 보상과 그것을 얻는 과정에 수반되는 스트레스 등에 관련된 의제를 집중적으로 선택했고, 30대는 삶의 질 향상과 현재의 즐거움 추구에 가까운 의제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라이프스타일 항목은, 전반적으로 30대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함.
 - 30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한 의제 중 20대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격차값 +5 이하)은 건강, 워라벨, 인내심·지구력, 재미·즐거움, 정직, 행복 정도였음. 그리고 미래를 준비, 여가와

같이 30대와 20대가 동률을 기록한 의제들도 있음. 3장에서 말하였듯 태어날 때부터 경쟁에 익숙해져 있는 20대들도, 위 의제들에 있어서의 혜택을 갈구하고 있음이 확인됨.

○ 경제/일 항목의 경우 혁신, 가성비, 상품후기, 일에서의 흥미, 재테크, 창업의 의제에 대해 30대가 유의미한 수준(격차값 +5 이상)으로 중요도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됨. 비정규직 의제의 경우 30대와 20대 모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이 항목에서 20대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의제는 확인되지 않았음.

- 30대가 가성비에 대해 유의미한 수준(152점 46위, 20대 대비 +6)으로 중요도를 부여한 반면, 20대는 중고거래에 대해 82위(135점 82위, 30대 대비 +2)의 중요도를 부여. 두 계층 모두 가성비나 중고거래와 같은 합리적 소비생활에 대하여 크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 특히 중고거래의 경우 20대가 조금 높은 중요도를 보인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순위가 낮아, 전반적으로 이 의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이라고 보는 것이 맞음.

○ 커뮤니티/관계에서 30대는 시민, 오프라인 관계, 온라인 관계, 커뮤니티, 혈연·지연·학연에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중요도(격차값 +5 이상)를 부여했고, 20대는 따돌림, 성인지 부분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였음.

- 혈연·지연·학연의 경우 4장에서 보았듯 두 그룹 모두 지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
- 성인지 부분에서 특히 20대가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 피설문자 중 47%(n=43 가정시 20명)가 20대였고, 이들이 성인지 부분에 대해 매우 민감한 인식을 노정하고 있었던 것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짐.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에서도 전반적으로 30대가 20대에 비해 적극적인 자세로 키워드 선정에 임하였음을 확인하였음. 특히 기후변화의 경우 30대는 8위(161점)로 매우 높은 중요도를 부여했으나, 20대는 66위(140점)으로 +21점 수준의 인식 차이를 드러내었으며, 본 조사에서 확인된 30대-20대 키워드 인식 차이로서는 가장 큰 격차임.

- 코로나19 의제에 대해서는 30대가 153점으로 38위, 20대가 140점으로 66위였음. 두 그룹이 모두 그렇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은 중에서도 20대가 더욱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본 조사를 실시한 시점은 2021년 9월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기 이전이었고, 국민 전반의 감염 대응 태세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져 있던 시기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현재의 시점에서 이 조사를 다시 진행하면, 30대와 20대 모두가 코로나19 의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부여했을 것임.

- 인공지능과 스토리, 영상, 재생에너지 모두 30가 20대 대비 +5 이상의 중요도를 부여하였음. 이는 미래·디지털콘텐츠 관련 의제에 대한 20대의 적극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정치·사회·참여 의제의 경우, '공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제 부분에서 30대가 20대에 비해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음. 그 중에서 +5 이상의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된 것은 불평등 사회, 사회적 지속 가능성, 성폭력,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저출산, 초고령사회, 환경 정

도였음.

- 20대가 30대에 비해 공정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것은, 작금에 여·야 진영을 불문하고 불거졌던 정치인 자녀의 대학입시·직장채용 및 처우 관련 스캔들, 연예인 기획선발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 등으로 박탈감을 직접 느낀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4) 각 성별이 중요시하는 가치의 분포 양상

- 성별 기준 의제 비교의 경우 여성이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성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채점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안에서도 성폭력, 성인지, 나의 감정·욕구, 공정, 동물권, 의료공공성, 질서·규칙이 모두 남성 대비 +20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앞에서 ‘유의미한 차이값’으로 규정한 +5로 내려갈 경우 그 개수는 훨씬 많아짐. 이는 곧 여성들이 여러 의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만, 통일성 있는 흐름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도를 높게 부여한 키워드와 상호간 격차가 ± 5 이하인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언급하겠음. 먼저 라이프스타일 항목의 경우 미니멀리즘, 순간 집중력, 실리, 인정욕구, 컨셉, 혁신 키워드에서 그나마 남녀간의 중요도 부여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의제에 대해 남녀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중요도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경제·일 항목에서는 가성비, 고용안정, 빈곤, 재산·경제력, 청년주거, 탕진잼에서 남녀간의 중요도 부여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재테크, 중고거래, 창업 부분에서는 남성의 중요도 부여 정도가 여성의 그것을 유의미하게 앞지르는 것을 확인함. 이 부분 역시 나머지 키워드들은 전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중요도를 부여했음.
- 커뮤니티·관계에서는 권위, 다양한 관계, 시민, 오프라인 관계, 커뮤니티, 타인의 평가, 혈연·학연·지연에서 남녀간의 중요도 부여 차이가 적은 것(격차값 ± 5 이하)으로 나타났음. 신뢰, 연대의 경우 여성이 부여한 격차값이 +6의 근사값 수준으로 근소하게 높게 나왔으며, 이는 대덕구에서 해당 키워드가 사회 속에서 제 기능을 잃을 것인지 아닌지의 갈림길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시사함.
 - 나머지 키워드들은 그 중요도 점수가 모두 여성에 편중되고 있으며, 특히 성인지와 성평등은 +20점 이상이라는 ‘균형 붕괴’에 가까운 양상을 보여줌. +10점 이상의 수준으로 여성이 더 큰 중요도를 부여한 키워드도 독립, 파도림, 문화적 개방성, 존중, 차별로 개수 자체가 적지 않았음.
-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에서는 기후변화, 노후준비, 스토리, 신기술, 얼리아답터, 익명성, 인공

지능에서 남녀간의 중요도 부여 차이가 적은 것(격차값 ± 5 이하)으로 나타났음. 인공지능, 미래에 대한 불안의 경우 여성이 부여한 격차값이 +6의 근사값 수준으로 근소하게 높게 나왔으며,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의 경우 해당 의제에 대한 여성의 걱정이 고착화될 것인지 아닌지의 갈림길과 같은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여겨짐.

- 영상과 이미지, 재생에너지, 치매, 코로나19의 키워드에 대해 여성이 부여한 격차값이 +5 이상으로 컸다는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과 환경친화, 보건복지 현안 등에 대한 여성의 관심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을 시사함.

- 정치·사회·참여 의제서는 불평등 사회,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정도에서 남녀간의 중요도 부여 차이가 적은 것(격차값 ± 5 이하)으로 나타났음. 동물권, 사회복지, 사회적 지속 가능성, 성폭력, 안전, 의료공공성, 질서·규칙의 경우 여성이 부여한 격차값이 +10 이상으로 크게 편중되어 있으며,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초고령 사회, 환경에서의 격차값도 +5 이상을 기록함.

- 반면 남성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중요도(-5 이하)를 부여한 키워드는 낮은 혼인율 정도이며, 저출산(-4)도 이에 근사한 모습을 보여줌.

5) 결론 및 제언

-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였을 때, 같은 대덕구의 청년이라도 20대보다는 30대가, 남성 보다는 여성이, 자신들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의제들에 더욱 적극적임이 확인되었음. 30대는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많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활에 불리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20대보다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는 당연한 것임.

- 그러나 앞서 심층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 경제나 직업 등에 있어서는 20대가 30대보다 더욱 불리한 실정임. 상당수가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대학생이고, 가령 이른 나이에 취업을 하여도 호봉 등의 문제로 가처분소득이 적은 연령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들이 향후 현재의 30대들이 적게나마 누리는 우세한 혜택을 그대로 물려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부모 세대에 비해 빈곤한 청년이 증가하는 전세제의 추세를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큼(한국경제, 2021. 8. 6.). 사회제도나 현실에 대한 인지와 정보도 연장자 세대에 비해 불리하며, 경제적 곤란까지 더해지면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함께 챙겨야 하는 청년들은, 설령 자신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 지원정책이나 주거 지원정책이 만들어져도, 그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채널이 아니면 그 정책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이 우려됨.

- 본 조사를 통하여 대덕구의 청년들, 특히 20대들이 인스타그램처럼 비주얼적인 요소가 강하고 개방형 구조를 가진 SNS에 익숙해져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전의 세대보다 삶에 있어 더욱 큰 난관을 맞이하며 살아갈 이들을 위한 정책을 새로 설계하는 것도 좋지만, 현수막 및 포스터와 같은 전통적인 홍보수단보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YouTube와 같은 뉴미디어 기반 홍보 전략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됨.

홍보대상	주요매체	메시지	전략
대전지역	• 주류언론 (TV, 신문, 인터넷언론)	• 선도적 정책	• 차별화
대덕구 청년정책	• SNS(페이스북 등)	• 친화성	• 대덕구 청년특화
청년정책 참여자	•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 적극적 정책	• 정보전달과 소통
대덕구민	• 구정소식, 인쇄매체	• 변화하는 대덕구	• 브랜드화

[그림 6-3] 홍보대상에 따른 전략 설정

- 그리고 현재 대덕구에서 진행하거나 내부에서 기획중인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각 지역별 조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재구성할 필요도 있을 것임. 본 연구에서 진행한 2차 설문조사의 경우, 이에 참가한 인물들의 거주지를 함께 제시하여 그 재구성의 기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지역별로 어떠한 인물상의 청년들이 대덕구 관내 행정동에 거주하는지를 점검하여, 정책 전반의 재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그림 6-4] 대덕구 미래 청년정책을 위한 청년정책의 재구성

참고문헌

[단행본]

- 김난도(2019) “트렌드코리아 2019”, 미래의창.
 _____(2020) “트렌드코리아 2020”, 미래의창.
 _____(2021) “트렌드코리아 2021”, 미래의창.
 김형주 외(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학내일아십대연구소(2019)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0”, 위즈덤하우스.
 _____(2020)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1”, 위즈덤하우스.
 박영숙 외(2020)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교보문고.
 _____(2021) “세계미래보고서 2021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 교보문고.
 임홍택(2018) “90년생이 온다”, 위일북.
 전정환(2019) “밀레니얼의 반격”, 더퀘스트.
 천관율(2019) “20대 남자”, 시사IN북.
 홍춘욱(2019) “밀레니얼 이코노미”, 인플루엔셜.

[논문 및 기타 조사자료(국문)]

- DMC미디어(2021) “2021 소셜 미디어 시장 및 현황 분석 보고서”
 고영지(2020) “청년세대 문화와 경계짓기 : 청년세대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6) “한국인의 미래 인식, 사회분위기, 미래적응력조사 3차년도”.
 국회미래연구원(2018) “국민선호미래 연구”.
 _____(2018) “미래결정 정책의제 연구”.
 김미경 외(2021) “소셜미디어 네이티브 광고에 영향을 미치는 MZ세대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와 개인적 특성, 제품 유형의 역할 탐색”.
 김민정 외(2020) “Z세대가 즐기는 유튜브 채널의 몰입 요인과 특징”.
 김선기(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 2010년 이후 청년세대 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김선기(2017) “청년-하기를 이론화하기 : 세대 수행성과 세대연구의 재구성”
 김예원 외(2021) “MZ세대가 선호하는 형용사별 색채 이미지와 주거 환경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 연구”.
 김홍중(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박성원 외(2019) “청년 미래 성장 지원 방안의 새로운 관점 : 30대 싱글들의 일, 주거, 관계를 중심으로”.
 박진성(2009) “직장 내 밀레니얼세대에 대한 오해와 밀레니얼세대 리더십”
 박치원(2019) “세대론의 르네상스와 디지털 원주민 세대의 이해”.
 박해식(2020) “Z세대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책 과제”.
 박해숙(2016) “신세대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 연구 : Z세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원(2018)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신도겸 외(2020) “미래형 공동주택의 청년계층 카셰어링 이용수요 분석”.
 신혜경(2020) “MZ세대의 콘텐츠 콜라보레이션을 활용한 패션브랜드의 가치창출 사례연구”.
 엄경희 외(2020) “2020-2030 문화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제품 선호도 연구 -밀레니얼세대를 중심으로-”.
 오수연(2018) “Z세대를 주목하라”.
 오창섭·최성혁(2012) “혼인율 하락과 초혼연령 상승의 경제적 요인”.
 이광석(2018) “청년 대중서로 본 동시대 청년 담론의 전개 양상”.
 이동후(2009) “사이버 대중으로서의 청년 세대에 대한 고찰”.
 이선민 외(2020) “밀레니얼 세대의 뉴스 이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순아 외(2018) “청년세대의 미래 자신감에 대한 지역간 격차”.
 이승윤(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 분석과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성”
 이지현(2021)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의 호기심과 소속욕구가 레트로 제품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확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해정 외(2013) “Y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 : 세대별 일의 가치를 통해 본 의미 및 역할”.

전대근(2020) “MZ세대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습 공간 표현 특성 분석 -인테리어 편집숍 유형을 중심으로-”.

정은이(2019) “밀레니얼세대가 방송콘텐츠제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문가인터뷰를 중심으로-”.

조현승 외(2017) “우리나라 각 세대의 특징 및 소비구조 분석 : 포스트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진미정 외(2019) “20-30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가치관의 잠재유형과 한국사회 인식 및 개인적 미래 전망의 관련성”

최선헌(2018) “문화사회학으로 본 한국의 세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방안”.

[대전·세종 지역연구자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외(2020) “대덕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오정동 외 11개동(2020~2021) “대덕구 12개 행정동 주민자치회·주민총회 결과”.

임성복(2020) “대전시 청년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주혜진 외(2020) “대전·세종지역 청년인구감소의 지역 내 불균형”.

_____(2020) “대전시 20대 청년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정책 수요”.

최성은 외(2020) “세종시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방안”.

[인터넷 자료]

App Ape “2020년 1월~6월 Mobile SNS Report” <https://ko.appa.pe>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2015), “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 환경부 역.

데일리굿뉴스(2019.5.29.) “밀레니얼 세대 '90년생, 그들이 궁금하다” <https://goodnews1.com>

동아비즈니스리뷰(2021) “불확실한 미래 보상보다 현재가 중요” MZ세대는 투명한 소통을 원한다” <https://dbr.donga.com>

동아비즈니스리뷰(2021) “한국형 Z세대는 누구인가” <https://dbr.donga.com>

서울특별시(2020) “서울청년포털 공식 홈페이지” <http://youth.seoul.go.kr>

신동아(2019.3.17.) “대학 신입생 된 2000년생 밀레니엄 세대” <https://shindonga.donga.com>

아웃소싱타임스(2019.10.22.) “한국 35세~44세 여성 고용률 경쟁국보다 현격히 낮아” <http://outsourcing.co.kr>

연합뉴스(2021) “살이는 취업 스트레스...20대 화병 환자 5년새 2배로” <http://yna.co.kr>

이승윤(2021)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기까지 청년정책의 흐름” <https://facebook.com>

중앙일보(2020.11.22.) “일자리 잃는 경제하리...40대 고용률 외환위기 후 최악” <https://www.joins.com>

충청신문(2021.9.13.) “대전 청년주간, “청년정책 알아야 이용, 적극 홍보를”” <https://dailycc.net>

한겨레(2019.9.29.) “X, Y, Z...디지털 세대 구분법” <https://hani.co.kr>

[영문 자료]

Barkley(2018) “The power of Gen Z Influence : How the Pivotal Generation is Affecting Market Spend”.

Ernst & Young LLP(2016) “What if the next big disruptor isn't a what but a who?”.

Futurecast & Berkeley(2017) “Getting to Know Gen Z: How the Pivotal Generation is Different from Millennials”.

Global Shapers Community(2019) “The power of youth in action”.

Mckinsey(2018) “True Gen': Generation Z and its implications for companies”.

_____(2020) “What makes Asia-Pacific's Generation Z different?”.

Sydney Consulting Club(2018) “Millennials: Engaging an Enigmatic and Influential Generation”.

World Bank Group(2020) “SDG Atlas 2020”.

World Economic Forum(2018)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worlds young people in 7 charts”.

World Future Council(2019) “Future Research”.

YPulse(2019) “Both Gen Z & Millennials Believe This Is The Biggest Problem Their Generations Face Now”.

부록

1_설문지

대덕구 청년세대 선정 미래의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공감만세에서는 "대덕구 청년세대가 선정한 미래의제 파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구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대덕구의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 계획 및 추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안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하여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① 대덕구 구내 거주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본자료 공여
- ② 설문 응답자 기프티콘 제공을 위한 연락처 수집
- ③ 대덕구 응답자 확인을 위한 거주동 수집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성별, 거주동, 출생연도, 혼인여부, 취업여부, 자가보유여부, 동거가족 유무 여부, 자녀부양여부, 자녀취학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년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답자 상품 제공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기관 : (주)공감만세

* 설문 참여 시 제공되는 기프티콘은 대덕구 거주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1. 미래 의제 선정

[1-1] 아래 의제들에 대하여 귀하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평가해주세요. [아주 중요하다(5점), 중요하다(4점), 보통이다(3점), 중요하지 않다(2점), 매우 중요하지 않다(1점)]

연번	의제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함				
		1	2	3	4	5
라이프 스타일						
1	웰빙					
2	행복					
3	건강					
4	경제적 가치					
5	사회적 지위					
6	여가					
7	워라벨					
8	공존					
9	현재를 즐기자					
10	미래를 준비					
11	나의 감정·욕구					
12	과정					
13	결과					
14	인내심·지구력					
15	순간 집중력					
16	재미·즐거움					
17	취업					
18	스펙					
19	성공과 부					
20	안정					
21	혁신					

22	정직					
23	스트레스					
24	위로·힐링					
25	명예					
26	가치관					
27	실리					
28	자유					
29	도전·모험					
30	인정욕구					
31	컨셉					
32	미니멀리즘					
경제·일						
1	일에서의 흥미					
2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					
3	재산·경제력					
4	재테크					
5	고용안정					
6	상품후기					
7	중고거래					
8	가성비					
9	비정규직					
10	경제적 안정					
11	빈곤					
12	창업					
13	청년주거					
14	탕진잼					
커뮤니티·관계						
1	평등					

2	존중					
3	타인의 평가					
4	독립					
5	문화적 개방성					
6	따돌림					
7	차별					
8	시민					
9	개인					
10	커뮤니티					
11	사회적 가족					
12	다양한 관계					
13	오프라인 관계					
14	온라인 관계					
15	배려					
16	공유					
17	신뢰					
18	권위					
19	연결					
20	경쟁					
21	연대					
22	혈연·지연·학연					
23	마이너리티					
24	성평등					
25	성인지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1	미래에 대한 불안					
2	노후준비					
3	치매					

4	코로나19					
5	기후변화					
6	1인주거					
7	신기술					
8	재생에너지					
9	얼리아답터					
10	인공지능					
11	이미지					
12	영상					
13	스토리					
14	익명성					
정치·사회·참여						
1	정치사회적 이슈에 참여					
2	사회적 지속 가능성					
3	낮은 혼인율					
4	저출산					
5	초고령 사회					
6	불평등 사회					
7	시스템에 대한 신뢰					
8	공정					
9	사회복지					
10	의료공공성					
11	질서·규칙					
12	동물권					
13	성폭력					
14	안전					
15	환경					

2. 기본 실태 파악

[2-1] 귀하의 성별은?

- 1) 남성 2) 여성 3) 기타 :

[2-2] 귀하의 출생연도를 기입해 주세요.

()년

[2-3]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 1) 기혼 2) 미혼

[2-4] 귀하의 취업 상태는?

- 1) 취업 2) 학생 3) 기타

[2-5] 현재 거주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_____ 동

[2-6] 귀하는 현재 자기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 1) 네 2) 아니오(전·월세, 타 가족 명의 주택에서 동거 등)

[2-7] 귀하가 현재 거주하시는 집의 방은 몇 칸인가요?

- 1) 한 칸 2) 두 칸 3) 세 칸 이상

[2-8] 귀하는 현재 거주하시는 집에서 화장실·세면대·세탁실·부엌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세대와 함께 쓰고 계신가요?

- 1) 예 2) 아니오

[2-9] 귀하의 취업 상태는 현재 어떠한가요?

- 1) 정규직 2) 계약직(무기·유기계약직, 인재파견회사 계약, 배송대행 등 플랫폼노동자)
3) 인턴 4) 아르바이트 5) 무직(취업활동, 학생 포함)

[2-10] 2-9에서 '정규직' 이외의 선택지를 고르신 분에게 질문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정규직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및 그 준비과정을 이행하고 계신가요?

- 1) 예 2) 아니오

2_면접조사지

117

대덕구 청년세대 선정 미래의제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조사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공감만세에서는 "대덕구 청년세대가 선정한 미래의제 파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구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대덕구의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 계획 및 추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안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하여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① 대덕구 구내 거주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본자료 공여
- ② 설문 응답자 기프티콘 제공을 위한 연락처 수집
- ③ 대덕구 응답자 확인을 위한 거주동 수집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성별, 거주동, 출생연도, 혼인여부, 취업여부, 자가보유여부, 동거가족 유무 여부, 자녀부양여부, 자녀취학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년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답자 상품 제공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기관 : (주)공감만세

* 설문 참여 시 제공되는 기프티콘은 대덕구 거주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1. 기본 실태 파악

1	귀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3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인가요?
4	귀하는 결혼하신 상태인가요?
5	현재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6	현재 거주지는 어디인가요(동 단위까지)?
7	현재 자기 명의 주거를 보유하고 있나요?
8	귀하는 현재 혼자 거주중이신가요?
9	귀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계신가요?
10	9에서 '예'로 답하신 경우, 귀하의 자녀는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2-1] 대덕구가 현재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개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이들 중 현재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1점)에서부터 가장 우수한 것(4점)으로 점수를 기입해 주세요.

- 1) 일자리 :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점)
- 2) 설자리 : 청년행복 증진을 위한 지원 인프라 조성 및 참여·소통 확대 (점)
- 3) 살자리 : 정주여건 및 양육 환경 개선 (점)
- 4) 놀자리 : 청년 커뮤니티 문화시설 확충 및 활성화 (점)

[2-2] 위의 4개 정책들을 채점한 경위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 2020년 12월의 조사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의 노령화 지수는 144.0%로 대전 전체의 평균값 109.9%에 비해 높았으며, 청년 1인 가구의 규모도 대전 5개 구 중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귀하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4] 2020년 12월, 대덕구의 여성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임금

또는 소득"과 "고용 안정성" 부분에서는 남성보다도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고 있는 내용", "근로 환경·시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평성", "복리후생" 등 그 외의 모든 항목에서는 남성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귀하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5] 2020년 12월 대덕구의 남녀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선호 직장의 선택 이유를 묻은 결과, "임금 수입"이나 "고용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대답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응답자분의 경우 어떠한 기준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 | | | |
|----------|------------|---------|
| ①적성 및 흥미 | ②사회적 공헌·인정 | ③자기발전 |
| ④임금 수입 | ⑤고용 안정성 | ⑥출퇴근 거리 |
| ⑦시간적 여유 | ⑧장래 유망 | ⑨근로환경 |

[2-6] 2020년 12월 대덕구의 20대~30대 남녀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구내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귀하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7] 2020년 12월 대덕구의 20~30대 남녀 청년층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및 행복수준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보다 여성의 만족도 및 행복도가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귀하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8] 2-7에서 말한 내용과 관련하여, 응답자께서는 스스로를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나요?

- ①매우 행복함 ②행복함 ③보통 ④행복하지 않음 ⑤전혀 행복하지 않음

[2-9] 자녀를 갖지 않으신 기혼자 분들에 한하여 질문드립니다. 대덕구의 20~30대 남녀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를 부양하는 청년이 전체 대비 36.3%에 그친 반면, 부양을 보조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들을 모두 제치고 가장 크게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응답자께서는 자택이나 회사 근처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소할 경우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반드시 가질 것임 ②가질 것임 ③가지지 않을 것임 ④전혀 가지지 않을 것임
⑤모르겠음

[2-10] 위와 같이 대답하신 경위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1] 설문조사 결과 "행복"을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는 의견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현저히 높게 나왔습니다. 세대 기준으로 보았을 경우 1980~1994년생이나 1995년생 모두 행복을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히 여성이 이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2-12] 설문조사 결과 "성평등"과 "성인지"를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는 순위는 계층별로 ①1995년생 이후 여성 ②1980~1994년생 여성 ③1980~1994년생 남성 ④1995년생 남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①과 ④의 그룹에서는 그 평균값의 차이가 현격하게 컸으며, 같은 세대 안에서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과 해결책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2-13] 설문조사 결과 소비생활에 있어 "가성비"를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전체 조사 대상들을 통틀어 높은 편이었으나, "중고거래"의 경우 그보다 우선순위를 낮게 정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본 연구의 사전 참고하였던 마케팅 분석 자료들에서 "청년층은 가성비를 위해서라면 중고거래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분석했던 것과 모순되는데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2-14] 기존의 문헌들을 확인해 보면, 현재의 청년 세대들은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보다 현재의 즐거움 또는 행복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남성·여성 모든 연령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우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설문자 분계서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우선하는 입장이라면, 언제부터 어떠한 계기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셨나요?

[2-15] 설문조사 결과, "익명성"을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는 의견은 전반적으로 소수에 속하였으나, 유독 20대 남성에 한해서는 평균적인 의제 중시 정도를 웃돌 정도로 이를 중요한 의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 인지하시는 정도 이내에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 설문조사 결과, 국가적 의제로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는 "낮은 혼인율"과 "낮은 출산율"을 중요한 의제로 생각한다는 의견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생 이후의 경우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낮은 혼인율을 더욱 문제시하는 반면, 낮은 출산율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17] 본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의제는 신뢰였던 반면 가장 중요시하지 않았던 의제는 학연·지연·혈연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연·지연·혈연의 악용이 공적 신뢰의 저하를 부추긴다는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 이를 가장 분명하게 느끼셨나요?

[2-18] 설문조사 결과 미래에 우리가 즐길 신기술을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는 경향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이러한 신기술을 상징하는 소비유형인 얼리아답터를 중요시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를 어떠한 의미로 생각하시나요?

[2-19] 2010년 이래 10년간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전체 대비 17.4%에서 27.7%로 증가한 반면에 세계동물권선언이 발표된 지 43년지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동물권은 아직 갈 길이 멍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2016년에 비해 2019년에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20]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 지위, 혁신, 명예, 창업, 도전·모험과 같은 의제를 중시하는 경향은 전 세대에 걸쳐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모순되게 성공과 부, 인정욕구, 일에서의 금전적 보상을 중시하는 경향은 오히려 높은 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마무리

[3-1]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면접조사에서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다루지 못한 내용 중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바쁘신 와중에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